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최정원 · 이인영 · 박지숙 · 이호준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 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 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저 자 최정원, 이인영, 박지숙, 이호준

연구진 연구책임자_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박지숙(경일대학교 교수)
_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윤현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지난(至難)했던 연구 과정이었음에도 시작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책임감과 진정으로 공동연구원의 소임을 다해주신 이인영 박사님, 박지숙 교수님, 이호준 교수님, 윤현솔 연구원님. 그리고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번거로운 자문과 감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진중하게 연구를 살펴봐 주신 유혜영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본 연구가 역설했던 참여적, 정의 지향적, 그리고 책임 이행적 시민의 가치 규범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분들의 노고 덕분에 내실 있는 연구가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콜로키엄을 통해 많은 가르침과 시사점을 주신 김효연 박사님, 유금봉 이사님을 위시해 연구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

2023년 12월 연구실에서
최정원

연구요약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이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의 시민적 가치 규범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참여적, 정의 지향적, 그리고 책임 이행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정치참여는 미시적으로는 민주사회 구성원 개인의 시민성 함양에,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민적 행동임
- 특히,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자신들이 영위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가치와 질서가 구현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 행동임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제약받고 있으며, 학교 정치·시민교육 및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또한 실질적 청소년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 속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교육·법령 및 제도·기구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이러한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참여적, 정의 지향적, 그리고 책임 이행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 결과

주요 연구 결과

● 시민성 및 정치참여의 개념 및 관계에 관한 문헌분석

- (시민성) 가치 규범적 측면에서 좋은 시민은 ‘책임 이행적 시민’, ‘참여적 시민’, ‘정의 지향적 시민’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좋은 시민성의 규범은 참여, 자율, 사회질서, 연대, 애국, 평등 등의 가치로 구성됨. 이에 본 연구는 시민성을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의 가치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정치참여)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청소년이 일상에서 정치를 경험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정치참여의 정의에 따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정치참여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함
-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간의 긍정적 관계는 시민적 역량, 정치효능감,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 및 정치참여 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와 시민성 및 정치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됨

●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의 현황과 한계에 관한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

-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근거) 청소년 정치참여는 공직선거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일련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근거가 확대되었으나, 실질적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한계로 18세 미만 선거 운동 제한과 청소년 입당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개별 학교 학칙과의 충돌 등이 확인됨

-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교육적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관련 교육이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와 참정권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나, 조례에서 참정권 교육의 대상과 주체를 18세 이상의 학생 유권자로 규정하여, 학교 밖의 18세 이상 유권자는 참정권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음
- **(청소년 정치참여와 기구 및 의회)**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 참여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청소년의회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주요 해외 사례)** 독일의 경우, 보수 성향 정당은 16세 이상, 진보 성향 정당은 투표권 연령보다 낮은 14세 이상에게 당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각각 14세 이상과 16세 이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규정하였으며, 보수당은 연령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선거권 연령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연령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핀란드의 경우, 기탁금 제도가 없어 청소년들의 선거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며, 청소년 참여기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음

●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 양상에 관한 초점집단면담(FGI) 및 실태조사

○ 초점집단면담(FGI)

-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 첫째, 정치참여의 의미인 경우, 초등학생은 ‘투표’나 ‘시위’같이 정치참여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나, ‘학교 자치회에 입후보하기’와 같은 학교 교육 활동을 정치참여라고 이해함. 한편, 중학생은 문제해결 활동을 정치참여로 이해하고, 활동의 결과로서 사회문제해결과 같은 변화도 중요하게 인식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정치참여는 청소년 참여기구 또는 학교 자치를 통한 참여임을 확인함. 둘째, 정치참여

계기의 경우, 가정에서의 학습, 청소년 정치참여 장에서 활동하는 또래의 영향이 참여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입문 경험을 통해 시민적 책임감 등을 느끼며 참여 경험이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됨. 셋째, 정치참여 경험의 결과, 청소년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으며, 공동체와 사회 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 또한,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의 증진을 경험함

-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 첫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청소년 정치참여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 정치참여를 장려하면서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확인됨.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정치·시민교육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교육의 중립성 문제로 인한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실천, 학교 및 교사에 따른 비밀관성,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학습의 질 담보 문제가 제기됨. 셋째, 기구적 측면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의회 등 관계자의 인식 및 태도, 청소년 제안 수용률 도출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양상과 성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의 정치참여 요구 등이 문제로 확인됨.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없어지고,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동기가 약화하는 한계로 지적됨

○ 실태조사

- **(시민성)** 좋은 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6개의 시민적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와 관련해 자율을 제외한 여타 시민적 가치 규범에서 초등학교 집단이 중·고생 집단보다 일관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줌. 초·중·고생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평등과 애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참여가 가장 낮았음. 세 가지 시민 유형 중 초·중·고생 집단 모두에서 정의 지향적 시민의 점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초등학교 72.7%, 중학생 82.6%, 고등학생 81.4%), 반대로 각 집단 내 참여적 시민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9%,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6.6%에 그침

- **(정치참여 경험)** 수업 중 토론을 통한 정치참여,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교외 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사적 관계망에서의 정치참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등 5개 유형의 정치참여와 관련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경험은 초등학생에게서 두드러지고 친구나 부모 등의 사적 관계망 및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에게서 두드러짐. 중학생 집단에서는 유형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음. 다만, 학교 안과 밖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추이를 비교하면 초·중·고생 공통으로 학교 밖과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이 학교 안에서의 경험보다 저조함
-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의 관계)** 수업 중 토론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중·고생), 연대(고등학생), 애국(중·고생) 가치 규범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초·중·고생) 가치 규범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학교 밖 참여기구를 통한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초·중·고생), 사회질서(초·고등학생), 연대(중·고생) 가치 규범 함양에 도움을 주었고,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초·중생), 자율(초·중생) 가치 규범 함양에 도움을 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사회질서(중·고생), 평등(고등학생), 애국(고등학생) 가치 규범의 함양에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 학교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 모두 학교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관련해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을 가장 많이 선택함.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 시민교육을 포함해 지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중·고교에서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과를 통해 시민교육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학교 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 수준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학교와의 연계성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외부 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등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학교 시민교육의 확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음.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지원 환경에 있어 대부분의 학교 현장은 학교 구성원 친화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핵심 정책 제언

핵심 정책 제언

● 교육 영역

○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적 노력 강화

- 본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성인들의 이중적인 시선, 둘째, 청소년 스스로 지니는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셋째, 정치·시민교육 대한 부정적 인식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증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함
-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함
- 이들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민으로서의 성장 과정과 사회적 역할로 이해한다면, 청소년 정치참여 및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할 것으로 기대함

○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 및 정치·시민교육 과정 강화

- 민주적 학교문화와 정치·시민 교육은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실제 학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회의적인 것으로 확인함
- 정치·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째, 교육과정에서의 필수적 학습 시간 확보 실패와 둘째,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제시됨
-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의 성장이라는 공교육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적 학교와 정치·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제공 필요성을 제안함

○ 학교 안팎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연계 강화

-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학교 안팎 연계의 부족을 지적하고, 첫째,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와 둘째, 학교 밖 활동의 학교 안 인정 체계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함

-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교외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학교 밖 참여 활동에 대한 학교 안 인정 체계 연계는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 동기 제공의 필요성을 의미함
- 대안적 참여 동기의 제공 방안은 대입제도 이외에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기관, 교사공동체, 청소년 지도사 공동체 등의 협력 체제를 중심으로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법령 영역

○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치·시민교육의 제도적 원칙 수립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치·시민교육의 제도적 원칙 수립을 제안함. 이때,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라는 원칙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와 핵심 주제, 교육 자료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해석되어 회·정치적 이슈에 관한 학교 교육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소극적 정치·시민교육의 실천을 초래함
- 따라서 청소년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양질의 정치·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보급이 시급하며, 이때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을 제안함

○ 내실 있는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교칙 개정

-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제도적 정치참여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려는 정치 관계법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법령 정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개정된 정치 관계법과 관계법의 유권 해석 등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의 필요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칙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함

-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정치 관계법, 중앙선관위의 운용 기준 등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적, 조건적 권리 부여 조항, 타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는 유권 해석 등의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함

● 기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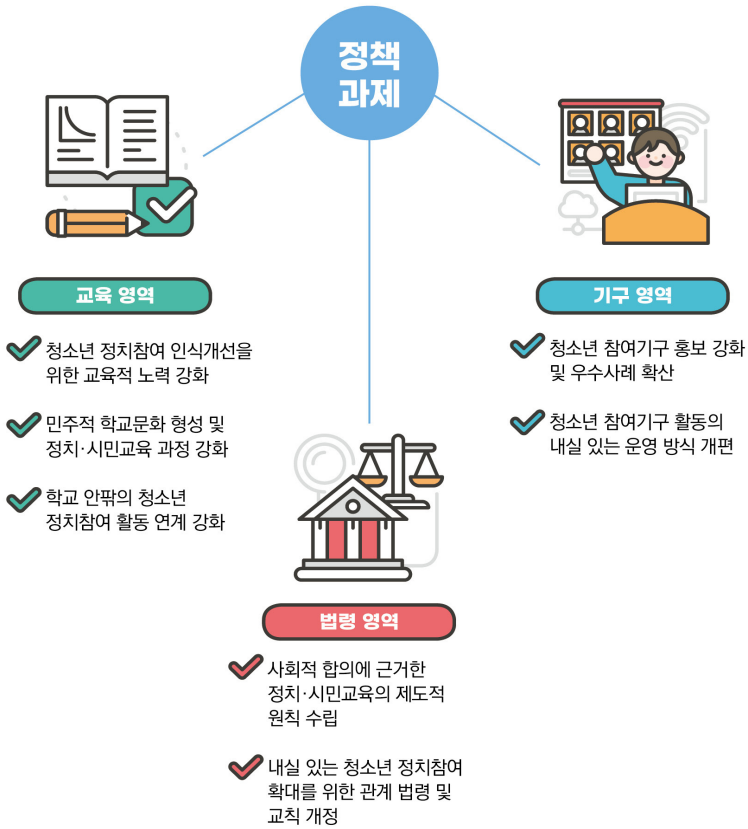
○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 현재 학급회, 학생회, 학생의회,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기구가 다양하게 존재함. 본 연구 결과는 참여기구 활동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다수에게 참여기구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이르는 가능성을 시사함
- 따라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참여기구와 각 기구의 활동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인지도 및 관심도 제고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개별 지자체, 교육청, 또는 단위 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참여기구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와 우수 자치활동 소개 자료의 일괄적 제공 필요성을 제안함

○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 방식 개편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참여기구의 실질적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인함. 학교 밖 참여기구의 역할은 청소년 현안을 공식적으로 의제화하고, 지자체 또는 국가 수준의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것임.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적·형식적 의견 수렴 과정만 강조될 뿐,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기구의 의결은 고려되지 않음
- 따라서, 참여기구의 활동과 권한이 공동체의 주요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을 우수 참고 사례로 제시함
- 또한, 참여기구의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는 교원과 기관 실무자 대상 업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함. 학교 현장 및 학교 밖 현장의 실무자 전문 연수 과정에 대한 접근성 확대 지원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활성화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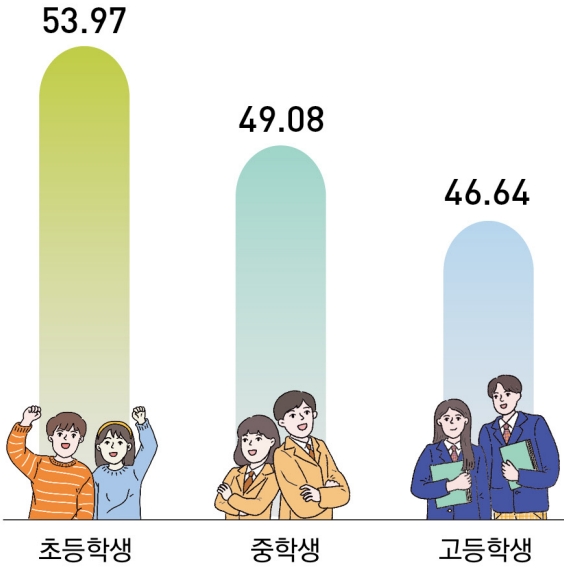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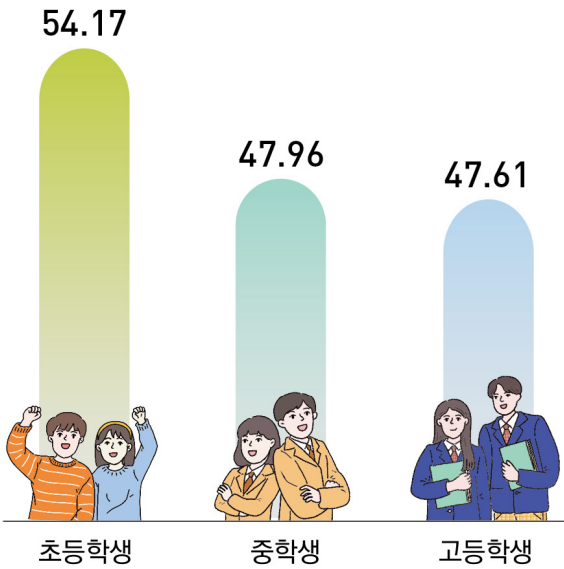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비교

단위: T 점수

사회질서



연대



단위: T 점수

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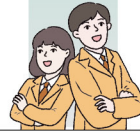


49.27



초등학생

49.09



중학생

51.78



고등학생

평등



51.12



초등학생

50.17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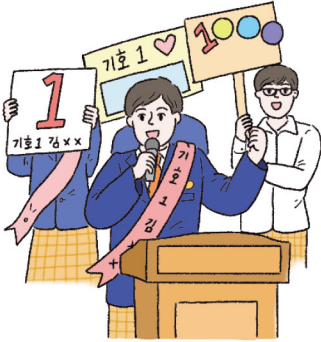
48.58



고등학생

단위: T 점수

참여



51.20



48.80



49.97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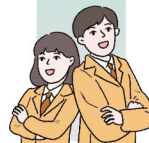
애국



54.97



48.43



46.24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따른 시민 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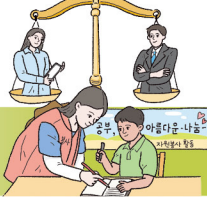
초등학생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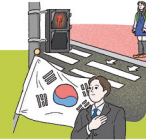
참여적 시민

72.7%



정의지향적 시민

25.4%



책임이행적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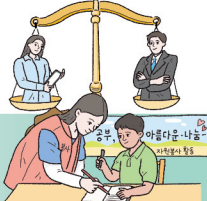
중학생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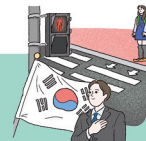
참여적 시민

82.6%



정의지향적 시민

14.0%



책임이행적 시민



고등학생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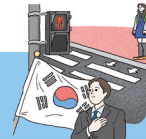
참여적 시민

81.4%



정의지향적 시민

12.0%



책임이행적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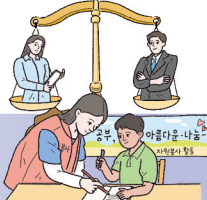
전체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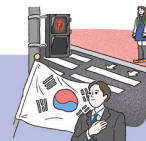
참여적 시민

78.8%



정의지향적 시민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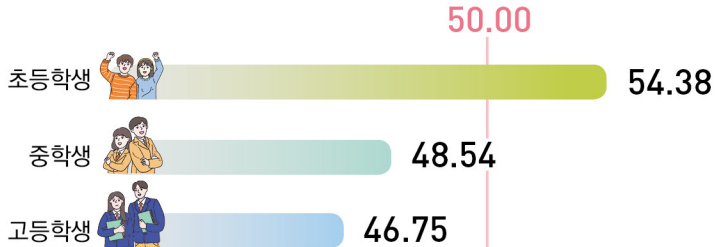
책임이행적 시민

- 참여적 시민: 참여와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점수가 제일 높은 유형
- 정의지향적 시민: 연대와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점수가 제일 높은 유형
- 책임이행적 시민: 사회질서와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점수가 제일 높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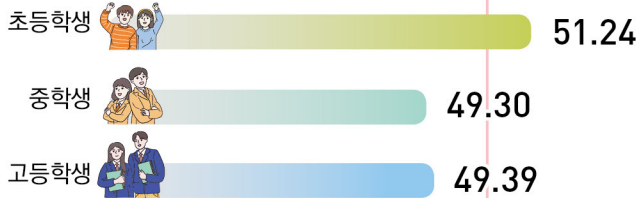
정치참여 경험

단위: T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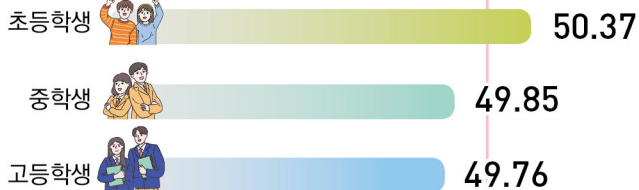
수업 시간 중 토론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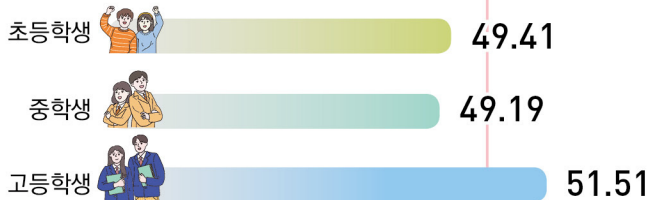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



학교 밖 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



사적 관계망*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친구, 부모 등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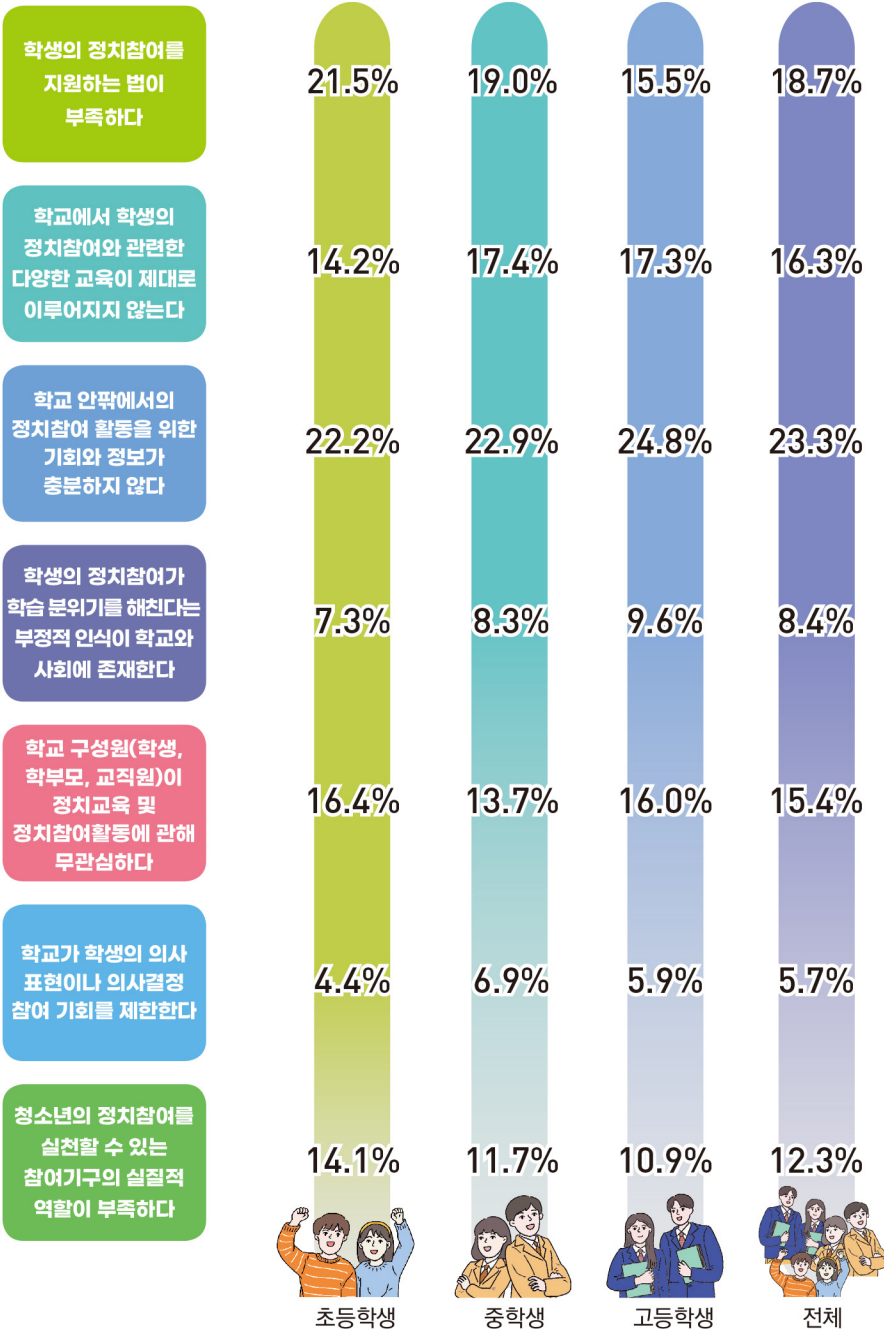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장 방해하는 요인

※ 비교: 통계는 해당 요인이 각 집단의 응답 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및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도움 수준

활성화 수준 평정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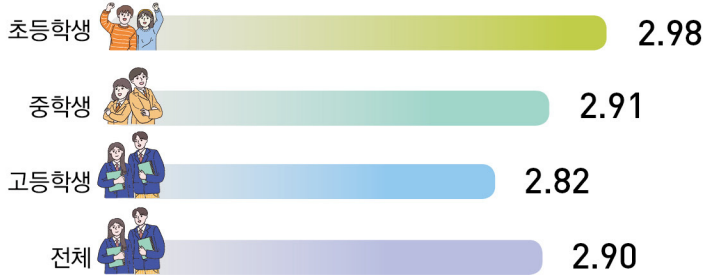
- 1-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3-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4-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도움 수준 평정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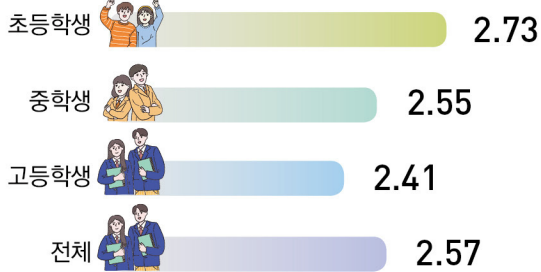
- 1-전혀 도움이 안됨
- 2-대체로 도움이 안 됨
- 3-대체로 도움이 됨
- 4-매우 도움이 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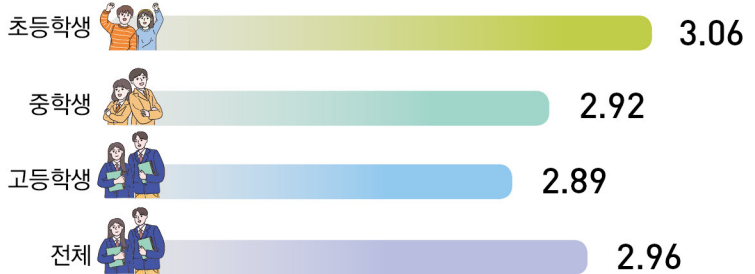
학교 안 정치·시민교육 활성화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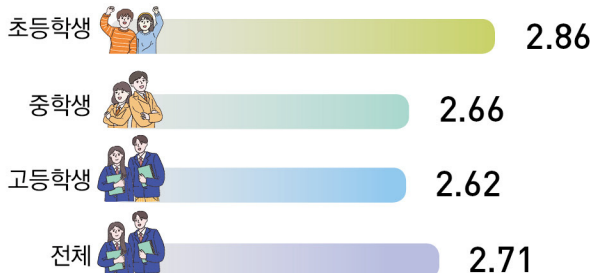
학교 밖 정치·시민교육 활성화 수준에 대한 인식



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도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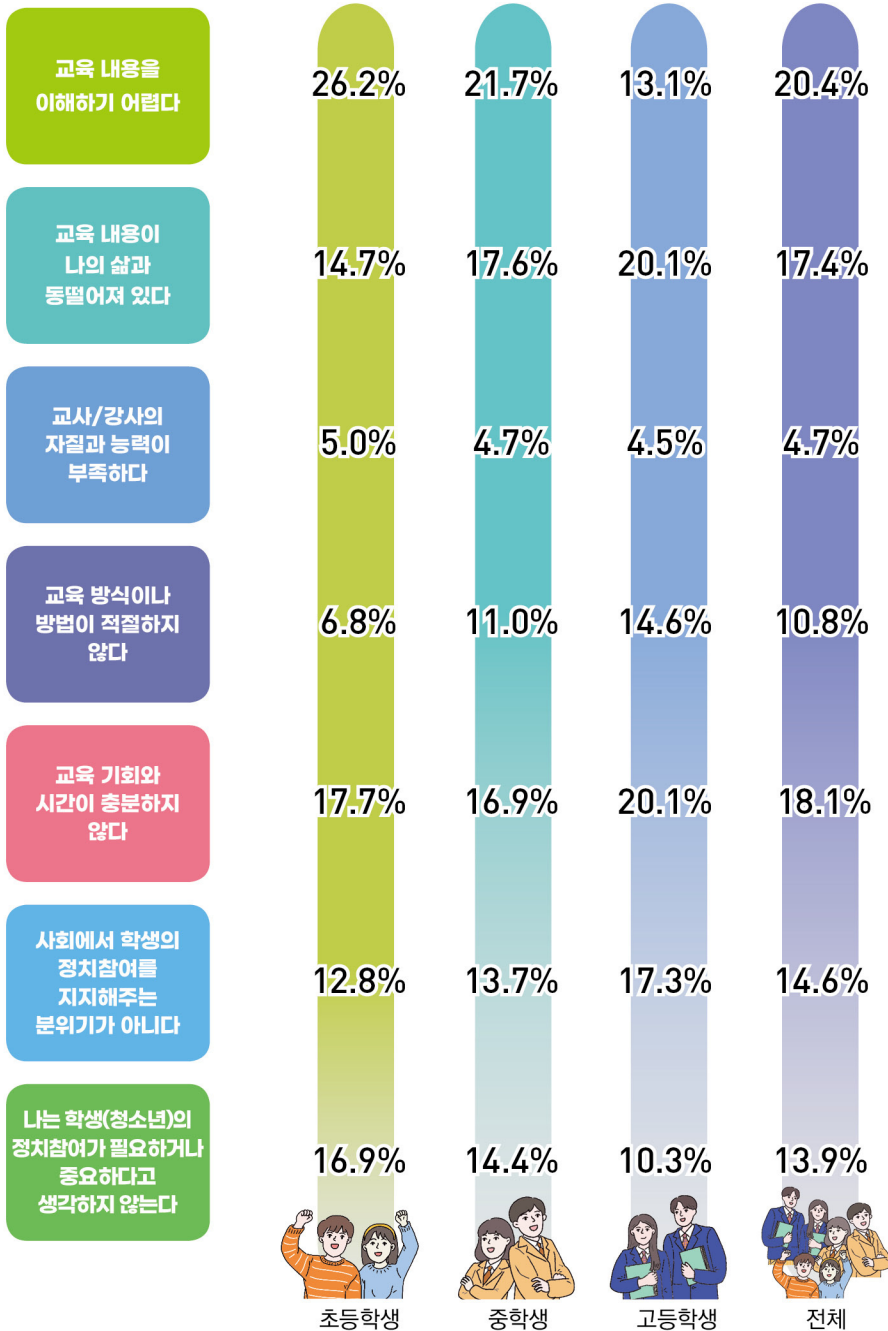


학교 밖 정치·시민교육의 도움 수준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 비고: 통계는 각 집단의 응답 결과에서 해당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23-기본07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 내용과 방법	7

II. 청소년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시민성의 개념	17
2. 정치참여의 개념	25
3.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	34
4. 소결	40

III.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의 현황과 한계

1.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근거	47
2.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	52
3. 청소년 정치참여와 각종 기구 및 의회	62
4.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에 관한 해외 사례	68
5. 시사점	75

IV. 청소년 시민성과 정치참여 실태 분석

1.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85
2. 초점집단면담(FGI) 분석 결과	89
3. 초점집단면담(FGI) 시사점	104
4. 실태조사 개요	106
5. 실태조사 기초 분석 결과	121
6. 실태조사 심화 분석 결과	154
7. 실태조사 시사점	185

V. 정책 제언

1. 정책과제 도출과정 개요	193
2. 정책과제와 대안	197

참고문헌	217
------------	-----

부 록	231
----------------	-----

Abstract	283
----------------	-----

표 목차

표 I -1 주요 연구 질문 및 방법	8
표 I -2 설문조사 개요	10
표 I -3 FGI 개요	10
표 I -4 전문가 서면 자문 개요	11
표 II -1 시민성 설문조사에서의 좋은 시민성 규범	21
표 II -2 본 연구의 시민성 개념과 구성요소	25
표 II -3 선행연구에서의 정치참여 개념	28
표 II -4 모상현 외(2021)의 청소년 정치참여 유형	31
표 II -5 ICCS 2016의 청소년 정치참여 유형	32
표 II -6 본 연구의 청소년 정치참여의 정의와 유형	33
표 II -7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의 실증적 관계	38
표 III -1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	49
표 III -2 학생인권조례 중 청소년(학생) 정치참여 관련 조항 및 주요 내용	51
표 III -3 학생자치활동지원조례 주요 내용	52
표 III -4 참정권 교육 관련 조례 주요 내용	53
표 III -5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참여 관련 내용 및 단원(공통 과정 기준)	56
표 III -6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참여 관련 내용 및 단원(공통 과정 기준)	57
표 III -7 2015년 및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치참여 관련 내용	59
표 III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교육 주요 내용	60
표 III -9 전국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66
표 III -10 일본 공민과(公民科) 교과목 중 정치적 교양 관련 과목의 주요 내용	70
표 III -11 영국 청소년 회담의 연도별 투표수, 투표율, 가장 많은 득표 안건	72
표 IV -1 초점집단면담 질문 개요	86

표 IV-2 실태조사 개요 비교	108
표 IV-3 조사 문항 개요	119
표 IV-4 시민성 개념과 구성요소	121
표 IV-5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비교	124
표 IV-6 청소년 정치참여 정의와 유형 구분	127
표 IV-7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 경험 비교	129
표 IV-8 참여 효능감의 비교	132
표 IV-9 학교 민주주의 지수 비교	133
표 IV-10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과 보호자의 관심 비교	134
표 IV-1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과 보호자 관심의 상관관계 ...	135
표 IV-12 자신의 정치 견해 형성에 있어 주변 사람들과 매체가 미친 영향력 비교	135
표 IV-13 학생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에 대한 문제 인식의 경향성 비교	140
표 IV-14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비교	141
표 IV-15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도움 수준 비교	144
표 IV-16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의 학교급별 경향성 비교	148
표 IV-17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한 학교급별 경향성 비교	150
표 IV-18 변수설명	157
표 IV-19 정치참여와 참여의 관계(초등학생)	161
표 IV-20 정치참여와 자율의 관계(초등학생)	162
표 IV-21 정치참여와 사회질서의 관계(초등학생)	163
표 IV-22 정치참여와 연대의 관계(초등학생)	164
표 IV-23 정치참여와 평등의 관계(초등학생)	164
표 IV-24 정치참여와 애국의 관계(초등학생)	165
표 IV-25 정치참여와 참여의 관계(중학생)	166
표 IV-26 정치참여와 자율의 관계(중학생)	167
표 IV-27 정치참여와 사회질서의 관계(중학생)	168
표 IV-28 정치참여와 연대의 관계(중학생)	168
표 IV-29 정치참여와 평등의 관계(중학생)	169
표 IV-30 정치참여와 애국의 관계(중학생)	170
표 IV-31 정치참여와 참여의 관계(고등학생)	171
표 IV-32 정치참여와 자율의 관계(고등학생)	172

표 IV-33 정치참여와 사회질서의 관계(고등학생)	173
표 IV-34 정치참여와 연대의 관계(고등학생)	173
표 IV-35 정치참여와 평등의 관계(고등학생)	174
표 IV-36 정치참여와 애국의 관계(고등학생)	175
표 IV-37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시민교육의 상호작용 효과 (초등학생)	177
표 IV-38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시민교육의 상호작용 효과 (중학생)	178
표 IV-39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시민교육의 상호작용 효과 (고등학생)	179
표 IV-40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180
표 IV-41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181
표 IV-42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182
표 IV-43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183
표 IV-44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184
표 IV-45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184
표 IV-46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의 관계 (학교급별)	185
표 V-1 17개 시도 2024년 청소년 예산 편성 여부 현황	215

그림 목차

그림 III-1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 수용률 및 이행률 (2014~2021)	63
그림 IV-1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집단 평균	125
그림 IV-2 집단 내 세 가지 유형의 좋은 시민 점유율 비교	126
그림 IV-3 정치참여 유형에 따른 경험 수준(T 점수)의 집단 내 편차	131
그림 IV-4 자신의 정치 견해 형성에 있어 주변 사람들과 매체가 미친 영향력의 집단 내 편차	137
그림 IV-5 학생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에 관한 생각 비교	139
그림 IV-6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비교	143
그림 IV-7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도움 수준 비교	146
그림 IV-8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중복응답 취합 결과)	147
그림 IV-9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 목표 학교급별 비교	149
그림 IV-10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 학교급별 비교	151
그림 IV-11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관련 학교의 자율성 비교	152
그림 IV-12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 운영되는 학생 참여 활동의 운영 빈도 비교	153
그림 IV-13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환경 실태 비교 ...	154
그림 V-1 본 연구의 주요 정책시사점 요약	195
그림 V-2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활성화 정책과제	196
그림 V-3 에듀넷·티-클리어 홈페이지	201
그림 V-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찾기 검색 화면 ...	211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이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의 시민적 가치 규범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참여적, 정의 지향적, 그리고 책임 이행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 부연하면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²⁾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부터 18세의 청소년이 새로운 유권자로 등장하여 미증유의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다시 2년 뒤인 2021년 12월 31일에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³⁾ 18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선출돼 국가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2022년 1월 11일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6세 청소년도 정식으로 정당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⁴⁾. 청소년 정치참여의 괄목할 만한 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온전한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예를

1) 본 장을 집필한 사람: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2020년 1월 14일 시행

3) 2022년 1월 18일 시행

4) 2022년 1월 21일 시행

들어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가입은 불가능하다. 즉, 보호자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지 못한 미성년 청소년은 18세가 되기 전까지 정당 활동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의 경험치를 쌓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설사 보호자의 동의로 정당 가입이 성사돼도 해당 청소년은 18세가 되기 전까지 당비 납부 및 후원금 기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 홍보, 당원 모집 등 통상적(또는 소극적) 정당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 운동, 당내 경선 운동⁵⁾ 등 적극적 정당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더욱이 선거 운동이 허용된 18세에 이르더라도 해당 청소년이 교내에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 관리자는 교내 질서 유지, 학습권 및 교육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선거 운동을 위한 학교 출입을 제한 및 통제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교육 또한 청소년의 온전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 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자동으로 신장하지 않는다.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이란 선거기간 후보자나 유권자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참정권)를 행사하는 것 외에도 일상에서 국가공동체의 성원으로 정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정치 활동(예: 선거 운동, 정당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 및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정치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박은아, 성경희, 배하순, 2022; 배영민, 2018).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교 정치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만 되풀이될 뿐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교육은 학교의 정치화와 학생의 정치 편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위축돼 있다(최원형, 이유진, 2020).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학생의 정치 활동을 학칙으로 규제하거나(조해람, 2022),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토론 대신 교과 내용의 일방적 주입으로 정치교육을 갈음하는 학교 현장은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는 고사하고 정치에 관한 무관심을 초래하는 역효과

5)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은 예외

를 초래하고 있다(김성태, 이하랑, 조건우, 최세진, 2021).

좁게는 헌법상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부터 넓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견해를 표출하는 의식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정치참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정치참여가 미시적으로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시민성 함양에, 거시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미래세대로 부르며 현재의 정책과 사회문제가 마치 그들의 현실과 무관한 듯한 인식을 심어주며 청소년을 현실 정치에서 배제하려 들지만(진냥, 2021), 현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응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고통을 초래한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이러한 문제적 현실에서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자신들이 영위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가치와 질서가 구현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 속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탐색하고 이러한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참여적, 정의 지향적, 그리고 책임 이행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시민성 및 정치참여의 정의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의 핵심 개념인 시민성과 정치참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시민성의 개념적 특징은 경합적 개념(contested concept)으로서 의미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수반되어(Carr, 1991),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상적 접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시민권(市民權)’ 혹은 ‘시민성(市民性)’으로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권으로 사용될 때는 시민으로의 자격(membership)과 권리(right) 및 권한(entitlement),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의무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반면, 시민적 덕성(virtue)과 가치(value)로서의 시민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과 번영을 위하여 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실천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시민성 개념은 이처럼 권리적 측면과 가치 규범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데, 이 중 본 연구는 정치적 행동과 실천을 통한 청소년의 시민적 가치와 태도 함양이라는 연구 목표에 따라, 규범적 측면에서 시민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좋은 시민의 유형과 좋은 시민에게 기대되는 핵심 가치 규범을 중심으로 시민성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교육 목표로서 이상적인 좋은 시민의 유형은 책임 이행적 시민, 참여적 시민,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Westheimer & Kahne, 2004), 좋은 시민의 핵심 가치 규범은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으로 제시할 수 있다(Dalton, 2008; Denters, Gabriel & Torcal, 2007; Dynneson, 1992; Print, 2020; Shulz, Ainley, Fraillon, Losito & Agrusti, 2016; Van Deth,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민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민성이란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이며
그중에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이 핵심 가치를 이룸**

좋은 시민의 세 가지 유형과 유형별 핵심 가치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공동체에의 참여가 강조되는 참여적 시민의 핵심 가치는 참여와 자율이다. 참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율은 민주주의적 속의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나의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동시에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의 핵심 가치는 연대와 평등이다. 연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의미하며, 평등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신이 속한 체계의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책임 이행적 시민의 핵심 가치는 사회질서와 애국이다. 사회질서는 사회체계에 대한 수용과 신뢰,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을 의미하며, 애국은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치참여는 범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유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의미의 정치참여에 해당하는 Verba와 Nie, Kim(1978:46)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참여란 “정부 인사의 결정 및/또는 정부 인사의 행동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민간 시민의 합법적 활동”으로 의식적(ceremonial) 혹은 지지적(support)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도권 내의 합법적 활동으로 한정한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 Milbrath와 Goel(1977)의 정치참여는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적극적 역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고 지지적인 활동 또한 포함한다. 참여 성격에 따른 유형화의 경우도 적용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습적 참여는 선거 참여 관련

행위 등 주로 제도적 차원 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비관습적 참여는 불법적 시위와 같이 불법적인 행위, 서명, 평화적 시위 등 제도권 밖의 다양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박찬욱, 2005; 이재신, 이영수 2009).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같은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정치참여를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참여는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청소년이 속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인지적 및 행동적 차원의 행위로 구성된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학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특히 자기 삶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평화로운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권순정, 윤노아, 임혜정, 조현서, 정지수, 2022:28)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정치참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며,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

이러한 정의에 비춰,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로 부모님과 의 정치적 이슈에 관한 대화, 소셜 미디어에 정치적 이슈 관련 글 게시, 학생회 임원 활동, 사회문제에 관한 평화 시위 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참여적, 정의 지향적, 그리고 책임 이행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연구 질문과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연구 질문 및 방법

질문	내용	방법
1.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개념,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는 무엇인가?	•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제 - 시민성과 정치참여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 시민성 함양과 정치참여의 관계	문헌분석
2.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지원 체계(교육, 기구, 법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 기구, 법령 자원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
3.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가?	•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 양상 - 정치참여 및 시민성의 의미, 정치적 관심 및 경험, 정치적 효능감, 시민성 발달 경험, 시민성 함양 방안 등 -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 -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관계	초점집단면담(FGI) 설문조사
4.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전략 제언	전문가 서면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 시민성 및 정치참여의 개념과 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제

시민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유민”으로 시민성은 이러한 자유민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일련의 “가치관, 행동 양식, 기질 따위의 특성”을 가리킨다(우리말샘, 2023a, 2023b). 그렇다면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바탕을 이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지위에 걸맞은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가리키지만(우리말샘, 2023c), 이러한 활동이 선거와 투표와 같은 특정 맥락, 치자와 피치자와 같은 이분법적 지위 구분을 넘어 시민의 보편적이고 일상적 정치적 기본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구현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문헌 리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시민을 참여적, 정의 지향적, 책임 이행적 시민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핵심

가치 규범으로 참여적 시민의 경우 참여와 자율, 정의 지향적 시민의 경우 연대와 평등, 그리고 책임 이행적 시민의 경우 사회질서, 애국 등을 꼽았다. 정치참여의 경우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활동을 증진한다는 맥락에서 제도권 내 관습적 참여 활동(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의 참정권 행사, 정당 활동 등)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비관습적 참여 활동(정치적 사안을 인식하고 토론하는 행위,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합법적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 등)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치참여를 정의했다.

2)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의 현황과 한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청소년에게 정치참여의 기회가 보장됐지만,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규제하는 교칙, 학교 정치교육의 위축,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등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반 환경에 대한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길성용, 강태수, 2022; 남미자, 장아름, 2020; 박선행, 2020; 박은아 외, 2022; 송성민, 2022). 그러나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 학교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앞세워 청소년의 교내 정치 활동을 제약하거나 학교 정치교육에서 현실 정치와 정책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터부시하는 기조가 지속할수록 정치에 대한 청소년의 무관심과 정치교육의 몰 정치화는 불가피하다.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는 분명 고무적인 변화이지만 참정권의 확대만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과 정치참여 증진이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의 현황을 교육, 법령, 지구 영역으로 구분하고,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 자원 영역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실태

본 연구는 전국 359개 초·중·고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8,654명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좋은 시민의 대표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에 대한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시행 수준과 효용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고 표본설계에 관한 부연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구분	학생 조사	학교 특성 조사
조사 대상	초등학생 4~6학년 2,999(2,848*)명 중학생 1~3학년 2,921(2,821*)명 고등학생 1~3학년 2,734(2,985*)명 *가중치 적용 전 표본 규모	학생 조사가 시행된 전국 359개 초·중·고 (각 학교의 대표 교원 1인이 응답)
표집 틀	2022 교육통계 연보	
표본 추출 방법	다단계 층화집락추출	
조사 시기	2023년 5~7월	
조사 방법	조사원의 학교 방문 및 우편조사	온라인 설문
주요 내용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과 도움 수준에 대한 인식 등	학교 시민교육의 최우선 목표,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 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성, 학생 참여 기반 학교 시민교육의 구현 정도 등

설문조사와 더불어 본 연구는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청소년 그룹과 교원 그룹을 대상으로 한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그룹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수립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과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교원 그룹에는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 식견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참여했다.

표 1-3 FGI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초등학생: 4명 - 중학생: 4명 - 고등학생 집단: 6명 - 대학생: 8명 - 초·중등교원: 10명
조사 시기	2023년 5~6월
조사 방법	대면 면담
주요 내용	- 정치참여의 의미, 관심, 경험, 효능감, 지원 방안 - 시민성의 의미, 발달 경험, 함양 방안 등

4)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제언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는 분명 청소년의 권리와 권익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정치참여의 더 근본적인 의의는 정치참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삶에서 참여적, 정의 지향적, 그리고 책임 이행적 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실천하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태조사, FGI, 문헌 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교원, 장학사, 참여기구 운영자 등 현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서면 자문 결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 기조와 사업을 주관하는 관계부처 주무자와의 정책실무협의 회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 및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구, 법령 영역의 정책과제 및 대안을 제언하였다.

표 1-4 전문가 서면 자문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대상	• 초·중등교원 • 교육청 장학사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자
규모	• 20명
내용	• 청소년 시민성 함양 및 정치참여 활성을 저해하는 교육적, 기구적, 법률적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
방법	• 서면 조사
시기	• 2023년 9월

○ — 제2장 청소년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시민성의 개념
- 2. 정치참여의 개념
- 3.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
- 4. 소결

2장 개요

연구 방법

- 시민성 및 정치참여의 개념과 두 개념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주요 내용

1. 시민성의 개념

- 시민성의 개념은 권리적 측면과 가치 규범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표에 따라 시민성의 가치 규범적 측면에 주목함
- 가치 규범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교육 목표로서의 시민성은 시민성의 이상 및 좋은 시민성과 관련됨
- 좋은 시민은 '책임 이행적 시민', '참여적 시민', '정의 지향적 시민'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좋은 시민성의 규범은 참여, 자율, 사회질서, 연대, 애국, 평등 등의 가치로 구성됨
-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시민성을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의 가치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2. 정치참여의 개념

- 정치참여의 개념은 정부에 대한 요구 및 반대 활동과 정치적 참여 활동을 의미하는 최협의 개념부터 정부 영역 이외의 시민 활동과 의식적 차원의 활동, 공격적·폭력적 활동, 정부에 대한 지지와 동원된 활동까지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까지 그 수준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음
-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정치를 경험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정치참여의 정의에 따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치참여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함
- 또한, 정치참여의 유형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오프라인 정치참여는 교실 및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안 활동과 가정, 지역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온라인 정치참여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 활동으로 정의함

3.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

-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간의 긍정적 관계는 시민적 역량, 정치효능감,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음
- 청소년은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한편, 높은 시민적 역량은 정치참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정치효능감은 시민적 역량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매개로 작용하여, 정치참여 활동은 정치효능감을 향상하는 한편, 높은 정치효능감은 적극적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
- 사회 자본적 측면에서 청소년은 정치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속감과 공유된 정체성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정치참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두 개념 간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 및 정치참여 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와 시민성 및 정치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됨

정책시사점

- 시민성과 정치참여 개념과 두 개념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정치참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공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시민성의 주요 가치 규범으로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의 가치에 주목해야 함
- 둘째,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범위를 학교 안팎(교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과 온라인을 포괄하는 청소년의 일상으로 설정하고, 광의의 개념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를 이해해야 함
- 셋째, 시민성과 정치참여 간의 긍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시민교육, 정치효능감, 사회적 자본을 통한 정치참여 및 시민성 증진 방안을 고안해야 함

1. 시민성의 개념

1) 좋은 시민의 가치 규범

시민성(citizenship)은 단일하게 합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의미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수반되는 경합적 개념(contested concept)으로(Carr, 1991),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따라 특정 유형의 시민성 담론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사상적 접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은 ‘시민권(市民權)’ 혹은 ‘시민성(市民性)’으로 다르게 쓰일 수 있다. 시민권으로 사용될 때의 기본적 정의는 “특정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 내의 개인에게 부여된 지위”(Giddens & Sutton, 2022:456)로서, 시민으로서 자격(membership)과 권리(right) 및 권한(entitlement),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의무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권리로써의 시민권 이론의 토대를 마련한 마셜(T. H. Marshall)은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1950)에서 시민권이 산업화와 함께 18세기의 시민적(공민적) 시민권(civic citizenship)으로부터 19세기의 정치적 시민권(political citizenship)을 거쳐, 20세기의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논의하며(Giddens & Sutton, 2022; Marshall & Bottomore, 2014), 다음과 같이 시민권을 정의한다.

시민권은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지위이다. 따라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지위가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평등하다. 이러한 권리나 의무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이 발전하고 있는 사회는 성취를 가늠하고 열정을 쏟을 이상적인 시민권의

6) 본 장을 집필한 사람: 이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상(image)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적인 시민권을 향해 나아가는 욕구는 더 완전한 평등을 위한 정책과 시민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권이라는 지위가 부여된 사람들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Marshall & Bottomore, 2014:55-56)

마셜의 개념에서 시민권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평등하게 하는 ‘지위’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평등을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시민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시민 평등의 조건”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시민권은 시민 평등의 조건이다. 시민권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회적 협력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위는 정치 공동체가 제공하는 공동재를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민권 자체의 이익을 포함하여 이를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동등한 의무를 수반한다. (Bellamy, 2008:17)

한편, 시민권의 개념은 시민에게 주어지는 ‘자격’과 ‘권리’, ‘의무’가 강조되는 수동적 성격이 특징이라면 시민적 덕성(virtue)과 가치(value)로서의 시민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과 번영을 위하여 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실천이 강조된다. 시민이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시민적 덕성과 가치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민성은 시민적 규범(norm)의 의미 또한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성 규범의 변화와 이것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 Dalton(2008:78)에 따르면, 시민성이란 “좋은 시민으로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범 집합”이며, 시민성 규범은 “정치에서의 시민 역할에 대한 공유되는 기대 집합”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민성 개념은 권리적 측면과 가치 규범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시민성 개념의 특징은 ‘개인주의적 권리와 자격’이라는 자유주의적 개념과 ‘공동체 멤버십과 복속’이라는 공동체주의적 개념의 연계성, 그리고 수동적 자격 부여에서 책임 있는 시민의 덕성과 실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시민성 이론(Kymlicka, 2005)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정치참여라는 정치적 행동과 실천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가치 규범적 측면에서 시민성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성 증진이라는 의도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적 목표이자 결과로서 청소년이 함양할 것으로 상정되는 시민성은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유하는 특정한 가치와 방향성, 즉 시민성의 이상(ideal)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민성의 이상에 대한 문제는 곧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좋은 시민(good citizen)’이란 누구인가?, 좋은 시민에게 기대되는 가치와 태도, 행동은 무엇인가?,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이란 무엇인가? 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좋은 시민성에 관한 논쟁은 오랜 학술적 주제로(Villalobos, Morel & Treviño, 2021),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많은 정치철학자가 공동선, 사회적 참여, 정치적 행동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이 좋은 사회와 좋은 정치 공동체의 선결 조건임을 역설하였다(Denters et al., 2007). 특히, 민주주의는 “민중(the people)이 통치하는 형태의 정치체제”이므로(Held, 2006:1), 민중을 이루는 시민들이 어떠한 덕성을 지니는가는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과 변형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덕성을 지닌 시민이 좋은 시민인가? 이는 좋은 시민성의 규범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Westheimer와 Kahne(2004)은 ‘효과적인 민주사회를 지지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시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존의 좋은 시민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세 가지 시민 유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 유형인 ‘책임 이행적 시민(personally responsible citizen)’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법을 준수하며, 정직, 진실성, 자기 규율, 근면과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참여적 시민(participatory citizen)’은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공무와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기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며,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전략 인지 및 공동의 노력 조직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정의 지향적 시민(justice-oriented citizen)’은 부정의 문제에 주목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여, 사회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방법과 사회운동에 대하여 이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좋은 시민’이라는 이상 아래 개인적 책임, 참여, 사회정의 등 서로 다른 가치가 강조되는 것은 ‘시민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민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양립불가능성의 처리 방식에 따라(Van Deth, 2007), 혹은 개인과 다른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및 개인과 정부 기관 간의 관계의 구체화 방식에 따라(Denters et

al., 2007) 달라질 수 있다. Van Deth(2007)는 사회가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접근으로 구분하고, 각 접근에 따라 시민성에서 강조 되는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주의적 접근에서는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의 가치가 강조되며, 둘째, 사회민주주의적 접근에서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자유의 가치가 강조된다. 셋째, 공동체주의적 접근은 개인적 권리보다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동체를 위한 의무의 가치를 강조한다. 넷째, 공화주의적 접근에서는 정치적 공동체와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충성을 강조한다. 한편, Deters et al.(2007)은 사회에서 개인이 다른 사회구성원 및 정부 기관과 형성하는 관계 방식에 따라 시민성의 전통 엘리트주의적 모델과 자유주의적 모델, 참여적 모델을 구분하였다. 첫째, 전통 엘리트주의 모델의 핵심 가치는 법 준수(law-abidingness)로 이 모델에서 시민은 정치적 권력에 대하여 충성과 신뢰, 예의를 보이는 동시에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관심과 비판적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자유주의적 모델의 핵심 가치는 숙의(deliberation)이며, 이 모델에서 시민에게는 준법정신과 충성심과 뿐만 아니라 공적 담론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 등의 숙의적 가치와 태도가 요구된다. 셋째, 참여적 모델의 핵심 가치는 연대(solidarity)로 공동체주의적 접근은 참여적 모델에 포함될 수 있다. 전통 엘리트주의 모델과 자유주의적 모델이 시민 개인과 정부의 관계에 주목한다면, 참여적 모델에서 시민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관심사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와 참여, 관용의 가치가 강조된다.

Dalton(2008)은 이처럼 서로 다른 시민성의 개념에 얹혀있는 네 가지 원칙으로서 참여와 자율, 사회질서, 그리고 연대를 확인하였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좋은 시민성 규범의 범주로서 이해된다. 첫째, 참여(participation)의 규범은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 요소로, 민주적 절차가 성립하기 위해 공공 정책 숙의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선택은 필수이다. 둘째, 자율(autonomy)의 규범은 시민이 민주적 숙의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 좋은 시민은 정부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시민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질서(social order)의 규범은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수용, 법 준수 등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의미한다. 법으로 지켜지는 사회질서에 대한 보장 없이 건강한 정치적 토론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시민성의 기본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넷째, 연대(solidarity)의 규범은 정치적 공동체 내 타인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의미하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이끌 수 있다. Dalton(2008)에 따르면 참여, 자율, 사회질서, 연대의 규범이 민주적 정치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시민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대표될 수 있다.

2) 시민성의 조작적 정의와 구성요소

앞서 Dalton(2008)이 제시한 참여, 자율, 사회질서, 연대의 네 가지 규범은 민주적 정치 참여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이면서 시민성에 대한 여러 접근을 포괄하며, Westheimer와 Kahne(2004)이 좋은 시민의 유형으로 제시한 책임 이행적 시민, 참여적 시민, 정의 지향적 시민의 규범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좋은 시민과 좋은 시민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 틀로 사용될 수 있다. ‘시민성, 참여, 민주주의 조사(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 Survey, 이하 CID)’,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이하 ESS)’,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이하 ISSP)’과 같이 좋은 시민성의 규범을 측정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 각 연구에서 좋은 시민의 규범을 구성하는 특성들은 <표 II-1>과 같이 참여, 자율, 연대, 사회질서의 규범으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1 시민성 설문조사에서의 좋은 시민성 규범

조사	규범	좋은 시민의 특성
시민성, 참여, 민주주의 조사 2000~2002 (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	자율	• 자신의 의견 형성하기 • 자기 비판적이기
	연대	• 연대 보여주기 • 연대 보여주기
	사회질서	• 법 준수하기 • 세금 피하지 않기
유럽사회조사 2002 (European Social Survey)	참여	• 공직 선거에서 투표하기 • 자발적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자율	•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기
	연대	•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대 보여주기
	사회질서	• 항상 법과 규정 준수하기

조사	규범	좋은 시민의 특성
미국 시민성, 참여, 민주주의 조사 2005 (The U.S. 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 Survey)	참여	• 선거에서 투표하기 • 자발적 조직에서 활동하기 •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자율	•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 형성하기
	사회질서	• 요청 시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 항상 법과 규정 준수하기 • 목격 시 범죄 신고하기 • 전쟁 시 군 복무에 참여하기
	연대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2014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참여	• 항상 선거에서 투표하기 • 사회 및 정치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 더 비싸더라도 정치적/윤리적/환경적 이유로 상품 선택하기
	자율	• 정부의 행위 주시하기 •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추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연대	• 자신보다 더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 도와주기 • 자신보다 더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 도와주기
	사회질서	• 탈세 시도하지 않기 • 항상 법과 규정 준수하기

* 출처: 각 조사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시민성, 참여, 민주주의 조사 2000-2002〉: Denters et al.(2007)

〈유럽사회조사 2002〉: Villaobos et al.(2021)

〈미국 시민성, 참여, 민주주의 조사 2005〉: Dalton(2008)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2014〉 ISSP 2014 source questionnaire

(<https://www.gesis.org/en/issp/modules/issp-modules-by-topic/citizenship/2014>에서 2023년 6월 26일 인출)

하지만, 네 가지 규범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좋은 시민성의 측면으로 ‘애국’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Dynneson(1992)는 1987년 네 개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좋은 시민성에 관한 조사의 후속 연구로 1991년 텍사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좋은 시민에게 중요한 자질로 10개의 특성을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때 제시된 10개의 특성을 Dalton(2008)의 네 가지 규범 범주로 범주화하면 ‘지역사회 및 학교 문제 참여’는 참여의 규범으로, ‘시사 지식’과 ‘개념 및 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 능력’, ‘현명한 결정 능력’, ‘정부에 대한 지식’은 자율의 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연대의 규범으로, ‘도덕적·윤리적 행동’, ‘관리자 권위의 수용’, ‘책임의 수용’은 사회질서의 규범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때 ‘애국심’의 자질은 네 가지 규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좋은 시민성 규범의 추가를 요한다. 나라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애국심은 그 성격에 따라 맹목적 애국심과 건설적 애국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나라에 대한 비판적 충성심을 의미하는 건설적 애국심은 정치적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지닌다(Schatz, Staub & Lavine, 1999).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착, 충성이라는 점에서 권위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서 사회질서의 규범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질서의 규범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적 성격이 강하다면, 애국심은 국가적 정체성을 포함하여 개인이 소속된 국민·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시민성의 규범 집합에 애국의 규범을 포함하고, 이를 국가 및 사회의 지속과 건설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 이행적 시민의 유형과 연결 짓도록 한다. 이러한 애국의 규범은 국제교육성취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가 시행한 국제비교조사인 시민교육연구 1999(Civic Education Study, 이하 CIVED)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성인 시민의 행동을 묻는 15개 문항⁷⁾ 중 ‘애국적이며 국가에 충성하기’가 이에 해당한다(Torney-Purta, Lehmann, Oswald, & Schulz, 2001:80).

또한, 좋은 시민성의 규범으로 ‘평등’의 가치가 추가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CIVED의 전통을 이어 IEA에서 2009년부터 시행된 ICCS는 시민교육의 내용 영역이 시민사회와 시스템, 시민적 원칙, 시민적 참여, 시민적 정체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Shulz et al., 2016). 그중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는 시민적 원칙은 공평(equity), 자유(freedom),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법치(rule of law)의 가치로 제시되었다. 이 네 가지 가치를 Dalton(2008)이 제시한 시민성의 네 가지 규범과 비교해 보면 자유는 참여와 자율이라는 규범의 가치적 속성이라 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은 연대의 가치적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법치는 사회질서의 가치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공평의 가치는 ‘모든

7) 좋은 시민의 행동을 묻는 15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법 준수하기,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기, 인권 증진 활동에 참여하기,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기, 모든 선거에 투표하기, 인권을 침해하는 법 무시하기, 신문, 라디오, TV의 정치적 이슈 무시하기, 정당에 가입하기, 애국적이고 국가에 충성하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하기, 열심히 일하기, 국가의 역사 알기, 정부 대표에게 존중 표하기, 불공정한 법에 대항하는 평화적 항의에 참여하기

사람은 존엄과 권리의 측면에서 동등하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평등(equality)의 개념에서 파생되었다(Shulz et al., 2016:19). 즉, 성별과 인종, 민족 등과 같은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민주적 가치이다.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은 시민의 특성이라고 간주하는 연대의 규범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하지만 연대의 규범이 포괄하는 좋은 시민의 행동은 지원 및 원조의 성격이 더 강하여, 차이의 인정과 존중, 동등한 권리의 보장 및 대우의 성격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의 지향적 시민의 규범으로 연대와 함께 평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성 및 시민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여적 시민에게 필요한 민주시민성 역량에 관하여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시민성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태도, 성향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가치의 경우 사람들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Print(2020)에 따르면 민주시민성 역량의 가치 영역은 법치 수용, 공동선 및 공동체 연대에 대한 책임을 비롯하여 12개의 하위 요인⁸⁾으로 구성된다. 12개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정의와 평등 및 시민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신념', '성별 및 종교 차이를 포함한 차이 존중', '편견·인종주의·차별 거부', '인권 존중(평등·존엄성·자유) 수용', '차이에 대한 관용'은 평등의 규범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가치이다. 이처럼 평등의 규범은 민주주의 사회의 좋은 시민에게 기대되는 핵심 가치로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 자율, 연대, 사회질서의 규범에 평등과 애국의 규범을 추가하여 총 여섯 개의 가치 규범을 좋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간주하고, <표 II-2>와 같이 시민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8) 12개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다. 법의 지배 수용, 사회정의와 평등 및 시민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신념, 성별 및 종교 차이를 포함한 차이 존중, 편견·인종주의·차별 거부, 인권 존중(평등·존엄성·자유) 수용, 차이에 대한 관용,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실천에 대한 신념, 환경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 공동선과 공동체 연대에 대한 책임, 차이를 비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믿음, 적극적 시민으로서 관여를 소중히 하는 것, 개인·공동체·국가 및 세계적 정체성

표 II-2 본 연구의 시민성 개념과 구성요소

구분			설명
시민성의 개념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의 가치로 구성
좋은 시민의 유형 및 규범	참여적 시민	참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및 참여 행동
		자율	민주주의적 숙의를 위한 지식습득과 타인의 의견 존중
	정의 지향적 시민	연대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
		평등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 존중
	책임 이행적 시민	사회질서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
		애국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민주주의 사회의 좋은 시민은 참여적 성격, 정의 지향적 성격, 책임 이행적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한 개인이 세 가지 성격을 고루 지니거나 특정 성격이 두드러질 수도 있다. 먼저, 민주적 공동체의 참여가 강조되는 참여적 시민 유형의 핵심 가치는 참여와 자율로, 참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제로 참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율은 민주주의적 숙의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나의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동시에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의 핵심 가치는 연대와 평등이다. 연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의미하며, 평등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속한 체계의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책임 이행적 시민의 핵심 가치는 사회질서와 애국이다. 사회질서는 사회체계에 대한 수용과 신뢰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을 의미하며, 애국은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의미한다.

2. 정치참여의 개념

1) 정치참여 개념의 주요 정의

우리나라는 학령기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였다. 의사결정 참여, 정보 접근, 의사 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

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최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당 활동 등의 나이 제한을 낮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초·중등교육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 인권, 학생 자치, 학교 자치 관련 조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학생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는 이를 구체화하기에 앞서서 정치참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참여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 또한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Huntington과 Nelson(1976:3)은 정치참여를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간 시민의 활동”으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조직적 혹은 자연발생적, 지속적 혹은 간헐적, 평화적 혹은 폭력적, 합법 혹은 불법, 효과적 혹은 비효과적”일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참여 주체, 행동 조직 방식, 지속성, 폭력성, 합법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양측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민간 시민(private citizen)이란 직업으로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적 직업종사자(political professional)와 구분되는 정치적 참여자(political participant)를 의미한다. 정치참여에 활동(activity)은 포함되나 태도(attitude)는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 중에서도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활동만 포함된다. 단, 활동의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든 없든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안된 모든 활동은 정치참여에 해당하며, 행위자 자신이 고안한 활동을 통한 자율적 참여(autonomous participation)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고안된 활동을 통한 동원적 참여(mobilized participation) 또한 정치참여로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Verba et al.(1978)의 정치참여 개념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이들은 정치참여를 “정부 인사의 결정 및/또는 정부 인사의 행동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민간 시민의 합법적 활동”으로 정의했다(Verba et al.,1978:46). 이 개념에는 선거(electoral) 행동과 비선거(nonelectoral) 행동은 물론 정부 인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인사에 의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다만, “의식적(ceremonial)” 혹은 “지지적(support)”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활동 중에서도

체제 내 활동, 즉 “정규적(regular)”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구현되는 활동만을 정치참여로 간주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의거 투표와 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활동, 개별 접촉 등이 정치참여 행동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Verba et al.(1978)의 개념은 정치참여의 의미를 전통적인 선거에 국한해 왔던 과거의 연구와 비교해 분명 폭넓은 외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체제 내에서의 자발적이고 통상적인 참여행위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박찬욱, 2005).

Verba, Schlozman and Brady(1995)의 개념은 정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정치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거나 소정의 금전적 보상만 받는 의무적이지 않은 ‘자발적 활동’으로 정치참여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Verba et al.(1978)의 개념적 접근과 유사하다. Verba et al.(1995:38)에 따르면, 정치참여란 “공공 정책의 결정이나 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효과가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Verba et al.(1978)의 개념과 구분되는 지점은 정치적 행동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이 개념에 따라 정치참여로 포함되지 않는 행동은 뉴스의 정치적 사건을 지켜보거나, TV 공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친구들 사이의 정치적 토론이나 라디오 방송, 통화 등의 소통 등이다(Verba et al., 1995:39-40). 반면, 정치참여로 구분되는 행동은 투표, 캠페인 업무, 캠페인 기부, 공직 접촉, 시위, 비공식적 지역사회 업무, 지역 위원회 위원 활동, 정치적 조직 가입, 정치적 목적으로의 기부활동에 해당한다(Verba et al., 1995:48).

한편, Barnes와 Kasse 등의 연구(Barnes & Kasse, 1979:42)에서 제시된 정치참여 개념은 “정치 시스템의 다양한 수준에서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별 시민들에 의한 모든 자발적 활동”으로 정의되며, 관습적(conventional) 정치참여와 비관습적(unconventional) 정치참여 모두를 포함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개념 정의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는 신문 읽기부터 건물 점거까지 훨씬 다양한 수준의 행동이 정치참여로 포함된다. 이때 관습적 정치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정치 관련 신문 읽기, 친구들과 정치 관련 토론하기, 투표하도록 친구들 설득하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정치성 회의에 참석하기, 공무원 또는 정치인에게 연락하기, 후보자 캠페인에 참여하기다(Barnes & Kasse, 1979:541). 반면,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청원, 합법적 시위, 보이콧, 임대료 파업, 비공식 파업, 건물 점거, 교통 차단, 슬로건 페인팅, 기물 파손, 개인적 폭력을 포함한다

(Barnes & Kasse, 1979:544). 연구자들이 시위와 폭력과 같은 비관습적인 행동도 정치참여로 개념화하고자 한 것은 당시의 미국과 서유럽 사회에서의 정치를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관습적 행동을 포함한 정치참여 개념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Conge, 1988).

마지막으로, 정치참여에 관한 네 편의 연구를 검토하여 정치참여 개념을 정의한 Conge (1988:246)에 따르면 정치참여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정부 또는 지역사회의 일부 기능에 반대하거나 지지하고, 변경하거나 유지하려는 모든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위(혹은 비행위)”로 정의된다. 이때 정치참여의 12개 요소는 적극적 유형, 소극적 유형, 공격적 행동, 비공격적 행동, 구조적 대상, 비구조적 대상, 정부 목표, 비정부 목표, 동원적 행동, 자발적 행동, 의도적 결과, 비의도적 결과를 의미한다(Conge, 1988:245-246).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개념은 분석을 무디게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한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Conge는 정부 영역 이외의 행동과 수동적 유형을 제외하여, “국가 구조, 당국 및/또는 공공재 할당에 관한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개별 또는 집단행동”으로 정의하였다(Conge, 1988: 247). 이 개념의 특징은 말로 표현되는 행동과 글로 표현되는 행동,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 행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모든 수준의 참여 강도(intensity)가 가능하다는 점이다(Conge, 1988).

표 II-3 선행연구에서의 정치참여 개념

선행연구	정의
Huntington & Nelson (1976:3)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민간 시민의 활동. 개인적 혹은 집단적, 조직적 혹은 자연발생적, 지속적 혹은 간헐적, 평화적 혹은 폭력적, 합법 혹은 불법, 효과적 혹은 비효과적일 수 있음
Milbrath & Goel (1977:2)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하고자 하는 민간 시민의 행동
Verba, Nie & Kim (1978:46)	정부 인사의 결정 및/또는 정부 인사의 행동에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민간 시민의 합법적 활동
Barnes & Kasse (1979:42)	정치 시스템의 다양한 수준에서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별 시민들에 의한 모든 자발적 활동
Conge (1988:247)	국가 구조, 당국 및/또는 공공재 할당에 관한 결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개별 또는 집단행동
Verba, Schlozman & Brady (1995:38)	공공 정책의 결정이나 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효과가 있는 활동

이렇듯 정치참여의 개념은 그 수준과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몇 가지 준거에 따라 최협의 개념부터 최광의 개념까지 구분될 수 있다(이승중, 김혜정, 2018:58). 가장 좁은 개념의 정치참여는 정부에 대한 요구 및 반대 활동과 정치적 참여 활동으로 정의되는 반면, 가장 넓은 개념의 정치참여는 정부 영역 이외의 시민 활동과 의식적 차원의 활동, 공격적·폭력적 활동, 정부에 대한 지지와 동원된 활동까지 포함한다. 또한, 참여의 성격에 따라 정치참여의 개념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혜영(2020:17-19)은 정치참여 유형의 구분 기준으로 관습화, 제도화, 합법성, 급진성, 참여 강도를 제시하고, 각 기준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정치참여를 어떻게 유형화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치참여는 첫째, 정치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습적 참여’와 이외에 시민적 요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비관습적 참여’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둘째, 선거 과정과 관련한 정치체제 내 참여 방식으로서의 ‘제도적 참여’와 제도 밖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셋째, 참여 방식의 합법성 수준에 따라 ‘합법적 참여’와 ‘비합법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넷째, 급진성 수준에 따라 ‘보수적 참여’와 ‘진보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ilbrath와 Goel(1977)이 구분한 바와 같이 참여의 강도에 따라 ‘무관심 유형’(참여 영역에서 제외), ‘방관자 유형’(최소한 참여), ‘검투사 유형’(활동적 참여)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청소년 정치참여의 조작적 정의와 유형

이처럼 정치참여의 개념 정의에 따라 정치참여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와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앞 절의 논의를 이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청소년 정치참여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정치참여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영역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예컨대, 장근영 외(2018)의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민참여와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며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치 관련 주제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사회적 주제에 대해 논의하며, 사회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기대 의사(성인이 됐을 때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김영인(2007)의 연구는 청소년 참여를 “일반청소년들이 공적 영역의 공공문제나 인물 선택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 정의하고(김영인, 2007:104), 참여 유형을 정치참여와 사회 참여로 구분하였다. 이때, 정치참여는 국가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참여, 선거 참여, 집회와 시위와 같은 활동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 참여는 봉사활동, 시민사회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나 청소년 정치참여의 외연을 어떻게 구분 짓든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정치를 경험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정치참여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특히 자기 삶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평화로운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권순정 외 2022:28), 그리고 ‘시민 됨의 과정’(남미자, 강민진, 홍세영, 2020)을 의미한다.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를 탐구한 남미자와 장아름(2020:56)은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현존하는 시민(being citizen)’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과정이자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의 시민권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으로 선천적·후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의 시민권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 정치참여는 청소년이 시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자,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제적이고 교육적인 행위로 인식된다(남미자 외, 2020).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개념 정의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참여 행동의 유형 또한 달라진다. 예컨대, 옥일남(2017:59)은 청소년 정치참여를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태도 및 능력”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활동과 비제도적 활동을 포괄하여 청소년의 정책 제안을 위한 모임 조직 및 활동,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 교내·외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 위원회 및 의회 활동, 보이콧·집회 활동을 통한 입장 전달의 참여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김윤희와 남화성(2020)은 ‘정치와 법’ 교과서에 실린 정치참여의 네 가지 유형을 1) 투표 참여, 선거 운동 참여, 공직 후보 등의 선거, 2) 언론사 투고, 진정 및 청언, 정치토론회 참가 등의 개인 참여, 3) 집회, 시위, 서명운동, 정당이나 단체가입 등의 집단 참여, 4) SNS를 활용한 정보통신매체 활용 등으로 제시하였다. 가장 전통(전형)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라 할 수 있는 선거를 포함해 개인 및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 표현 활동 그리고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 활동까지도 정치참여로 간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등장하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유형은 더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태를 조사한 모상현 외(2021:178)의 연구에서 정치참여는 1) 친구, 부모님, 선생님, 온라인 유저 등과 정치 관련 대화에 참여, 2) 게시글 읽기, 의견 달기, 퍼 나르기, 온라인 청원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경험, 3) 모의 선거, 의회, 참여기구, 정치토론, 정치 관련 동아리, 학생(학급)자치회 등을 통한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토론 활동이나 모의 선거 경험과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동,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 등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교육활동도 정치참여로 보았는데 이는 학교가 단순히 정치참여 교육이 제공되는 공간으로 머물지 않고 청소년 정치참여가 구현되는 실천적 공간임을 시사한다.

표 II-4 모상현 외(2021)의 청소년 정치참여 유형

구분	내용 영역
정치 관련 대화	친구, 부모님, 선생님, 온라인 유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경험	게시글 읽기, 의견 달기, 퍼나르기, 온라인 청원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모의 선거, 의회, 참여기구, 정치토론, 정치 관련 동아리, 학생(학급)자치회
정치 관련 토론	학교 수업에서 정치 관련 토론
모의 선거 경험	학교 수업에서 모의 선거 경험
학교 내 학생 의견 수용 정도	학교 규칙 제·개정, 학교행사, 학생 의견 수렴 정도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	토론수업, 모의 선거, 민주시민교육, 리더십 교육, 정치기관 견학

* 출처: 모상현 외(2021:178-180)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렇게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청소년 정치참여로 바라보는 시각은 장근영 외(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장근영 외(2018)는 IEA가 주관하는 ICCS 2016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춘 인지적, 정서적·행동적 역량을 측정하였는데 정치참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학교(교실), 가정, 온라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 활동(정보 수집, 대화, 토론, 댓글 달고 공유하기, 단체 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밖에서의 정치참여

경험과 관련해서 부모와 시사 주제 토의, 친구들과 토론, 시사 뉴스 정보 수집, SNS에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이 있고, 학교 내 정치참여 활동의 경우 교실 내 정치적 토론 참여, 교내 의사결정 참여 등이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참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음,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 달기,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자기 SNS에 공유 등이 있으며, 정치·사회 단체가입 경험과 관련해서는 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 가입, 특정 이슈 활동 청소년 단체 가입 등이 있다. 또한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을 통해 학교의 학생 의견 수용 정도,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 제공에 관한 부분도 함께 조사된다. 이렇듯 ICCS 2016에서 조사되는 정치참여 활동은 다양한 공간과 상대, 참여 형식까지 아우르고 있어 여타 선행연구에 비해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특징을 보여준다.

표 II-5 ICCS 2016의 청소년 정치참여 유형

구분		내용 영역
방과 후 학교 밖에서의 정치참여		부모와 시사 주제 토의, 친구들과 토론, 시사 뉴스 정보 수집, SNS에 정치적 의사 표현 등
학교 안에서의 정치참여	교실	교실 내 정치적 토론 참여
	교내	학생 대표, 학생회 임원 선출 투표 참여, 학교 운영에 관한 안건 결의에 참여, 학생회 임원 후보 출마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치참여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음,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자기 SNS에 공유 등
정치·사회 단체가입 경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 가입, 특정 이슈 활동 청소년 단체 가입 등
교내 정치참여		학생 대표, 학생회 임원 선출 투표 참여, 학교 운영에 관한 안건 결의에 참여, 학생회 임원 후보 출마 등
학교 내 학생 의견 수용 정도		학교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 및 의견 반영 등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		토론 수업, 모의 선거, 민주시민교육, 리더십 교육, 정치기관 견학 등

* 출처: 장근영 외(2018)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함

이처럼 청소년 정치참여의 개념과 유형 역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일상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증진을 통해 이들의 시민성 함양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개념과 유형을 <표 II-6>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II-6 본 연구의 청소년 정치참여의 정의와 유형

구분	내용		
정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		
유형	오프라인	학교 안 활동	교실 및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학급 토론 참여, 학생회 임원 활동 등)
		학교 밖 활동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정치적 이슈에 관한 부모님과의 대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활동 등)
	온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이슈 관련 정보 수집,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이슈 관련 의견 게시 등)	

먼저, 본 연구에서 청소년 정치참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여 표출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 따라, 본 연구의 청소년 정치참여는 첫째, 정부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여러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정치참여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치참여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한정하여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정치참여를 정부 관련 활동으로 한정하면 청소년 맥락의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등 청소년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에 관한 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청소년 정치참여는 제도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투표와 같은 제도 내 활동의 경우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은 배제될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문제를 주제로 친구, 선생님, 부모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는 제도 밖 활동은 여러 연령층에 열려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치적 참여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 안팎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였다. 셋째, 청소년 정치참여는 실제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activity)과 행동(behavior), 행위(action)로 한정되며, 정치 관련 태도(attitude)와 성향(disposition)은 제외한다.

다음으로, 청소년 정치참여의 공간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를 포괄하고, 오프라인 정치참여는 다시 학교 안 활동과 학교 밖 활동으로 구분한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주로 청소년이 소속

된 공동체로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가정과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구분된다. 학교 안 정치참여는 학급에서의 토론 참여와 전교 학생회 임원 활동과 같이 교실과 교내 정치참여 활동을 포함한다. 학교 밖 정치참여는 학교 밖의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가정 내 부모와의 정치적 대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활동 등을 포함한다. 한편, 온라인 매체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정치참여는 현대 정치참여의 주요 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는 활동 등이 온라인 정치참여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3.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

1)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

시민성을 증진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치참여에 주목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도모하는 본 연구의 목표에는 청소년 정치참여와 시민성 함양 간의 긍정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시민성과 정치참여 간의 긍정적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시민성과 정치참여는 시민적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의 측면에서 상호관계를 맺는다. 즉, 역량(competence)의 측면에서 두 개념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때 역량이란 “지식, 기술, 이해, 가치, 태도, 욕구의 복잡한 조합”으로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인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Print, 2020:208). 청소년은 정치참여 과정과 경험 안에서 시민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참여는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시민교육으로 기능할 수 있다(김영인, 1999). 반대로 청소년의 높은 시민적 역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게 함으로써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다(Torney-Purta et al., 2001). 시민으로서 역할과 권리, 책임과 기회를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아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원칙인 평등과 자유, 공동체 의식, 법치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것, 시민참여의 방법과 기술을 갖추는 것,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사회구성원과 연결감을 가지는

것과 같이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는다는 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에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는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상호관계를 맺는다. 정치효능감이란 개인이 정치적 의사결정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Craig & Maggiotto, 1982), 시민적 역량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Print, 2020).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참여와 정적 관계를 형성하여(Finkel, 1985), 정치 참여 활동은 정치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한편, 높은 정치효능감은 더욱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는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 및 협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특징을 의미한다(Putnam, 2016). 청소년은 정치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및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속감과 공유된 정체성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증진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정치참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시민성 역량의 가치 및 태도 측면으로서(Print, 2020), 사회적 자본의 증대는 시민성 역량의 강화를 통해 정치참여에 기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시민성과 정치참여는 시민적 역량(지식, 기술, 가치, 태도)과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시민성의 발달은 더 많은 정치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참여의 증진은 시민성의 발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정치참여를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경험으로 간주하여(권순정 외 2022; 김영인, 2007), 어떠한 정치참여 활동 및 경험이 시민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지,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 기여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물론 연구에 따라 시민성은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관용 의식, 정치적 효능감 등 여러 민주적 가치 및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거나, 공동체 의식이나 정치참여 의사와 같이 특정한 시민성의 가치 및 태도를 통해 다루어져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두 개념 간의 정적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여러 민주적 태도 및 가치로 시민성을 정의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회 성격을 띠는 정치참여 단체의 경험은 청소년의 시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때 시민성은 정치적 효능감, 정치 신뢰, 관용 의식, 참여의식(김명정, 2009), 혹은 정치적 효능감, 정치 신뢰, 관용 의식, 참여의식, 준법의식(김영인, 2007)으로 정의되었다. 이용교, 이중섭(2010)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와 같은 정치적 활동이 일부 포함된 사회 참여 활동 또한 사회 참여의식과 사회적 신뢰감을 매개로 시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시민성은 시민적 특성 관련 문항(사람들은 누구나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함,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함, 정부는 모든 국민의 최소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함,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이 중요함, 사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도 괜찮음,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함)을 통해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측면에서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다하려는 실천적 의식으로서 민주적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이며(박가나, 2009), 공동체적 정체성, 공동선과 공동체 연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시민적 역량(Print, 2020)의 가치적 측면이다. 시민적 책임과 참여 사이의 높은 관련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연구마다 관심 참여 활동은 다르지만 사회 참여와 정치참여의 경계 구분이 모호해진 현실에서(Van Deth, 2020) 청소년의 참여 활동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가나(2009)는 사회 참여동아리, 국가 소속 청소년 참여 활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속 동아리, 자발적 청소년 동아리 등 청소년 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를 밝혔는데, 여기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김아영과 장여옥(2021)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소년의회 참여 경험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청소년의회의 참여 경험 정도와 만족도가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공동체 의식은 박가나(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연계 등의 요인 외에도 공익 추구적 태도, 사회적 참여의식이 추가되었다. 또한, 한은영과 김미강(2013)은 사회 참여 활동(봉사활동, 교류 활동, 환경 보존 활동)이 공동체의식(어려움에 처한 주변 친구에 대한 도움 의사, 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 의사,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한 기부 의사,

물자 절약·분리수거·재활용 등에 대한 참여 의사)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밝혔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공동체 의식과 참여 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 모두 청소년 참여 활동이 이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공통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정치참여를 비롯한 참여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참여 의사에 관한 연구의 경우, ICCS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적·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활동이 성인기의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정치참여 의사는 시민성의 정서·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역량으로서, 정치적 참여 행동의 가능성 및 의도를 의미한다(Print, 2020, Schulz et al., 2016). 정치적 행동에는 투표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항의와 서명운동과 같은 비형식적 행동이 포함된다. 또한, 성인과 달리 정치참여에 대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사가 정치참여 행동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예: 유혜영, 2014), 이는 행동 의도를 행동의 직접적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는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Ajzen, 1991). 이봉민(2014)은 청소년의 참여 경험이 정치참여 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길혜지, 박지민, 조효제(2020)는 일상 속 정치참여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시민성 관련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시민적 효능감을 매개한 간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때, 이봉민(2014)은 방과 후 정치·사회적 대화, 방과 후 미디어 정치 정보 접촉, 교외 단체 활동, 교내 참여 활동을 청소년 참여 경험이라고 정의하였고, 길혜지 외(2020)는 교내 학습경험(개방적 토론 풍토 인식, 사회문제 학습경험)과 교외 활동 참여(정치·사회적 지식 탐색 활동,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를 시민성 관련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유혜영(2014)의 경우, 사회 참여와 정치참여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을 매개로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고 그 결과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시민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정치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이들의 시민성 함양에 효과가 있음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아래 표 참조) 이는 결국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귀결된다.

표 II-7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의 실증적 관계

선행연구	종속변인	독립변인	결과
김명정(2009)	시민성 (민주적 태도)	청소년의회 참여 활동	민주적 태도 향상 (내적 정치효능감, 관용 의식, 참여의식)
김영인(2007)	시민성	청소년의회 참여 경험	시민성의 긍정적 영향(정치 신뢰 제외) 하위 요소 간 정적 관계(일부 영역 제외)
이용교, 이종섭 (2010)	시민성	사회참여 활동	사회 참여의식을 매개로 시민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 사회성 및 사회적 신뢰감을 매개로 시민성에 정적 영향
박가나(2009)	공동체 의식	참여 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 효과 (온라인 참여 활동 정도 제외)
한은영, 김미강 (2013)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 활동	직접 효과 및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통한 정적 영향
김아영, 장여옥 (2021)	공동체 의식	청소년의회 참여 경험	참여 정도 및 만족도의 정적 영향
길혜지, 박지민, 조효제(2020)	정치참여 의사	시민성 관련 활동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 (시민적 효능감 매개) 확인
유혜영(2014)	정치참여 의사	사회참여 활동	직접적 효과 및 간접적 효과 (공동체 의식 및 자아 효능감 매개) 확인
이봉민(2014)	정치참여 의사	참여 경험	정치참여 의사에 정적 영향

3) 청소년 시민성 및 정치참여 영향 요인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의 정적 관계 확인에 이어 본 절에서는 시민성 및 정치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측면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고려해야 할 측면은 시민적 역량과 시민교육이다. ICCS 문항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시민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민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내 학생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민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와 같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장근영, 박수역, 2011). 시민성 역량을 함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교육이며, 이때의 교육은 교과로서의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 환경에서의 다양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는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과 상황인지론(theory of situated cognition)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사회화 행위자(agent of socialization)’

의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하는 관점에 토대한다(Schulz et al., 2016).

학습자로서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다양한 유형의 교육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은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성의 함양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 여기서 시민교육이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적 원칙, 시민참여, 시민적 정체성의 내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교육을(Print, 2020; Schulz et al., 2016), 정치교육은 선거교육과 참정권 교육 등을 포함하여 특히 민주주의와 정치과정 등 정치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이지영, 김아미, 이윤주, 2022). 이러한 시민교육, 정치교육과 청소년 시민성 사이의 정적 관계는 실증된 바 있다. 예컨대, 의사결정 경험, 체험활동 등 학교 내 시민교육(이상옥, 손은령, 2020)과 정치 교과 과목 이수, 정치 관련 독서 등 정치교육(김명정, 2017)은 학생의 시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실질적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민주적 학교문화 또한 학생의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급에서의 정치적 사건 토론, 자기 의견 표명, 교사의 이슈 관련 다양한 관점 제시 등의 민주적 학급풍토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사와 정치적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김동진, 김재우, 2021),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역시 시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현경, 김신영, 2015). 또한, 학급이 자유롭고 개방적일수록(민희, 2022), 교사가 학생에게 수용적 태도를 지닐수록(박성준, 김주일, 2015), 학생은 더욱 높은 시민성과 정치효능감을 가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학교문화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사와 시민성을 향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교육은 정치참여 증진을 통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핵심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은 집합적 의사결정에 토대한 실천 중심의 기능학습(이윤주, 2015)과 학교 자치 문화의 개선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김명정, 2010)를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영향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이다.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실증적 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효능감은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길혜지 외, 2020; 유혜영 2014), 정치참여 및 정치참여 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 참여, 공식적 정치 활동 참여,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인 참여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봉민, 2013). 또한, 직접적인 오프라인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참여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TV, 신문, 포털을 이용한

정치참여(남인용, 허일수, 2012), 그리고 인터넷상의 사회정치 관련 서명운동 참여(모상현, 이창호, 2012)에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정치적 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은 사회적 자본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신뢰, 규범과 같이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과 협력을 촉진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Bourdieu, 1986; Putnam, 2016). 사회적 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지식 중심의 인지적 측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남화성, 2016). 또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성 제고 방안만큼 가정에서의 노력이 중요함은 김준홍(2012)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국내 정치적·사회적 이슈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하는지 등으로 측정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신뢰(제도적 신뢰 및 대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같은 가정 내 문화자본의 영향보다 더 컸다. 청소년의 시민성 제고를 위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결과다. 한편, 사회적 신뢰는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황미영(2021)의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는 청소년의 오프라인 정치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온라인 정치참여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최근 온라인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참여의 다양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개념, 그리고 두 개념 간 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시민성 개념의 경우, 좋은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시민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민성은 ‘좋은 시민의 정치적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의 가치로 구성된다. 좋은 시민의 유형은 참여적 시민, 정의 지향적 시민, 책임 이행적 시민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특정 가치 규범이 강조된다. 첫째, 참여적 시민에게는 참여와 자율의 규범이

강조되며, 이때 참여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참여 행동을 의미하고, 자율은 민주주의적 숙의를 위한 지식과 태도를 의미한다. 둘째, 정의 지향적 시민에게는 연대와 평등의 규범이 강조되며, 연대는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의미하고, 평등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 존중을 의미한다. 셋째, 책임 이행적 시민에게는 사회질서와 애국의 규범이 강조되며, 사회질서는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을 의미하고, 애국은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치참여의 개념은 주요 학자의 정의를 비교하고, 청소년 정치참여의 조작적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였다. 정치참여의 개념은 그 범위에 따라 최협의 개념부터 최광의 개념까지 서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관습화, 제도화, 합법성 등에 따라 참여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 유형에 따라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온라인 정치참여로 구분하며, 오프라인 정치참여는 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안 활동과 학교 밖 활동으로 구분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는 학급 토론 참여, 학생회 임원 활동 등 교실과 교내에서의 활동을 포함한다. 한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는 부모, 친구와의 정치적 대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활동 등 가정, 지역사회와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한다. 온라인 정치참여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정보 수집,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의견 게시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는 두 개념이 관계 맺는 세 가지 측면과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통해 검토하였다.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정적인 관계는 시민적 역량, 정치효능감,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회 참여 경험이나 사회참여 활동 등, 정치참여적 성격을 지니는 활동은 민주적 태도나 공동체 의식, 정치참여 의사로 대리되는 시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교육, 정치적 효능감,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주목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 — 제3장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의 현황과 한계

- 1.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근거
- 2.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
- 3. 청소년 정치참여와 각종
기구 및 의회
- 4.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에 관한
해외 사례
- 5. 시사점

3장 개요

연구 방법

- 우리나라와 해외의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을 법적, 교육적, 기구적 측면으로 나누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나라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의 특징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와 대조하며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에 있어 촉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기하였음

주요 내용

1.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근거

-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 관련 법령의 변화가 있었음.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 시기에 초·중·고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이 논의되어, 모의 선거, 18세 학생의 선거 운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등에 제한이 있었고, 이러한 영역에서는 청소년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을 들 수 있음. 이 중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개별 학교 학칙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도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 조항들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지방 수준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학생자치조례, 학교자치조례는 청소년 자치와 학교 자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도 개별 학교 학칙과 충돌할 수 있음
- (해외 사례) 독일의 경우 보수 성향 정당은 16세 이상, 진보 성향 정당은 투표권 연령보다 낮은 14세 이상에게 당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각각 14세 이상과 16세 이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규정하였으며, 보수당은 연령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선거권 연령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연령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핀란드와 스웨덴은 기탁금 제도가 없어 청소년들의 선거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임. 또한 선거권 연령은 해외 주요국(OECD국가)이 대부분 18세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참정권 교육 또는 선거 교육을 중심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교육적 중립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와 참정권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그러나 조례에서 참정권 교육의 대상과 주체를 18세 이상의 학생, 즉 학생 유권자로 규정하여, 학교 밖의 18세 이상 유권자는 참정권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음
- 학교 교육 측면에서는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교육은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초등학교에서는 일상생활 및 학교와 정치참여 관련 내용, 중학교에서는 정치 제도, 정치참여, 법, 선거에 대한 내용, 고등학교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음. 기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음
- 학교 밖에서는 선거 관련 교육, 입법 및 입안 관련 교육, 정당 중심의 정치교육이 정치참여 관련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사례) 독일은 정치·사회적 주제나 사안이 학교 교육에서 다루질 때의 기본 원칙, 즉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선거권

연령 변화 등 우리나라와 청소년 정치참여 상황 맥락이 가장 유사한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정치적 교양 교육(주권자 교육)을 교과에서 강화하도록 과목을 신설하여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음

정책시사점

- 공직선거법 개정 시 참고했던 OECD 국가들은 선거뿐 아니라 정당 활동과 관련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온전히 보장하고 있음. 또한 일부 국가 중 기탁금 제도가 없는 국가가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된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많은 청소년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정치참여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별 학교의 학칙 등의 충돌로 인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사회 전반에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의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학교와 같은 각 수준에 걸쳐 법·제도의 상충이 없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정권 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정권 교육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규정하는 등 변화가 있으나, 참정권 교육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 필요성과 시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교육은 대체로 토론, 워크숍, 의정 체험과 같이 체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지만, 일회성 교육이 많고, 교육 대상 측면에서 대부분 학생(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또는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이 청소년 참여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혁신 교육의 일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일환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 정치참여 그 자체보다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화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부터 지역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됨

이 장에서는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을 법적 측면, 교육적 측면, 기구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현황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법적 측면은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근거로, 중앙 수준(선거 관련 법령, 선거 이외 관련 법령)과 지방 수준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적 측면은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기구적 측면으로는 각종 청소년기구 및 의회를 제시하였다. 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같은 가장 상위의 포괄적 내용은 제외하고, 청소년 정치참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령으로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교육은 정치참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회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학교 밖 교육은 주제별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기구적 측면은 제시한 대로 청소년기구 및 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제시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지원의 개선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1. 청소년 정치참여의 법적 근거

1) 중앙 수준 선거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의 변화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 관련 법령의 변화가 있었다. 2019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제15조(선거권)에서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존 규정은 19세로, 1세가 낮아진 것이지만 처음으로 일부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절차와 내용을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교육감

9) 본 장을 집필한 사람: 박지숙(경일대학교)

선거권도 갖는다.

피선거권의 경우, 제16조(피선거권)에서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60조(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조건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기에는 초·중·고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이 논의되어 모의 선거, 18세 학생의 선거 운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등에 제한이 있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1. 28.). 현재 피선거권 일부와 선거 운동에 있어 청소년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나, 계속된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영역 중 정당 가입과 활동에 대한 내용은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월 정당법 일부개정에서 개정된 내용이다. 이전에는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자를 18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외국의 사례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18세 청소년이 출마할 경우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제23조 제1항).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관련 내용에 따라 2021년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을 갖는 자를 19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규정하여, 18세 청소년은 주민소환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연령 기준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18세 이상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을 갖지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까지는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당 가입은 가능하나 선거 운동이 불가하다.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주민소환투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포괄적으로 ‘선거 관련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권/피선거권, 선거 내용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이하여, 제한적인 의미에서 선거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

법	적용 범위	연령 기준	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8세 이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보유
		40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보유
		18세 이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장 피선거권 보유
		18세 미만	선거 운동 불가
정당법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에 필요한 조직 확보,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 보장	16세 이상	정당 발기인 및 당원 가능 (단 18세 미만이 입당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제출)
지방자치법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18세 이상	주민감사 청구권 보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 요건·절차 및 효력	19세 이상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주민(외국인 포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으로 검색(최종 검색일: 2023년 6월 26일)

2) 중앙 수준 청소년 관련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과 관련된 가장 기본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권리의 보장,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에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관련 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및 이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에 관해 규정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은 초·중등교육법이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는 학생의 자치활동이 권장·보호되

는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학생자치활동은 법적으로는 보장되나 학칙에 따라 보장 범위 및 내용이 제한되거나 달라지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과 개별 학교 학칙이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돌은 초·중등교육법과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서도 나타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의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항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 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2) 지방 수준: 학생인권조례, 학생자치조례, 학교자치조례

지방 수준의 청소년 정치참여 법·제도로 각종 조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자치조례, 학교자치조례 등으로, 주로 청소년 자치와 학교 자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 삶의 주된 장은 학교인 만큼 학교 운영, 수업(교육) 및 학교생활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즉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민주주의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남미자, 장아름, 2020).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는 민주주의라는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청소년(학생)의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 토대의 가장 기초가 된다(모상현 외, 2021).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2010년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광주광역시(2011년), 서울특별시(2012년), 전라북도(2013년), 충청남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2021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청소년(학생)의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분류, 정리하면 <표 III-2>와 같다.

유일하게 경기도가 선거권 행사, 정당 활동, 유권자 교육 등 선거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소년(학생)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집회, 양심·종교, 의사 표현 및 의견 제출, 학교

규정 제·개정,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III-2 학생인권조례 중 청소년(학생) 정치참여 관련 조항 및 주요 내용

조항 및 주요 내용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집회의 자유	제16조	제14조	제17조	제17조	제8조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15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	제7조	제15조
의사 표현 및 의견 제출(정규활동 외 교육 활동, 학부모의 경비 부담이 있는 활동, 정책 결정, 학교 운영 등)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17조 제20조	제18조 제21조	제6조 제16조 제19조
선거권 (선거권 행사, 정당 활동, 유권자 교육 등)	제19조의2	-	-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제18조	제15조	제19조	제19조	제20조	제18조
학생자치활동	제17조	제15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제17조
각종 위원회(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의회, 참여단 등)	제36조	제29조	제37조	제41조	제35조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해당 조례명으로 검색(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학생자치활동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2019년), 충청남도(2019년), 부산광역시(2020년), 경기도(2021년), 경상남도(2021년), 대전광역시(2021년), 세종특별자치시(2022년), 제주특별자치도(2023년)에 제정되어 있으며,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관이다.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과 조항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다.

모든 지역에서 학생 자치활동 지원의 목적, 정의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학생 자치활동 지원과 관련된 각종 사업 기획 및 추진, 자문 협의회(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역 조례마다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먼저 경기도의 경우 ‘학생자치활동지수’(학교민주주의 지수 활용 가능)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급 학교별로 학생자치활동지수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컨설팅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학생위원회의 일종인 ‘학생회 연합회’ 이외에도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I-3 학생자치활동지원조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서울	충남	부산	경기	경남	대전	세종	제주
목적, 정의 및 책무	○	○	○	○	○	○	○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사업추진	○	○	○	○	○	○	○	○
학생위원회	-	-	○	○	○	○	○	○
자문 협의회 또는 위원회	○	○	○	○	○	○	○	○
연수 및 교육	○	○	○	-	-	○	○	-
포상 및 표창	○	-	○	-	-	○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해당 조례명으로 검색(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마지막으로 학교 자치 조례는 경기도(2019년)와 강원도(2021년)에 제정되어 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 두 지역의 조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청소년(학생)과 관련해서는 학교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참여 보장(강원도와 경기도 모두 제3조)과 학생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조항(강원도와 경기도 모두 제4조)이 마련되어 있다.

2.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

1) 청소년 정치참여와 교육에 대한 논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교육 측면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선거 중심의 정치참여 측면에서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참정권 교육(선거 교육)과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이윤주, 2020).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적 중립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설규주, 정원규, 2020). 정치교육이 용어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중립성 측면에서도 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며,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남미자, 강민진, 홍세영, 2020), 정치참여와 관련된 교육 실시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교육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참정권 교육’에 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제정하였다. 이는 ‘18세 이상의 학생’(학생 유권자)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3년 5월 17일 상임위(교육위원회)를 통과¹⁰⁾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참정권 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표 Ⅲ-4 참정권 교육 관련 조례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정 시기	2020. 07. 01.	2020. 11. 05.	2021. 09. 30.
참정권 교육 정의	•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역량을 키워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교육	•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과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	•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가치·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
기본계획 수립	• ‘학교 참정권 교육 기본 계획’을 교육감이 수립	• ‘참정권 교육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	• ‘참정권 교육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
관련 협의회	• 참정권 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시교육청 중심으로 구성	•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 교육 활성화 협의회 구성 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 기능을 대신	•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 교육 활성화 협의회 구성 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 기능을 대신
참정권 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 • 선거기간, 선거일을 고려하여 시기, 대상, 내용 설정	•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 • 선거기간, 선거일을 고려하여 시기, 대상, 내용 설정	• 학교에서 연령에 맞는 참정권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선거기간, 선거일을 고려하여 시기, 대상, 내용 설정

10) 김정호(2023.05.17.). 김용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4897>에서 2023년 5월 20일 최종 검색.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정 시기	2020. 07. 01.	2020. 11. 05.	2021. 09. 30.
참정권 교육 실시 관련 지원	• 프로그램 개발(토론 교육, 미디어 교육, 선거 체험활동 등) • 교원 연수, 실태조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 프로그램 개발(토론 교육,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체험 활동 등) • 교원 연수, 실태조사	• 프로그램 개발(토론,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체험 활동 등) • 교원 연수, 실태조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교원의 중립	• 참정권 교육 실시 교원의 중립의무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해당 조례명으로 검색(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의 참정권 교육 조례를 분석하면 <표 III-4>와 같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모두 참정권 교육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협의회 설치, 참정권 교육 실시, 참정권 교육 실시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참정권 교육은 공통되게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관련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가 ‘학교 참정권 교육’이라고 명명한 것이 다른 지역 조례와 다른 점이다. 관련 협의회의 경우 다른 지역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참정권 교육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 반면, 광주광역시는 가능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참정권 교육 실시 교원의 중립의무를 조항에 포함하여, 이에 대해 조례상으로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다양한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 조례에서 참정권 교육의 대상과 교육 주체를 ‘18세 이상의 학생’(학생 유권자)과 ‘학교’로 규정하여, 학교 밖의 18세 이상 유권자는 참정권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학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

학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의 현황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치참여 교육’이라고 했을 때 관련 내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교과는 사회과로, 특히 참정권 교육으로만 한정해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치참여 관련

해서는 법 및 정치제도,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요구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 선행연구 및 법·조례 등을 참조하여 정치참여에 대한 주제를 사회 이슈, 미디어 이해, 비판적 사고로 구분하여, 관련된 교과와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1)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교육 내용

먼저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5>와 같다. 이는 공통 과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선택 과목(일반선택, 진로 선택)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다르며, ‘정치와 법’과 같은 선택 과목은 정치참여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루므로, 분류·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택 과목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 제도’, ‘정치와 민주화 역사’, ‘일상생활과 주민 참여 및 민주주의’ 등이 다루어지고, 많은 내용이 5~6학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정치 제도, 정치참여, 법, 선거와 같이 비교적 기초적이지만 어려운 내용보다는 같은 영역이라도 이를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쉽게 다루거나, 각종 사회 이슈를 다루며 이를 (정치)참여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자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에서는 사회 이슈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비교적 정치 제도, 정치참여, 법, 선거 등, 정치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고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단 초등학교급에서와 달리 ‘일상생활’과 연계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제외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정치제도, 정치참여, 법, 선거와 같이 정치참여와 관련된 기초·기본적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매체 활용 등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은 다루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교과목에서 다루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표 Ⅲ-5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참여 관련 내용 및 단원(공통 과정 기준)

범주	주요 내용	초(사회)		중	고
		3~4	5~6		
정치 제도	정치의 의미	-		9사(일사)03-01	-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제도	-	6사05-05	9사(일사)03-02 9사(일사)03-03	-
	정치와 민주화 역사	-	6사05-01 6사05-02	9역12-03	10한사04-04 10한사04-06
	정치과정과 정당	-	-	9사(일사)04-01	-
정치 참여	지방자치	-	-	9사(일사)04-03	-
	일상생활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	4사03-05 4사03-06	6사05-03 6사05-04	-	-
법	법의 의미, 역할, 준수	-	6사02-05 6사02-06	9사(일사)05-01	-
	헌법	-	6사02-03 6사02-04	-	10통사04-02
	일상생활과 법(헌법 외)	-	-	9사(일사)05-02	-
선거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	-	-	9역05-02	-
	대의민주주의 (선거의 의미·기능·원칙·제도)	-	-	9사(일사)04-02	-
사회 이슈	지속가능한 환경	-	6사08-05	9사(지리)06-01 9사(지리)10-01 9사(지리)10-03	10통사-02-03
	매체 활용 등 미디어 리터러시	-	-	-	-
	국제 정치와 공존 (국제정치, 세계시민, 평화 등)	-	6사08-03 6사08-04 6사08-06	9사(지리)12-03 9사(일사)11-01 9사(일사)11-02 9사(일사)11-03 9역05-03	10통사08-01 10통사08-02 10통사08-03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 (인구감소, 정보화, 세계화 등)	4사04-05 4사04-06	6사06-04	9사(지리)07-03 9사(지리)08-04 9사(일사)12-02 9사(일사)12-03 9사(일사)01-03	10통사03-02 10통사07-04 10통사09-01 10통사09-02 10통사09-03
	인권(인권 전반, 노동권, 사회계층, 평등·불평등 등)	-	6사02-01 6사02-02	9사(일사)06-01 9사(일사)06-02 9사(일사)06-03	10통사04-01 10통사04-03 10통사06-03

* 출처: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 주: 1) 하나의 단원이 여러 내용과 연계된 경우도 많으나, 주요 내용 및 성취 요소에서 최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같은 분류 기준 및 방식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다(〈표 III-6〉 참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전체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되었고, 이것이 다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공통 과목(한국사 1·2, 통합사회 1·2)만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정치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은 ‘정치’, ‘법과 사회’, ‘국제관계의 이해’, ‘사회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을 들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과에서도 매체 활용 등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사회 ‘6사08-03’ 단원은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 올바르게 이용하는 태도에 대해 다룬다. 중학교 일반사회 ‘9사(일사)02-02’ 단원은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미디어들을 탐색하고,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정치참여 관련 단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일상생활(학교)과 정치참여가 연계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치제도, 정치참여, 법, 선거에 관한 내용은 중학교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민주화 역사)은 고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정치참여 관련 내용 및 단원(공통 과정 기준)

범주	주요 내용	초(사회)		중	고
		3~4	5~6		
정치 제도	정치의 의미	-	-	9사(일사)03-01	-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제도	-	-	9사(일사)03-02 9역05-01 9역07-02	-
	정치와 민주화 역사	-	-	9역13-03	10한사2-02-03 10한사2-03-01
	정치과정과 정당	-	-	9사(일사)04-02	-
정치 참여	지방자치	-	-	9사(일사)04-03	-
	일상생활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	4사08-01 4사08-02 4사09-01	-	-	-

범주	주요 내용	초(사회)		중	고
		3~4	5~6		
법	법의 의미, 역할, 준수	-	6사03-01	9사(일사)05-01	-
	헌법	-	-	-	-
	일상생활과 법(헌법 외)	-	-	9사(일사)05-02	-
선거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	-	-	-	-
	대의민주주의 (선거의 의미·기능·원칙·제도)	-	6사08-01	9사(일사)03-03 9사(일사)04-01	-
사회 이슈	지속가능한 환경	-	-	9사(지리)12-02	10통사1-03-03
	매체 활용 등 미디어 리터러시	-	6사08-03	9사(일사)02-02	-
	국제 정치와 공존 (국제 정치, 세계시민, 평화 등)	-	6사12-02	9사(지리)11-03 9사(일사)11-02	10한사2-03-03 10통사2-04-02 10통사2-04-03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 (인구감소, 정보화, 세계화 등)	4사03-01 4사03-02	-	8사(지리)02-03 9사(일사)12-01 9사(일사)12-02 9사(일사)12-03	10통사1-04-04 10통사1-05-03 10통사2-05-01 10통사2-05-02 10통사2-05-03
	인권 (인권 전반, 노동권, 사회계층, 평등·불평등 등)	-	6사03-02	9사(지리)09-04 9사(일사)01-03 9사(일사)06-01 9사(일사)06-02 9사(일사)06-03	10통사2-01-01 10통사2-01-02 10통사2-01-03 10통사2-02-03

* 출처: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 주: 1) 하나의 단원이 여러 내용과 연계된 경우도 많으나, 주요 내용 및 성취 요소에서 최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2) 사회과 이외 교육과정에 제시된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교육 내용

사회과 이외의 교육과정에서도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참여 관련 교육이 이루어진다. 앞서 참정권 교육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다양한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교육을 정리하면 <표 III-7>과 같다. 2015년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정치참여 관련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단 2015년에는 ‘봉사활동’이 별도의 영역이었으나, 2022년에는 동아리 활동의 일부에 봉사활동이 포함된 것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되었다.

표 Ⅲ-7 2015년 및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치참여 관련 내용

범주(영역)	2015년 개정 교육과정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자율활동	•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자치·적응 활동 • 협의 활동(학습회의, 전교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 •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예절, 준법, 질서 등)	•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환경·생태 의식 함양 활동, 생명 존중 의식 함양 활동, 민주시민 의식 함양 활동 • 공동체 자치활동(학급, 학년, 학교), 지역사회 연계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 신체를 단련하고 사회구성원 및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함양 • 국가 공인 청소년 단체 활동 등 • 동아리 활동	• 학교 안팎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포용성과 시민성을 함양 •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활동	•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 함양 • 공공질서, 환경 보전, 각종 편견 극복,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

* 출처: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42] 및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40]

3) 학교가 아닌 주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

(1) 선거 관련 교육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된 학교 밖 교육으로 먼저 선거 관련 교육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¹¹⁾에서는 ‘미래유권자’를 주제로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교사용으로도 제작되어, 학교 교사뿐 아니라 관련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 연수’의 하나인 ‘청소년

11) 해당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에서 발췌, 작성함(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7일)

선거체험과정(미래유권자과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새내기 유권자 연수, 민주주의 선거교실(초등학생, 중학생)로 구분된다. 또한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참여연수’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학생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지도자 열린캠프’(2022년 현재 제17기 운영)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된 선거 관련 교육이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라는 학교 밖 청소년용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교재가 개발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교육 주요 내용

교육명	교육 내용	대상	기간 및 방법
민주주의 선거교실 (초등학생)	•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일을 할까요(필수) •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필수) • 게임으로 배우는 민주주의(선택) • 오즈 나라의 선거 이야기(선택)	초등 4~6학년 (1회당 30명)	• 연중(1회 교육) • 현장 출강 • 무료
민주주의 선거교실 (중학생)	•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일을 할까요(필수) •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필수) • 토론! 서로의 의견 존중해요(선택) • 매니페스토와 약속(선택) • 선거! 함께 해봐요(선택) • 선거를 만드는 사람들(선택) • 연극으로 배우는 민주주의(선택) • 상상하고 실천해요, 공정선거(선택) •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라(선택)	중학생	• 연중(1회 교육) • 현장 출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 무료
미래지도자 열린캠프	• 선거제도 특강 • 선거 보드게임 체험 • 모둠별 연수과제 수행 • 미래지도자 통합모임(선배와의 대화)	고등학생 (학교당 2명 이내,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회장 등 50명)	• 연 1회 • 1박 2일 합숙 교육 • 여비 제외 교육비 무료
새내기 유권자 연수	• 선거제도, 선거 운동 방법, 투표 절차 등 선거에 대한 기본 이해 • 새내기 유권자로서 주권 행사에 대한 가치관(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고등학교 3학년 (1회당 200명)	• 연중(1회 교육) • 현장 출강 • 무료
대학생 등 정치참여 연수	• 민주주의와 주권의 가치 • 우리나라의 선거·정치제도 • 선거·정치 이슈 토론 및 현장 견학·체험 •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선거 여론조사 리터러시	대학생, 청년 유권자 (1회당 30명)	• 연중(1~2일 집합교육) • 현장 출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 무료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 (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7일)

(2) 입법, 입안 관련 교육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입법 또는 입안 관련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는 ‘의회체험활동’ 또는 ‘의회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의회체험활동 또는 의회교실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당 지역 의회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다. 주 대상은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교 재학 여부는 참여 대상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¹²⁾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또는 의회교실은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¹³⁾을 의미한다. 대부분 일회성(행사성)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교실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⁴⁾ 이는 청소년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 등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활동이다. 특히 교실 밖에서 직접 의사 진행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비회기 동안 운영되는 1일 과정으로서 교육청을 통하여 학교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총 2~30회 정도 운영된다. 청소년의회 교실에서 다뤄진 주제는 ‘아이돌 그룹 병역 특례’, ‘범죄를 저지른 10대와 성인의 동일 처벌’, ‘학교급식 채식의 날 운영’, ‘대한민국 탄소세’ 등으로, 2023년 5월 현재 총 247회의 청소년의회 교실이 개최되었다.

(3) 정치교육

정치교육은 주로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정당에서 대학생(위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출발점이 되어 운영되는 정치교육으로 사단법인 청정에서 ‘청년정치학교’를 들 수 있다. 이는 2017년 7월, 당시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산하 청년정치학교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20년 1월 해당 조직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독립하여, 현재는 특정 정당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형태¹⁵⁾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2)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운영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음(예: 가평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창군, 부안군, 광주광역시 서구 등). 단 이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상이 한정되기도 함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로 검색 (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14)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에서 발췌(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15) 후원 기관은 존재함

부터는 ‘청년정치대학원’ 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⁶⁾

기존 정치교육이 단기간 또는 특정 정당 당원이라는 일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청년정치학교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민정치교육을 목표로 한다. 청년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약 50명 정도이다. 2023년 5월 현재 제7기 청년정치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6개월 동안 주 1회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주제는 한국정치사, 시민정치, 정치철학, 헌법, 안보, 국제정치, 우주개발,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하며, 졸업생과의 대담, 수강생 간 토론, 모의국정감사 등 실제 정책 제안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도 이루어진다.¹⁷⁾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노무현리더십학교’도 들 수 있다. 교육명에는 ‘리더십’이 들어가 있지만,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소통과 관계, 인간의 존엄과 헌법, 정당·청년·의회정치, 시민성, 지방자치, 기후위기 등 민주사회, 시민성, 정치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은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만들고 이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의 특징은 국정 운영을 경험한 관계자가 강사진으로, 토론·워크숍·팀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등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년 과정과 고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년 과정은 45명 내외로 20~39세의 청년, 고위 과정은 30명 내외로 40세 이상을 선발한다. 즉 후기 청소년은 청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 과정만 무료로 운영된다.¹⁸⁾

3. 청소년 정치참여와 각종 기구 및 의회

1) 청소년 참여기구¹⁹⁾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참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특별회의는 UN 등 국제기구의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2003년 청소년기본법(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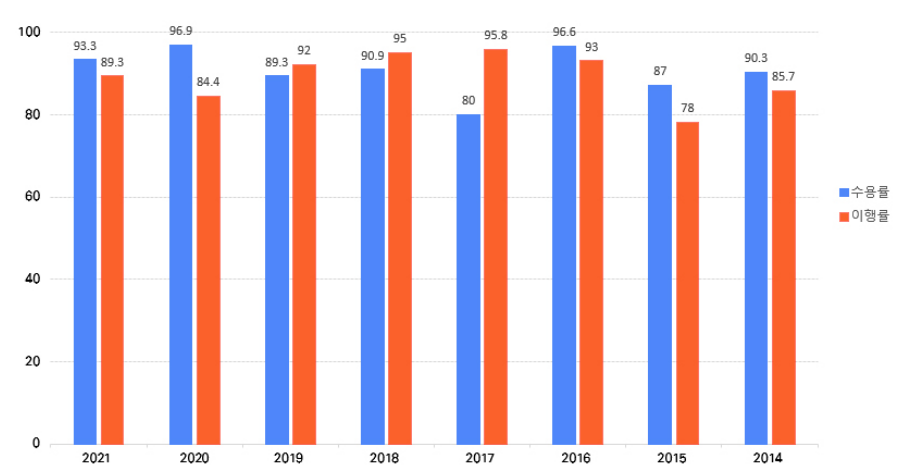
16)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단법인 청정 홈페이지(<https://thechungjung.org/>)에서 발췌(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17) 여기까지의 내용은 청년정치학교 블로그(blog.naver.com/youth_politics)에서 발췌(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18)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단법인 노무현재단 홈페이지(<https://www.knowhow.or.kr/>)에서 발췌(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5일)

19)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https://www.youth.go.kr>)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작성함(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기구이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2004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청소년 대표)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 부서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은 시범사업 시기를 제외한 200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45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책과제의 수용률과 이행률을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그림 III-1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 수용률 및 이행률(2014~2021)

둘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운영되는 기구이다. 시·도 참여위원회와(광역) 시·군·구 참여위원회(기초)로 구성되어 보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공개 모집하여 20명 내외로 선발하여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 지역 청소년 참여 활동을 위한 조사, 워크숍·캠페인 등 지역 청소년행사 주관 및 참여, 청소년 관련 연합 워크숍 등’ 참여 활동을 한다. 시·도 참여위원회는 연 8회 이상, 시·군·구 참여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 개최되며, 긴급 안전 발생 시에는 임시회의도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근거하

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평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1999년부터 일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던 것이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되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2월 현재 전국에 총 331개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²⁰⁾

2) 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주도로 운영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의회는 공통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지방 의회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²¹⁾로,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예산 편성 의견 제출²²⁾ 등을 수행한다. 청소년의회가 구성, 추진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혁신교육정책으로 서울시가 여기에 해당한다(신민철, 이정용, 2020). 서울형 혁신교육정책의 필수과제 중 하나가 청소년 자치활동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참여하는 다양한 자치활동 중 하나로 청소년의회가 도입되었다. 둘째는 자치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의미한다. 아동친화도시는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는데, 그중 하나가 ‘의견을 표현할 권리’로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 공공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등의 명칭으로 청소년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표 III-8>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20)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http://youthnet.or.kr/>)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작성함 (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2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검색 (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2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검색 (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이와 더불어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의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들 수 있다.²³⁾ 회원 청소년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청소년 의원, 청소년 언론사(대한민국청소년의회 NEWS) 운영, 청소년 진로 체험, 공익 캠페인 및 자원봉사 활동, 청소년 대상 각종 교육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의원, 기자단, 비평단 및 청소년 활동을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와 달리,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은 실제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라는 단체의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위치 지을 수 있다.

청소년 의원²⁴⁾은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의정활동(사업기획안, 입법청원안 등 작성), 공익 캠페인 참여,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청소년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모집된다. 이후 온라인 폼으로 신청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이후 온라인 메신저 또는 전화 면담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청소년 의원의 활동은 온·오프라인 활동이 병행된다.

청소년 의원은 의장단·수석대변인과 정치법제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통합위원회(문화, 경제, 복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 의원의 수는 200인 내외로, 임기는 12개월이다.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매년 각각 1회씩 8월과 1월(방학 기간) 개최된다.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정책 제안 내용, 입법청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2023년 현재 제14대 청소년 의원이 구성되어 있다.

23) 모상현 외(2021)의 연구에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연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그 일부를 제시하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3년 ‘청소년의회’로 시작되었고, 당시 정의교육시민연합, 전국사회교사모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전국 온라인 선거를 통해 출범하였음. 전국 온라인 선거라는 직접 선거 방식을 통해 의원이 선출되어 구성부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였으나, 국회 조직과 활동 방식을 모방하는 데에서 나타난 형식주의 및 주관 단체 변경으로 인한 지원 시스템의 불안정 등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남. 이에 2010년 이후부터는 주관단체와 결별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독립 운영되고 있음(모상현 외, 2021:49-50).

24)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https://www.youthassembly.or.kr/main.php>)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작성함 (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표 III-9 전국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강원	삼척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8.07.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체험 지원 조례	2023.04.27.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10.
경기	가평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03.16.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04.21.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01.13.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3.16.
	동두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04.14.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11.10.
	수원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7.07.17.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03.06.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1.11.11.
	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4.17.
	여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03.29.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0.07.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8.09.21.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2017.09.29.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2.31.
경북	상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0.04.23.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1.03.12.
경남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17.
	양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12.19.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2.30.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16.05.0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12.27.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02.01.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5.07.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0.01.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11.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6.11.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02.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2023.03.09.

지역	조례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6.09.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1.1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3.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9.25.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04.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7.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11.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2.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10.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2023.03.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12.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3.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3.1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04.17.
인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7.05.
전남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08.16.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0.07.10.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1.03.15.
전북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2.15.
	김제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4.14.
	서천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20.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08.0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31.
충남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7.01.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3.05.10.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06.30.
충북	보은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3.05.04.
	충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09.23.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12.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청소년의회'로 검색(최종 검색일: 2023년 5월 16일)

4.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에 관한 해외 사례

1) 교육적 측면: 정치·사회적 쟁점이 되는 교육에 대한 원칙과 학교 교과에서의 정치적 교양 교육

(1) 독일

교육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정치참여 및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에 대해 소극적 또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특히 정치·사회적인 주제나 사안이 학교 교육에서 다뤄지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마련,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8개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될 만큼 주목받고 있다(김상무, 2019).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영미권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영역(독일에서는 정치교육이라고 함)에서 도출된 것으로, 정치교육 교수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고자 보이텔스바흐라는 도시에서 개최된 1976년 학술 행사에서 도출되었다. 이때 논의된 내용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 직원인 벨링(Hans-Georg Wehling)이 기록하여 ‘보이텔스바흐식 합의, 전문가토론회의 후기’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논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이다(김상무, 2019). 즉 ‘합의’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연구자, 교육자)이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된 ‘최소 합의’라고 볼 수 있다(조상식, 2019).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의 최소조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김상무, 2019; 조상식, 2019). 첫째, 강제성의 금지(또는 강압의 금지) 원칙으로,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강압적으로 주입하여 학생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 원칙으로, 정치나 학문에서 논쟁이 등장하는 것처럼 수업 상황에서도 그러한 논쟁적 상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의 이해관계 인식과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육성) 원칙으로,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에 적합하게 현재의 정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단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원칙은 정치교육이 가르쳐야 하는 주제나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교육 전반의

가장 기본 명제라고 볼 수 있는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 분야뿐 아니라 독일 학교 교육의 전 분야에서 교육의 기본 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주는 학교법 제48조제5항에서 정치적 목적의 홍보 등 일방적 정치적 영향을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교내에서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교내에서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임유진, 김명정, 2022).

(2) 일본

교육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사회적 맥락이 유사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2015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연령을 만 20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개정하였다. 즉 선거중심의 청소년 정치참여 동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주권자교육’(主権者教育) 또는 ‘정치적 교양의 교육’(政治的教養の教育)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정치참여를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이하, 정치적 교양 교육으로 제시).

선거연령 조정 후 총무성과 문부과학성은 정치참여 및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공통 교재(부교재)인 ‘우리가 열어야 할 일본의 미래’(私たちが拓く日本の未来)를 제작, 전국 국·공·사립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370만 부를 배포하였다(文部科学省, 2018). 이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선거 및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해설편’, 제2부는 토론 방법, 모의선거법, 모의의회 실시법 등 실제 정치나 선거를 참여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실천편’, 제3부는 정치참여에 대한 참고 자료(Q&A, 교육기준법을 통해 보는 학교에서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게재한 ‘참고편’이다. 즉 초기에는 선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공통 교재를 제작,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8년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이 고시되어 2022년도부터 시행되면서 학교 교육에서의 정치적 교양 교육에 변화가 있었다.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정치적 교양과 관련된 것은 ‘공민과’(公民科)로, 이는 다시 공공(公共), 윤리(倫理), 정치·경제(政治・經濟)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공’ 과목과 ‘정치·경제’ 과목이 정치적 교양과 관련이 깊다.

일본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심화와 함께, 선거권 연령의 하향과 2022년도부터 성인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것에 따라 고교생에게 정치나 사회는 더욱 가까운 존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참여하는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계화되는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공민(公民)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에서 ‘공공’(公共) 과목이 신설되었고,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연도와 다음 연도의 2년 중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준 단위 수는 2단위로 구성되었다. 한편 ‘정치·경제’는 과목명으로는 유지는 교과목이나 ‘공공’ 과목의 신설에 따라 이전보다 목표와 내용이 전문화되었다. ‘공공’ 과목 필수 이수를 통해 함양한 개념을 활용하고, 현실사회의 복잡한 과제에 대해 협동하여 탐구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文部科學省, 2023a). 신설 및 변경된 ‘공공’ 과목과 ‘정치·경제’ 과목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일본 공민과(公民法) 교과목 중 정치적 교양 관련 과목의 주요 내용

교과목	내용	
	대항목	주요 내용
공공	• 공공의 문	•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 우리, 공공의 공간에서의 인간의 존재 및 삶의 방식, 공공의 공간에서의 기본 원칙
	• 자립한 주체로서 보다 나은 사회 형성에 참가	• 법률에 관한 내용(법과 규범의 의의와 역할, 다양한 계약,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사범 참가의 의의) • 정치에 관한 사항(정치참가와 공정한 여론 형성, 지방자치, 국가 주권과 영토, 국가의 안전보장과 방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 경제에 관한 사항(직업 선택, 고용과 노동문제, 재정 및 조세의 역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시장경제의 기능과 한계, 금융, 국제사회에서의 빈곤과 격차 문제)
	•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주체 되기	• 지속가능한 지역, 국가, 사회, 국가 사회 만들기를 위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탐구
정치·경제	• 현대 일본의 정치·경제적 과제	• 현대일본의 정치·경제(정치와 법의 의의와 기능, 기본적인 권의 보장과 법의 지배,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의회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국민주권, 천황의 지위와 역할, 국회·내각·법원 등 정치기구, 경제활동과 시장, 경제주체와 경제순환,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물가와 경기변동, 재정과 조세, 금융 동향) • 현대일본의 정치·경제적 과제의 탐구(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안정화, 지역사회의 자립과 정부, 다양한 노동과 삶의 방식이 가능한 사회, 산업구조의 변화와 창업, 재정 건전화, 지속가능한 농업구조의 실현, 방재와 안전)

교과목	내용	
	대항목	주요 내용
	세계화 국제사회의 과제	- 현대의 국제정치·경제(국제사회의 변천, 국제법의 의의, 국제기구의 역할, 안전보장·방위·국제공헌, 무역, 국제협력과 국제경제기구) - 세계화 국제사회 과제의 탐구(세계화에 따른 생활과 사회의 변화, 지구환경과 자원 및 에너지 문제, 국제 경제 격차와 국제협력, 혁신과 성장시장, 지속가능한 국제사회만들기)

* 출처: 文部科學省(2023a).

한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도 개정되어, 초·중학생에게도 주권자로서 필요한 자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목적이 강화되었다. 이는 주로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며, 주요 내용은 1) 기초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와 조세의 역할 이해(초등학교 사회과), 2)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여하기(초등학교 사회과), 3) 민주정치의 추진과 공정한 여론 형성 및 국민의 정치참여(중학교 사회과), 4) 국토 및 전후(戰後) 일본의 전개(초·중학교 사회과)이다. 또한 ‘주권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아이들이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主権者として求められる力を子供たちに育むために)라는 공통 보조교재가 개발, 교사에게 배포되었다. 이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권자 교육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1부(이론편), 초·중학교 사회과 및 기타 교과에서의 교과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2부(실전편)의 구성이다(文部科學省, 2023b).

2) 청소년 기구 영역: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 참여제도

(1) 영국

영국의 청소년의회²⁵⁾는 국가 단위의 청소년의회와 각 주 정부 단위의 청소년의회(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국가 단위의 청소년 의회(UK Youth Parliament)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청소년의회는 1998년 보수당 의원인 앤드류 로(Andrew Rowe)가 최초로 제안한 이후, 2000년 교육부의 승인을 통해 설립되었고, 2001년부터 청소년 의원이 선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영국청소년위원회(BYC: British Youth Council)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전역의 11~18세 청소년들

25) 영국 청소년의회 내용은 영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https://www.byc.org.uk/uk/uk-youth-parliamen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그 외의 자료는 본문에 별도로 인용 표시하였음.

이 2년마다 청소년의회 구성원으로 선출되어 총구성원은 379명이다(모상현 외, 2021).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임기 동안 의사결정권자, 의원 및 지역 청년 단체와 함께 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큰 관심사(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연 1회 진행되는 정기회의(annual conference)에서 논의되어 확정된 이슈들은 청소년 회담(Make your Mark)의 안건으로 투표에 부쳐진다. 청소년 회담은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2년 청소년 회담에는 434,492명의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율은 7.06%로 나타났다. 청소년 회담 투표수, 투표율,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보인 이슈를 정리하면 <표 III-11>과 같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투표수와 투표율이 적어졌고, 투표에 참여하는 11~18세 인구가 변화가 있었으며, 2022년부터 투표에 대해 새로운 산출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앞으로는 2022년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Youth Parliament, 2022).

또한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같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히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듣고, 각종 캠페인을 조직하고, 미디어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행정 각 부서의 장관, 의원, 지역 공무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표 III-11 영국 청소년 회담의 연도별 투표수, 투표율, 가장 많은 득표 안건

연도	투표수	투표율	최다 득표 안건
2011	65,532	1.10%	교통
2012	253,637	4.31%	삶을 위한 교육과정(curriculum for life)
2013	478,386	8.12%	16세 선거권, 삶을 위한 교육과정(curriculum for life)
2014	846,488	14.88%	정신 건강과 최저 생활 임금
2015	969,992	16.46%	정신 건강, 인종 및 종교 차별 해결
2016	978,216	16.60%	16세 선거권, 삶을 위한 교육과정(curriculum for life)
2017	954,766	16.20%	16세 선거권, 삶을 위한 교육과정(curriculum for life)
2018	1,106,788	18.80%	16세 선거권과 흉기 범죄(knife crime)
2019	838,288	13.93%	기후변화와 흉기 범죄(knife crime)
2020	185,677	3.13%	대학 학비 면제(free university), 정신 건강과 기후 위기, 플라스틱 오염
2022	434,492	7.06%	건강과 웰빙

* 출처: Youth Parliament(2022). <https://byc2016.wpenginepowered.com/wp-content/uploads/2022/03/UK-Youth-Parliament-Make-Your-Mark-Results-Report-2022.pdf>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2) 핀란드

핀란드는 이미 1906년에 근대적 형태의 민주주의와 보편적 참정권을 실현하였다. 특히 유럽 최초로 성별과 관계 없이 만 24세 이상 성인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이후 1944년 21세로 선거권 연령 기준이 낮아졌고, 1968년에 다시 만 20세로 낮아진 뒤, 1972년부터 만 18세로 하향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만큼 선거권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참여제도²⁶⁾를 마련하여, 일상적으로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어린이의회(Lasten Parlamentti)와 청소년위원회(Nuorisovaltuusto)가 있다. 어린이의회는 2001년 땀페레(Tampere)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된 체제로, 6학년 이하 어린이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어린이 관련 정책 및 의제를 심의하는 것이다. 땀페레 어린이의회의 총회는 매년 2회 개최되며, 20명으로 구성된 집행부(임기 2년), 6개 지역 의회(연 4회 개최)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의회의 목표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도시 정책결정자들에게 닿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영향력 있는 시민 참여 기술을 연령대에 맞는 방법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²⁷⁾ 즉 어린이의회는 어린이의 사회참여와 사회참여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종합학교 7~9학년, 고등학생 및 직업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구로, 2015년 개정 지방정부법(Kuntalaki)에 명시된 공식 기구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계획, 준비, 실행, 평가 전반에 청소년들의 관점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현재 핀란드의 지방자치단체 중 98%가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각 학교의 학생회 대표가 파견되는 형식이었으나, 최근 주요 도시들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푸(Espoo)시는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 개최 연도에 에스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3~18세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는 청소년의회의 코디네이터(nuorisotyön koordinaattorit)가 지원하고, 헬싱키 등 다른 도시와의

26) 핀란드의 청소년 참여제도에 관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회의(2021년 10월 15일)에서 발표된 한국교원대 서현수 교수의 '미래를 대표하기'(Representing the Future):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 원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그 외의 자료는 본문에 별도로 인용 표시하였음.

27) 땀페레시 홈페이지 내 '어린이의회'(<https://www.tampere.fi/en/take-part-and-influence/influencing-children-and-youth/childrens-parliament>)에서 발췌(2023년 10월 9일 인출)

연계 및 지원도 이루어진다.²⁸⁾

전국 단위의 기구로는 청소년의회(Nuorten Parlamentti)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고, 15~16세 청소년들이 2년에 한 번 하루 동안 핀란드 의회 의사당에 모여 의회 활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의회와 청소년발달센터의 공동 주관으로 운영된다. 핀란드 의회 위원회 세션과 본회의 세션을 경험하고, 본회의 세션에 마련된 ‘총리의 질문’ 시간에는 현직 의회 의장이 사회를 보고 총리와 장관들이 직접 출석하여 청소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이것이 공영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학생 저널리스트 150여 명이 참여하여 의회 정당 그룹 원내 대표단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3)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제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각종 규정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주로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규제 여부로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규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이다. 독일 정당법은 당원이 되는 자격을 ‘당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의 세부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독일의 정당들은 이에 따라 당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보수 성향 정당은 주 선거와 지방 선거 투표권 연령인 16세 이상, 진보 성향 정당은 투표권 연령보다 낮은 14세 이상에게 당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 역시 각 정당이 당규로 당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각각 14세 이상과 16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보수당은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임유진, 김명정, 2022: 164-171).

둘째, 선거 입후보를 위한 기탁금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기탁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보 등록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 액수의 금액을 기탁하고, 이후 당선 또는 득표율에 따라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로 귀속되는 제도로,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²⁹⁾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와 스웨덴은 기탁금 제도가 없어, 청소년들의 선거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³⁰⁾

28) 에스푸시 홈페이지 내 ‘청소년의회’(<https://www.espoo.fi/fi/tietoa-nuorisovaltuustovaaleista>)에서 발췌 (2023년 10월 9일 인출)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s://www.give.go.kr/>)(2023년 9월 26일 인출)

셋째, 선거권 연령이다. 세계 선거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OECD 국가)의 선거권 연령은 주로 16세에서 25세까지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가 16세로 가장 낮았으며, 그리스가 17세였다. 18세를 선거권 기준 연령으로 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등).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 하원 의회 선거권 연령은 18세, 상원 의회 선거권 연령은 25세로 구분되어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9).

5. 시사점

1) 법·제도

청소년 정치참여의 다양한 영역 중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로 관련 법들의 개정이 이어졌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연령 조정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이 18세 또는 이보다 낮은 16세(오스트리아)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이정진, 2018). 그런데 공직선거법 개정 시 선거권 연령만 하향되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에 대한 논쟁이 오랜 기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이 2022년 1월 개정되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피선거권 일부와 선거 운동, 정당 가입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선거 운동에 있어서 연령 규제가 없고, 정당법과 유사한 법을 가진 독일, 영국, 일본은 정당 가입 자격이나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 내에 별도로 청소년 조직을 두고 있다(이정진, 2018).

즉 공직선거법 개정 시 참조했던 OECD 국가들은 선거 및 정당 활동과 관련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써 직접적으로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계속된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탁금 제도의

30) 정예지, 서현재 (2023.8.10.). 어리지만 ‘베테랑’입니다...유럽의 청년정치인.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6>에서 2023년 9월 26일 인출.

경우, 일부 해외 국가들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면제하는 등 보다 청소년이 쉽게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가 법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및 학생 자치를 중심으로 한 일상 속 정치참여에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개별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어야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지만, 학칙에 따라 자치활동의 보장 범위 및 내용이 제한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교육기본법은 학생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였지만,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를 규정하여 학생을 제외했다. 즉 많은 청소년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와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학칙’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때로는 중앙 수준의 법·제도보다 우선되기도 한다. 사회 전반에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의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학교와 같은 각 수준에 걸쳐 법·제도의 상충이 없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교육

청소년의 정치참여 교육은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도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였다.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특히 학교에서 참정권 교육과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전에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여전히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정권 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정권 교육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규정한 것은 매우 돋보인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3년 5월 17일 상임위(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단 아직 참정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선연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 필요성과 시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관련 교육을 주된 운영 주체에 따라 학교와 학교 밖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에서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는 사회과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자치 기구 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이 체험을 통해 정치참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과를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공통 과목에서 정치제도, 정치참여, 법, 선거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사회 이슈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 이슈를 학습함으로써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식 중심으로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특정 정당 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참정권) 교육, 정치참여 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직접적으로 특정 정치 성향 또는 선거/투표 경향을 띠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된 내용을 다룸으로써 다양한 정당이 지향하는 바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정치·사회참여를 권리이자 의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지식 중심 학습을 넘어설 수 있도록 특히 실천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수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정치적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교육은 대체로 토론, 워크숍, 의정 체험과 같이 체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지만, 일회성 교육이 많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학교 밖’일 뿐, 교육 대상 측면에서 대부분 학생(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또는 학교 밖 교육이 전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각종 기구 및 의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참여기구라는 국가 수준의 각종 기구, 지역 의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청소년의회가 존재하며, 개별 학교 수준에서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 모임이 구성되어 있다. 국가 수준의 각종 청소년기구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었다. 지역 의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청소년의회는 혁신 교육의 일환,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한 일환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 기구 및 의회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대로 학교에서는 특히 학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에 학생 자치 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수의 청소년만이 참여 경험 기회를 얻게 되고, 정치참여 그 자체보다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각종 기구 및 의회가 도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 및 의회는 지금까지 축적해 온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위원 구성 시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 비례 할당을 보장하는 등 소수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장치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이혜숙, 이영주, 2017).

이러한 문제로부터 기존의 선발된 소수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참여기구 중심의 정책 참여 활동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는 선발된 청소년 위원이 문제 및 이에 대한 개선 사항 등 의제(안)를 선정하고, 청소년 위원들의 투표로 인하여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정부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를 수용 또는 불수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은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참여'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거주지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토론을 통해 대표 의제를 선정,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조례제정 요청 등 실천 활동을 진행한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또한 앞서 제시한 법·제도적 측면과도 연관 지어 보면,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 활동이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특히 정당 내 청소년(또는 청년) 조직은 해당 연령층의 정치참여를 위한 실질적 통로가 되며(한국선거학회, 2020), 이는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따라서 기구 및 의회를 넘어 정당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많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청소년 시민성과 정치참여 실태 분석

- 1.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 2. 초점집단면담(FGI)
분석 결과
- 3. 초점집단면담(FGI) 시사점
- 4. 실태조사 개요
- 5. 실태조사 기초 분석 결과
- 6. 실태조사 심화 분석 결과
- 7. 실태조사 시사점

4장 개요

연구 방법

- 초점집단면담(FGI):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과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방안의 도출을 위해, 청소년과 교사로 구성된 5개 집단(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초·중등교사)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주제는 정치참여와 시민성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정치참여 의미, 관심도, 경험, 효능감,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을,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시민성의 의미, 시민성 발달 경험, 시민성 함양 방안에 관한 질문을 제시함
- 실태조사: 전국 359개 초·중·고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8,654명의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2,848명, 중학교 1~3학년 2,821명, 고등학교 1~3학년 2,985명)을 대상으로 좋은 시민의 핵심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활성화 수준과 효과성, 문제점 등) 등에 대해 설문함. 이와 더불어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함양의 연관성을 비단 학생 개인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의 맥락에서도 살펴보고자 학생 조사가 이루어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에 대한 설문을 별도로 실시함

주요 내용

1. 초점집단면담(FGI)

1)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

-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정치참여 의미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음. 초등학생은 ‘투표’나 ‘시위’같이 정치참여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나 학교 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지자체장에게 편지 보내기’, ‘학교 자치회에 입후보하기’와 같은 활동을 정치참여라고 이해하고 있었음. 특히 후자의 경우 비교적 어린 초등학생 자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참여 활동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중학생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표출 활동을 넘어, 문제해결 활동을 공동되게 정치참여로 보고 있었고,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변화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아직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긍정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될 만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는 청소년 참여기구 또는 학교 자치라는 점이 제기되었음
-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학습, 다양한 청소년 정치참여 장에서 활동하는 토래의 영향 등으로 정치참여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후 입문했던 정치참여 경험을 계기로 다른 종류의 정치참여 경험을 하게 되고, 이로부터 ‘정치참여 성공 경험’을 지속해서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의 확장이 강하게 나타남.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성공 경험이 지속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고 책임감을 갖게 되어 정치참여 활동을 지속하는 양상이 나타남
- 청소년들은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효능감이 증진되는 변화를 겪었다고 제시함.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사회 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 또한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능력, 학습 동기의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역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고,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제시함

2)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실태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청소년 정치참여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즉 여전히 정치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음. 학교 자치나 청소년기구 등 다양한 청소년 정치참여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 정치참여를 장려하면서도, 실제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관심을 두거나 정치참여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되고 있음

-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실태를 교육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먼저 정치참여와 관련된 주제를 교과, 교실, 학교에서 다루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결합하여 교사가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점, 기술적으로만 정치참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또한 학생 및 학교자치 활동이 학교나 담당 교사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정치참여에 대한 학습의 질 담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음
-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문제로는 담당 공무원이나 의회 등 관계자의 인식 및 태도, 청소년 제안 수용률 도출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양상과 성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의 정치참여 요구 등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제한이 제기되었음. 또한 수시 전형에서 외부 활동으로 기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없어지고,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동기가 약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보다 확대되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음

2. 실태조사

1) 시민성

- 좋은 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6개의 시민적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와 관련해 자율을 제외한 여타 시민적 가치 규범에서 초등학생 집단이 중·고생 집단보다 일관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줌. 전자가 후자보다 시민적 가치 규범을 상대적으로 더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대부분의 가치 규범에서 가장 낮았음. 초·중·고생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는 6개 가치 규범 중 평등과 애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참여가 가장 낮았음
- 6개 가치 규범에 대한 각 응답자의 수용적 태도 점수를 활용해 해당 응답자의 참여적, 정의 지향적, 책임 이행적 성향을 평정하고 이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집계된 성향을 기준으로 해당 응답자의 시민 유형을 판별했을 때, 초·중·고생 집단 모두에서 정의 지향적 시민의 점유 비율이 가장 높았음(초등학생 72.7%, 중학생 82.6%, 고등학생 81.4%). 반대로 각 집단 내 참여적 시민의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1.9%,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6.6%에 그침. 이는 앞서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초·중·고생 집단의 수용적 태도가 가장 낮게 집계된 설문 결과와 동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2) 정치참여 경험

- 수업 중 토론을 통한 정치참여,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교외 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사적 관계망에서의 정치참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등 5개 유형의 정치참여와 관련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경험은 초등학생에게서 두드러지고 친구나 부모 등의 사적 관계망 및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에게서 두드러짐. 중학생 집단에서는 유형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음. 다만, 학교 안과 밖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추이를 비교하면 초·중·고생 공통으로 학교 밖과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이 학교 안에서의 경험보다 저조함

3)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의 관계

- 두 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치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초·중·고생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수업 중 토론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중·고생), 연대(고등학생), 애국(중·고생) 가치 규범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초·중·고생) 가치 규범 함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학교 밖 참여기구를 통한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초·중·고생), 사회질서(초·

고등학생), 연대(중·고생) 가치 규범 함양에 도움을 주었고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초·중생), 자율(초·중생) 가치 규범 함양에 도움을 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사회질서(중·고생), 평등(고등학생), 애국(고등학생) 가치 규범의 함양에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4)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학교 조사)

- 학교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 모두 학교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관련해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을 가장 많이 선택함. 해당 응답의 학교급별 점유율은 초·중·고 각각 32.8%, 41.6%, 40.3%임
-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 시민교육을 포함해 지도하고 있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음. 이에 반해 중·고교에서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과를 통해 시민교육을 한다는 응답이 각각 28.8%, 31.8%로 가장 많음. 시민교육을 학교 경험의 총체적 산물로 본다는 응답도 초·중·고 각각 29.1%, 28.0%, 27.9%에 달함
- 학교 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 수준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외부 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등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학교 시민교육의 확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음
-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자원 환경에 있어 대부분의 학교 현장은 학교 구성원 친화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시사점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치참여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 일상적 학습 모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일상적 학습은 결국 정치나 정치참여에 대한 문화와도 연결되므로,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모두 정치참여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학교 교육 측면에서는 교과교육과 학급 및 학교 차지 차원에서 정치나 정치참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함
- 청소년 참여기구 측면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입시를 포함하여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가 다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참여는 다른 시민적 가치 규범과 비교해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 함양이 가장 원만하게(유익한 정적 상관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수업 중 토론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은 오히려 자율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 함양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이들이 학교 수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사 토론이 민주주의적 숙의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자율적으로 탐색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문제점을 시사함. 반면,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자율 가치 규범을 함양하는 데 순기능을 했는데 이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관련 의견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성, 주체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방증함.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의 순기능 증진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치·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회질서 가치 규범의 함양에는 학교 밖의 다양한 정치참여 기구 활동이 도움이 되므로 학교는 학교 밖 기구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참여기회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반면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여기서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증되지 않은 뉴스, 정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치적 견해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회체계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와 불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 등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앞서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으로 다시 귀결함

- 연대 가치 규범의 함양에는 학교 안팎에서의 참여기구 활동이 모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비단 학교라는 공동체 외에도 지역사회, 국가 등 더 큰 공동체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함
- 앞서 살펴본 사회질서의 경우처럼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평등과 애국 가치 규범의 함양에도 역기능을 하였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며 특정 집단의 존엄이나 권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반목을 조장하는 정보와 뉴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온라인 매체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요함

1.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과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기획하였다.³²⁾ 초점집단면담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학생 청소년과 교원으로 구성된 5개 집단(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학생 청소년 집단은 현재 또는 최근까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과 대학생으로, 교원 집단은 학교 현장에서 정치·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교사로 구성하였다. 면담참가자는 외부 자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섭외됐고 면담 규모는 초·중·고생의 경우 각각 4명, 4명, 6명, 대학생은 8명, 그리고 교원은 초등과 중등 각 5명씩 총 10명이다. 대상별 세부 면담 질문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31) 본 장을 집필한 사람: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지숙(경일대학교),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32) 초점집단면담 IRB 승인번호: 202304-HR-고유-005 / 승인 일자: 2022.4.25.

표 IV-1 초점집단면담 질문 개요

영역	세부 영역	초·중·고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정치참여	정치참여 의미	-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활동이 정치참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 정치참여에는 어떤 활동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 정치참여에는 어떤 활동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정치참여 관심도	- 여러분은 정치참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요? - 주로 어떤 정치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나요? - 어떻게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 정치참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주로 어떤 정치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어떻게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 학생들이 정치참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은 주로 어떤 정치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습니까? - 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정치참여 경험	- 여러분은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 과거 학생이었을 당시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 정치참여 경험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 청소년 스스로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치참여와 관련된 교육활동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시민교육, 정치교육, 선거교육 등)

영역	세부 영역	초·중·고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 여러분의 정치참여 관련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참여 효능감	• 여러분은 스스로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러분이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에게/학교에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청소년 스스로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분의 청소년기 정치참여가 스스로에게/학교에/혹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청소년 개인에게/학교 및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영향력, 변화 가능성 등)	•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청소년 개인에게/학교 및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영향력, 변화 가능성 등)
	정치참여 지원방안	•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 참여기구, 법령 측면에서)	•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할 교육/(참여)기구/법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현장 및 학교 연계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현 실태는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할 교육/(참여)기구/법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세부 영역	초·중·고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시민성	시민성의 의미		•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태도, 혹은 ‘시민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시민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태도, 혹은 ‘시민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시민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성 발달 경험		• 과거 학생이었던 당시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 언제 혹은 무엇을 통해 스스로 시민성이 발달했음을 느끼십니까? • (예: ‘나는 ~할 때 / ~을 보았을 때 내가 시민으로서 한층 성숙해졌음을 느낀다.’)	• 언제 학생들의 시민성이 발달하였다고 느끼십니까? 경험하신 사례가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예: ‘학생들이 ~할 때 / ~을 보았을 때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한층 성숙해졌음을 느낀다.’) •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예: 시민교육/정치교육/선거 교육, 투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작성/공유, 평화적 집회 참여, 사회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서명운동 등)
	시민성 함양 방안	• 어떤 사람이 ‘좋은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치참여 경험이 ‘좋은 시민’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러분이 ‘좋은 시민’으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초점집단면담(FGI) 분석 결과

초점집단면담의 분석 결과는 크게 1)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 2)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된다. 1)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은 의미, 계기, 변화 등 3개의 테마로 구분해 살펴보았고 2)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 교육적, 기구적 차원 등 3개의 테마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1)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

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FGI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을 (1) 정치참여의 의미, (2) 정치참여의 계기, (3) 정치참여 경험으로 인한 변화로 정리하였다. 유의 사항은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치참여 활동 경험이 해당 연령대의 다른 청소년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므로, 일반화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FGI 참여 청소년들도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1) 정치참여의 의미

①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정치참여

초등학생들은 정치참여를 청소년들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또는 ‘시위하는 것’과 같이, 정치참여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을 제시하였다. 또는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 표출 방법으로 ‘지자체장에게 편지 보내기’나 학교 자치활동, 특히 임원 입후보와 같은 활동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FGI 참여자마다 생각하는 정치참여의 의미는 다양했지만, 그러한 활동이 정치참여라는 것을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자체장에게 편지 보내기’ 활동의 경우, 교사가 이러한 활동을 제안할 때 ‘정치참여 활동이다’라고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과 학습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전에 의미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했던 활동이 ‘정치참여 활동’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 저희 학교 가려면 육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육교가 눈이 와서 녹았다가 다시 얼어서 얼음이 되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걸 자주 봤어요. 그래서 캐노피 같은 걸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캐노피가 무거워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선 깔아달라고

시장님한테 편지를 썼던 적이 있어요...(중략)...사회 시간에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아 그게 그거구나' 이러면서(초등학생 4번)

자신들이 제시한 의견이 학교나 사회에서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의견을 모으는 활동 자체가 재미있거나, 실제 의견이 학교나 사회에서 반영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의견 제시에 대한 '결과', 즉 실제 반영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나이에 관계 없이 어린 청소년인 초등학생 자신들도 충분히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② 중학생이 생각하는 정치참여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치참여가 초등학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결과'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의견 제시를 넘어 그러한 의견을 갖도록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까지 정치참여로 보고 있었다. '기여', '실천'과 같은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초등학생들보다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보다 깊이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좀 실천하기 위해 그런 행동들이 좀 정치참여를 하는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중학생 1번)
- 사회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여하는 것 자체가 또는 의견을 하나 냈으로써 사회가 조금 변한다면 작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저는 그게 정치참여라고 생각합니다(중학생 3번)

의견 제시와 문제해결 활동은 문자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누구나 의욕,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중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③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정치참여

고등학생들이 제시한 정치참여는 직접투표, 정당가입, 단체활동, 1인시위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는 청소년 특별회의나 참여위원회와 같은 기구 참여나 학교 자치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선거법 개정 등으로 고등학생 정도 연령대의 학생들이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 문화 형성이 영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학급, 학교, 기구 참여와 같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 정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참여 기구도 솔직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어른들의 인식조차도 아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직 넌 모른다’고, 아니면 정당 싸움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치참여를 하는 것을 되게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당 싸움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고등학생 5번)

④ 대학생이 생각하는 정치참여

대학생들도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참여를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었다.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재보다는 과거 활동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는 기구 참여나 학교 자치로 제시되었다.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누구나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협의와 광의의 정치참여,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와 실제 정치참여가 각각 다른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었다. 특히 참여가 ‘자발성’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그러한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 참여는 자발성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진짜 참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발성이 발현되려면 참여 경험이 쌓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청소년들의 그 자발성에 대한 욕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의 욕구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효능감이 낮은 친구들이 많다면은 이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대학생 3번)

자발성과 관련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자발성 또는 자기의 의견이 정말로 ‘청소년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저는 정치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중략)...친구들이 학교에서 정치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 부모님이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구매나 이런 일이 아닌 이상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정치가 아주 사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실현되는 거는 사실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이 정책에 문제가 있어, 라고 가치관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진 욕구가 생기는 건데(대학생 4번)

(2) 정치참여의 계기

① 가정에서의 학습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의 계기로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의 학습경험을 강조했다. 부모의 대화를 듣는 것, 선거가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동행시키는 것, TV나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 등이 가정에서의 일상적 학습경험이다. 이를 통해 정치 성향, 정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분위기,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며 정치참여에 관심을 두게 된다.

- 어렸을 때 선거할 때 엄마 아빠가 같이 데려간 적도 있거든요. (진행자: 투표장에?) 네 그때는 어려서 같이 들어갔거든요(초등학생 1번)
-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TV 보면서 뉴스를 자주 봤거든요. 아침에 맨날 뉴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항상 불만. ‘아니, 저기는...’ 불만을 듣고 자랐다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1학년 때는 기사 쓰는 활동하다가 좀 뉴스를 좀 많이 찾아봤고요(중학생 1번)

-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는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이 뉴스를 틀어놓으셨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해가 지나면서 좀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고등학생 3번)

② 다양한 청소년 정치참여 장(場)의 영향

다양한 청소년 정치참여 장(場)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계기로 작용한다. 학급 및 학교 자치나 학교 밖의 다양한 청소년기구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장(場)에서 활동하는 또래들의 모습은 정치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이 비교적 어린 연령 시기에 강한 동기 부여가 된다.

- 제 친구가 청참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랑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사이에서 자주 만났던 말이에요. 그 친구가 항상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멋있다, 약간 나도 저런 걸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중학생 4번)
- 꼬꼬마 시절로 돌아갔을 때 위원장님께서 리더적인 부분에서 앞장서서 아셨던 부분이 감명 깊어 가지고 ‘나도 저 권력을 차지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하게 된 거 같아요(고등학생 3번)

‘권력욕’이나 ‘멋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급 또는 학교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거나, 학급 회의나 대의원, 모임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실제로 그러한 역할이나 활동하는 또래로부터 자극을 받아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③ 정치참여 경험의 확장

앞서 제시한 계기로 정치참여에 입문하게 되면, 학급과 학교 자치활동부터 시작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으로 활동 폭이 확장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다음에서 다룰 정치참여의 ‘성공 경험’이 있는 경우, 기존 정치참여 활동이 매개의 역할이 되어, 다른 정치참여 활동으로 확장·지속된다. ‘성공 경험’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동안 해 왔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며, 정치참여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이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게는 반에 생기는 사회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 반의 문제점을 사회에 적용해 봤더니 약간 반이 작은 사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조금 더 우리 반에서 해결하지 않고 조금 더 크게 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청참위까지 오게 된 거 같아요(중학생 3번)
- 실패 경험을 내가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표본을 좀 더 많이 공유할수록 공감의 많이 되잖아요. 논문 같은 거 봐도 지금 청소년 참여 보면 다 좋게 사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 기본적으로 좋지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쉽다 이런 걸 알림으로써 얻는 그런 것.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정의감.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응원을 받는 따뜻함 이런 것도 좋아서 계속하는 거 같습니다(고등학생 6번)

(3) 정치참여 경험으로 인한 변화

① 정치참여 중요성 인식 및 정치효능감 증진

정치참여 경험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됨으로써, 정치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제한한 의견이나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어 실제 구현되는 것과 같은 ‘성공 경험’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효능감을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 활동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깨져 있다, 자전거 도로가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해도 어차피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게 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 위원회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고 일 처리하시는 분들은 어른분들이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런 시야가 되게 좁았었는데, 청소년 위원회를 하고 나서 그 시야가 확 트인 느낌이에요(중학생 2번)

② 공동체와 사회 변화에 관한 관심 증대

일상생활과 학급 및 학교 자치활동을 통해 갖게 된 관심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기자단 등 학교 밖 활동으로 확장되며, 내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같이 정치참여 활동이 어느 정도 축적된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권력욕이나 동경심 또는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차원에서 시작한 정치참여 활동이 확장·축적되며, 나만을 위한 활동을 넘어, 사회를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 사실 어렸을 적에는 좀 권위 지향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나도 저런 사람이 돼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여기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권위에 대한 욕망이 정책이나 실질적 변화에 대한 욕망으로 좀 더 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참여기구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면서 내가 높은 사람들이 돼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생산적인 대화를 하거나 조직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잘 보이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기고, 제가 그런 걸 초래한 경험을 몇 번 만들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위로만 갈 거를 지향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떤 도움을, 공동체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고등학생 6번)
- 지금 제 전공과 연결이 되는, 그 선상인 전공이거든요. 나름 진로에 도움이 되겠다고 시작을 한 일이었어요. 사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정책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이제 저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약간 이런 거에 뿌듯함을 느껴서 그냥 하고 있는 거 같아요(대학생 1번)

③ 개인적 역량의 향상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능력 등 매우 다양했다. 학습 동기가 향상되었다는 의견,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역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었음을 제기하였다.

-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되게 좋은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말하는 훈련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실제로 끝나고 나서 너무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 뭔가 발표를 할 때 있어서 많은 준비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게 큰 것 같고요. 4년 동안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위원장도 해보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 같은 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정확한 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은 것 같아요. 꼭 정치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은 역량을 얻어갈 수 있는 활동들이었던 것 같아요(고등학생 4번)

2)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

모든 FGI 참여자가 제시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지원 실태에 대한 인식을 (1) 사회문화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기구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은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분위기, 교육적 측면은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을 의미한다. 학교 밖 다양한 청소년기구는 청소년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구의 지원 실태를 기구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은 청소년과 교사 모두 비교적 공통되게 지적하였고,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사가 많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청소년들이 실제 기구에 참여한 만큼 기구에 대한 문제 인식은 청소년에게서 다수 도출되었다.

(1) 사회문화적 측면

① 청소년 정치참여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교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정치참여의 방식이나 질(質)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문화가 이미 팽배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미 우리 사회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이루었고, 법적으로는 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되는 등 표면적으로는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거나 지원해야 하는지,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저는 현실적인 얘기로 지금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형태는 사실상 장애물이 없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비판 나올 때 나왔던 얘기들처럼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그 표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이런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새롭게 대두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중략)...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다 개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인정해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진 안 좋은 점은 그 누구도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얻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중등교사 4번)

즉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집단이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와 같은 가치 지향성이 부재하거나, ‘모두가 옳다’와 같이 n분의 1표가 되거나, 나아가서는 ‘민원이 되어버리는 의견’이 만연하는 분위기가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정치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교사는 본인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의 시민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기성세대도 정치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변화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②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중적 인식

청소년들은 여전히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이중적임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이중적’의 의미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청소년 자신들도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학급 및 학교 자치, 청소년기구 활동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 정치참여를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낮게 보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학급자치회를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서 아쉬웠던 것이, 항상 회의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학교 행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 자치를 하면서 흔히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주인이 너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학생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 이럴 때마다 강사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주인은 우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운영위원회는 선생님들과 지역 인사 이렇게 운영이 되고(대학생 5번)

후자는 청소년 스스로도 정치참여가 성인들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청소년이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거나 정치참여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된다.

- 정치참여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투표, 선거 이런 쪽이잖아요.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가고 내가 투표를 하고 그러면,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야 재 또 정치질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정치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솔직히 봐온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 데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게 어려워 지는 것 같아요(고등학생 2번)
-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들어갔을 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는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청소년 참여 무슨 뜻인데?’ 이런 것도 있고, 정치에 관련돼서 한다니까 ‘정치 그런 건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된 힘이 있다고.’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정치라는 인식부터가 좀 더 청소년들한테 더 잘 다가가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중학생 2번)

(2) 교육적 측면

①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지침 부재

교사들은 정치참여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이란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지침보다는, 정치참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교과, 교실, 학교에서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가 온전히 혼자서 정치참여 교육의 계획과 실행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결합하여, 교사는 정치참여 교육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 선생님도 퍼실리테이션 가이드가 안 돼 있다. 학급 시간 맞춤 주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방송 틀고 그러니까 HR 시간이 다시 없어지고, 퍼실리테이션 가이드, 생활 속의 소통 가이드, 포럼 가이드 요게 좀 필요하고 의사소통하는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 생겨가지고 정말 제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학습적인 경험도 느껴보고...(중략)...그리고 교사가 정치적인 수업할 때 외풍을 막아줄 만한 그런 걸 교육청이나 확실히 교장 선생님이 막아준다면. 지금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그냥 수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몸 사리는. 그래서 '불필요한 잘못된 민원은 이런 겁니다'라고, 정치적으로 교육에 대한 민원에 대해 안내를 해야 할 것 같고(중등교사 2번)

② 실천적 정치참여 교육의 부재

앞서 제시한 상황에서는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은 기술적으로 가르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정치참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참여'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결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점, 교사도 정치참여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며 정치참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찰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기술적으로 정치참여 관련 능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다음 인용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제가 외교에서 아이들이 토론회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토론회는 어쨌든 자기가 할 대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토론하는 거에 그 포맷은 엄청나게 잘 따라요. 근데 영혼이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길 수밖에 없게 말을 잘 해요. 논리적으로. 그 스킬만 배운 거예요. 야까 다른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교실에서 살아 있는 토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아이들랑 토론하는 그게 활성화 돼야 되는데 일부 모범생들이 상 받기 위해서 대사를 달달 외워서 하는 그 토론에서 상 받은 아이들이 결국 스카이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스카이 간 아이들이 자기주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그럴싸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나는 혐오할 자유가 있다라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논조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현혹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혹되게끔 하는 그 스킬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도, 살아있는 토론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는 우리 교사들은 과연 정말 그러면 살아있는 토론하자, 하면 교사들은 하는가? 우리도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 뭐 하나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공동체가 같이 추구해야 될 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가 봐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쉽게 어쨌든 뭐 세월호랄지 이런 것도 큰 부담 없이 꺼내 놓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논쟁이 불을 만한 이슈를 과연 끌고 와서 교실로 가서 토론할 수 있을까(중등교사 3번)

또한 낮은 단계의 학교급에서 높은 단계의 학교급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잦은 교육과정 변경으로 정치참여나 넓게는 시민성 관련 교육 및 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점 등도 실천적 정치참여 교육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③ 일상적 학습의 한계

일상생활에서의 학습은 교수자-학습자라는 정해진 관계에서 명확히 안내된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없이, 자연스럽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상 일상적 학습에 대해 교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일상적 학습이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서, 그 질의 담보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 현재 접하는 정보의 플랫폼이 진짜 나랑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게, 저는 일단 네이버 혹은 다음을 켜고 정보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뜨는 뉴스들을 보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정보를 그래도 매일매일 습득을 할 수 있었고.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집에 오는 신문을 보니까 어쨌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애들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건 사고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넨 그럼 네이버랑 다음은 안 켜니?’ 그랬더니 안 켜대요. 구글을 켜거나 유튜브를 켜는데, 유튜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으로 정렬돼 있으니까 (사건 사고를) 안 보여줄 거고 구글도 요즘은 약간 창 뜰 때 뉴스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메인 화면 자체에는 어떠한 내용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구나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얘기할 텐데. 두 번째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사회비판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들으면서 애네가 맞나? 애들이 왜 어디서 이걸 습득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애네가 습득하는 어떤 정보의 경로에서 무언가 그 비판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또는 뉴스를 가끔 봤을 때 맞길. 과거 얘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다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애네들이 습득하는 정보의 경로가 되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중등교사 1번)

청소년들도 일상적 학습의 질적 수준 담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 사회 전반에 정치와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고, 기성세대도 참정권 이상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이에 대한 교육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인터넷 등과 마찬가지로 편향된 정보나 가치가 유통되는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치참여 활동 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많았고, 누구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이처럼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 선거 하나만 들더라도 친구들이 학교에서 정치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당의 누구, 무슨 당의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됐냐, 그 사람의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냥 부모님이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무슨 무슨 국회의원 문제다, 애 문제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고(대학생 4번)

④ 학생, 학교 자치 운영의 한계

학생, 학교 자치 활동은 학생들이 정치참여에 대해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사전 교육이나 기본적으로지만 구체적인 규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 정치참여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혁신학교나 민주적이라고 하는 곳을 봤을 때 저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냥 학생들한테 모든 걸 맡겨 놓는다. 초등학교생인데.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너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게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민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사의 바른 자세인가, 적절한 자세인가. 학생들한테 많은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제시해 줘야 할 것 같은데(초등교사 4번)
- 우선 학생들이 학급회 임원을 선발할 때나 학생회장 선발할 때나 인기투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경험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내 의견을 대신해 줄 거더라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장의 역할이 애들 앞에서 통솔하는 ‘조용히 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용히 하자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이 반장이 아닌 아이가 얘기를 하면 ‘반장도 아니면서 니가 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장의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역할도 모르고. 그래서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우리들의 소수 의견까지 다 경청하고 그걸 대의정치를 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중등교사 3번)

(2) 기구적 측면

① 청소년 참여기구의 제한적 역할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조차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 구조, 즉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계획했다는 청소년 정치참여 기구의 운영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만 완벽할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나 의회 등을 포함한 관계자의 인식 및 태도, 청소년 제안 수용률 도출 방식, 회의 운영 방식 및 횟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청소년 특별회의 교육 분과장을 맡았는데 정책 제안을 8개를 했어요. 청소년 특별회의 중앙 선발직에도 분과가 돼 있어요. 교육 분과에서 정책 제안을 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근로 청소년,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렇게 8개를 냈는데 응답이 다 수용이 됐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0% 수용이다, 너무 잘 됐다 이랬는데 의견서를 보니까 수용을 했다는 게 실제로 반영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스무리한 다른 정책을 찾아서 우리도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 목적이나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에 짜맞추기를 해서 수용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보도 자료가 ‘정부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92%나 들었습니다(라고)’(고등학생 6번)
- 청소년 특별회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정책 영역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저번 오리엔테이션 때 나왔던 걸 바탕으로 성인들의 합의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진된 그 세계 안에 투표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청소년들의 참여라고 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의 주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든다는 거죠... 결국 이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의해서 수단화 되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 과정이 청소년 참여다라고 좀 포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대학생 3번)

상기 인용문 외에도 한 고등학생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였으나, 이를 개최한 지역 의회 의원들이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청소년들과의 정책 토론보다 전체 지역민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 대화한 것이 더 주요한 행사였다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 관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더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의 의견이 수용될 수 없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정치참여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하는 기구이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짜 높으신 분들, 어른 분들이 하는 정치”이거나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라”와 같은 성인의 의견과 시선이었다.

②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동기의 약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인정이 없어져,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동기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인정’은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이 입시를 포함한 진로 활동에, 학생이 성취한 역량이자 성과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입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등학생들은 수시 전형에서 외부 활동에 대해 기재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동력을 잃게 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치참여에 큰 관심이 없어도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된다는 이유로 참여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참여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입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직업계고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언급할 만큼, 양적으로 많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가 입시제도와의 연계였음을 주장하였다. 입시에 무조건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이 설정 진로와의 연계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명과도 같다.

한편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수준까지의 문제 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소년 정치참여 기구 활동에 대한 안내나 길잡이 없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위화감을 느끼게 됨을 언급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정립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기구에 참여했거나, 연령상 아동과 청소년에 걸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을 더욱 느끼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 (거리에서 투표를 받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재밌었어요.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원래는 회의 같은거 하려고 온 건데, 되짚어 보니까 ‘이거는 회의가 아닌데? 이게 뭐였지? 뭐 하려던 거였지? 이게 맞나?’ 저는 그냥 회의만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맞나?’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초등학생 4번)
- 아동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저희보다 엄청 어린 애들이 많았거든요.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좀 받아주는 느낌으로 놀아주는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는 오자마자 PPT로. PPT 가져오셔서 소개하고 정책 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진지해졌어요(초등학생 1번)

③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지속 및 확대의 한계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 부족은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데 큰 장애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떠한 경로로든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게 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다수 청소년은 이러한 장치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학생들만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면서 청소년 참여기구가 지속, 확대되지 못하는 것이다.

-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물어보면은 보통 모른다고 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청소년 참여 기관이나 기구 그런 시설에서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홍보를 하면 해봤고 요청도 해봤고 구청에서 해주시는데 보통 관공서끼리의 대화는 공문으로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학교 아닙니까? 근데 정작 학교의 홍보 용지나 아니면 그런 공문을 내면은 우리는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학교에서 잘라버려요. 정작 학교 게시판에는 그 홍보 용지가 절대 안 붙어 있으니까 홍보하려고 시도를 해도 그쪽에서 막아버리면은 청소년들은 이런 기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저는 각 기관별로 막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게 아니고 홍보 용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꾸러졌다면 오히려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위원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고등학생 3번)

3. 초점집단면담(FGI) 시사점

FGI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치참여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FGI 참여자들은 정치참여의 장(場)에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존재로 취급받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형식적 운영이 강조되어, 성인 정치 현장에서 비교적 소수인 청소년도 참여하게 하였다는, 즉 청소년에게도 열려있다는 선언만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크게 학교 교육 측면과 일상적 학습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상적 학습은 계획되고 조직화한 교육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질 관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교육을 정규 학교 교육으로 대표되는 형식교육(formal education)과 그렇지 않은 교육으로 나누어 볼 때, 인간의 전 생애에서 형식교육이 아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많고, 그러한 교육이 더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일상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 일상적 학습의 방법 등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회 전반과 기성세대도 정치참여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청소년 세대와 함께 정치참여에 대해 학습한다는 분위기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교과교육과 학급 및 학교 자치 모든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참여와 가장 관계가 깊은 사회과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총론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교과에서 정치참여 관련 주제나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변경이 잦아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 시간 확보도 어려운 편이다. 학급 자치와 학교 자치는 담임교사, 학교문화에 따라 운영 양상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즉 학교 교육의 모든 측면이 온전히 교사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교사들은 어떻게 정치참여를 안내하고 지도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교사 양성 단계에서 정치참여 교육에 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교사공동체에서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교사 스스로 정치참여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치참여에 관련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이 논의되고, 정치참여

교육이 다루어지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학급과 학교 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공동의 합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구적 측면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시스템을 전반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관련해 청소년 입장에서는 정책 제안 수,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책 반영률이라는 성과를 단기간 안에 도출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이 내실 있는 지속적 참여를 방해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내려가면 참여기구 운영 담당자 교체에 영향받는 참여기구 운영, 정책 제안 수용률 달성만이 강조되는 성과주의적 경향,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지역 관계자들의 무관심 등 세부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제기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제는 입시와의 연계였다. 사회적 인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발휘하는 영역이 입시이기 때문에, FGI에서는 입시 문제가 드러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갖게 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정치참여를 통해 전인적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청소년 스스로가 느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 과정과 결과를 청소년들의 역량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에 대한 고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전국 359개 초·중·고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8,654명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좋은 시민의 대표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에 대한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과 효용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조사 결과의 모집단 대표성을 담보하고자 2022년 4월 교육통계 DB 기준의 전국 초·중·고생 현황을 토대로 지역과 학교급(충화변수)에 따른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특정 지역과 학교급(충화변수)에서 과소 또는 과대 표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형

비례 배분 방식으로 적정 규모의 표본을 층별로 배분하고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각 층의 표본 학교는 확률비례 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였고 선정된 표본 학교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다(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된 표본설계보고서 참조).

설문의 경우 본 연구는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담보하고자 국제학업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가 주관하는 ICCS 2016년 설문을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ICCS는 시민의식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시행되는 조사 가운데 엄정성, 공신력, 지속가능성 등을 두루 갖춘 국제 비교 조사로서 조사 목적은 각국의 청소년 세대가 민주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준비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단위의 시민교육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장근영, 2018:3).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ICCS는 조사 참여국의 8학년 학생, 즉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되는데 학생용 설문 모듈과 더불어 교사와 학교장이 응답하는 별도의 설문 모듈도 운용한다. 제1차 ICCS는 2009년 한국을 포함해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총 38개 국가에서 시행됐고 제2차 조사는 7년 뒤인 2016년에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에서 시행됐다. 제3차 조사는 지난해인 2022년 유럽, 남미, 아시아 지역 23개 국가에서 시행됐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의 제3차 조사 불참으로 인해 한국 청소년의 시민성과 시민의식 추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시계열 자료 구축에 차질이 생겼지만, 본 실태조사가 ICCS 2016년 설문의 주요 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자료 누락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연관성을 여러모로 살펴보고자 ICCS 2016년의 조사 문항 외에도 주제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됐거나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설문을 추가했으며 조사 도구는 학교급에 따른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고려해 초등용과 중등용(부록 2, 3)으로 구분하여 제작했다.³³⁾

끝으로 본 연구는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함양의 연관성을 비단 학생 개인의 맥락에서만 뿐만 아니라 학교 맥락에서도 살펴보고자 학생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 조사(부록 4)를 별도 실시하였다. 학교 특성 조사의 목적은 각 표본 학교에서 구현되고 있는 학교 시민교육의 제반 운영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교원 1인(교장, 교감, 부장급 교원 등 학교별로 상이)이 학교를

33) 조사 내용에는 차이가 없고 사용된 어휘와 질문을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에 맞춰 수정

대표해 조사에 응했다.

이상에서 소개한 학생 조사와 학교 특성 조사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 실태조사 개요 비교

구분	학생 조사	학교 특성 조사
조사 대상	초등학생 4~6학년 2,999(2,848*)명 중학생 1~3학년 2,921(2,821*)명 고등학생 1~3학년 2,734(2,985*)명 *가중치 적용 전 표본 규모	학생 조사가 시행된 전국 359개 초·중·고 (각 학교의 대표 교원 1인이 응답)
표집 틀	2022 교육통계 연보	
표본 추출 방법	다단계 층화집락추출	
조사 시기	2023년 5~7월	
조사 방법	조사원의 학교 방문 및 우편조사	온라인 설문
주요 내용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과 도움 수준에 대한 인식 등	학교 시민교육의 최우선 목표,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 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성, 학생 참여 기반 학교 시민교육의 구현 정도 등

2) 학생 설문조사 개요

(1) 시민성 및 정치참여

① 참여, 자율, 연대, 사회질서에 대한 태도

좋은 시민성의 가치 규범 중 참여, 자율, 연대, 사회질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총 17가지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문항의 중요성을 4점 척도(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2점=별로 중요하지 않음, 3점=상당히 중요함, 4점=매우 중요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각 가치 규범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의 규범 아래 모든 선거 참여, 정당 단체 가입,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지역사회 유익한 활동 참여, 인권 증진 운동 참여, 환경 보호 운동 참여 문항이 포함된다. 둘째, 자율의 규범 아래 역사 학습, 신문·라디오·TV·인터넷상의 정치 이슈 주시, 정치토론 참여,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문항이 포함된다. 셋째, 연대의 규범 아래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인 사람 지원하기, 저개발 국가 국민 지원 활동 참여하기 문항이

포함된다. 넷째, 사회질서의 규범 아래 정부 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열심히 일하기, 항상 법을 준수하기, 가족의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 포함된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문의 Q23이다.

②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총 7가지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 2점=동의하지 않음, 3점=동의함, 4점=매우 동의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문의 Q24이다.

③ 인종 평등에 대한 태도

인종 평등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총 5가지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 2점=동의하지 않음, 3점=동의함, 4점=매우 동의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든 인종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취업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문의 Q25이다.

④ 권력 기구에 대한 신뢰

권력 기구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를 측정하고자 총 6가지 권력 기구(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원, 경찰, 정당, 국회)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기구에 대한 믿음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믿지 않음, 2점=약간 믿음, 3점=상당히 믿음, 4점=완전히 믿음)로 평정하게 하였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문의 Q26이다.

⑤ 국가에 대한 자긍심

국가에 대한 응답자의 자긍심을 측정하고자 총 6가지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 2점=동의하지 않음, 3점=동의함, 4점=매우 동의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태극기는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한국을 매우 존경한다,’ ‘한국이 이룬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27이다.

⑥ 시민적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

학생 청소년이라는 지위 맥락에 맞는 시민적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고자 총 7가지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수행 자신감을 4점 척도(1점=전혀 못할 것 같음, 2점=잘 못할 것 같음, 3점=상당히 잘할 것 같음, 4점=매우 잘할 것 같음)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활동으로는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 기사 토론하기,’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 주장하기,’ ‘학교 선거 후보자로 나가기’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29이다.

⑦ 정치적 자기 효능감

일상 속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고자 강수영(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를 검증한 정치적 자기 효능감 척도(PSE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치적 자신감을 측정하는 7개 문항과 고난도의 정치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7개 문항 등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음, 2점=그렇지 않음, 3점=그려함, 4점=매우 그려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정치적 자신감을 측정하는 세부 문항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과 달리, 아무리 어려운 정치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뉴스를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금세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으며 고난도의 정치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세분 문항으로는 ‘가능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소식은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복잡한 정치 소식을 읽거나 보는 일을 가능한 피하려고 한다,’ ‘잘 모르는 시사 뉴스를 접하더라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⑧ 학교 내 참여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학교 내 참여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참여 의지를 측정하고자 총 5개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문항별 참여 의지를 4점 척도(1점=전혀 안 할 것 같음, 2점=잘 안 할 것 같음, 3점=상당히 할 것 같음, 4점=매우 할 것 같음)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하기,’ ‘학급 임원이나 전교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기,’ ‘학생회 회의에서 토의에 참여하기’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32이다.

⑨ 미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미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참여 의지를 측정하고자 총 10개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문항별 참여 의지를 4점 척도(1점=전혀 안 할 것 같음, 2점=잘 안 할 것 같음, 3점=상당히 할 것 같음, 4점=매우 할 것 같음)로 평정하게 하였다. 여기서 미래란 응답자가 어른이 됐을 때를 의미하며 10개 문항은 투표와 관련된 소극적 참여 활동 3가지와 선거 운동, 환경 운동, 사회운동, 선거 출마 등 적극적 참여 활동 7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우리나라 선거(예: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서 투표 참여하기,’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기’ 등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지방 선거 후보로 나가기’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31이다.

⑩ 수업 중 토론을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

수업 중에 토론을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을 확인하고자 총 6개 문항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문항의 구현 수준을 4점 척도(1점=전혀 일어나지 않음, 2점=거의 일어나지 않음, 3점=가끔 일어남, 4점=자주 일어남)로 평정하게 하였다. 제시된 문항은 정규 수업 시간 중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토론이 발생한 상황을 공통으로 전제한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교실에서 토론한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문제를 토론하도록 권장하신다’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17이다.

⑪ 학교 민주주의 지수

응답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구현되는 민주주의 문화를 확인하고자 경기도 교육청이

개발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2.0 학생용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문항은 2021년의 초등용, 중등용 설문으로 두 설문 모두 동일한 3개 영역 24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은 민주적인 문화와 가치가 일상적인 학교생활 전반에 실현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민주적 공동체’ 영역의 8개 문항(1개 문항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 구성), 학교 운영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나 절차, 인적·물적 자원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민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학교 자치 체제’ 영역의 9개 문항(1개 문항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 구성),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 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민주적 교육과정’ 영역의 7개 문항(1개 문항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 구성)으로 구분된다. 본 실태조사에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 구성하는 3개 문항을 제외한 21개 문항이 사용됐고 각 문항의 구현 수준을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음, 2점=그렇지 않은 편임, 3점=그런 편임, 4점=매우 그러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영역별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민주적 공동체 영역의 경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규칙과 약속을 정한다,’ ‘우리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은 학교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한다’ 등이, 학교 자치 체제 영역의 경우 ‘우리 학교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등이, 그리고 민주적 교육과정 영역의 경우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등이 있다.

⑫ 학교에서의 정치·시민교육 경험

응답자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시민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7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학습경험을 4점 척도(1점=전혀 배우지 않음, 2점=조금 배움, 3점=어느 정도 배움, 4점=많이 배움)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선거에서 시민이 투표하는 방법,’ ‘지역의 문제해결을 돕는 방법,’ ‘다른 나라의 정치적 문제 및 사건’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18이다.

⑬ 교내 자치활동을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해 구현되는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7개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참여 경험 유무를 3점 척도(1점=전혀 한 적 없음, 2점=한 지 1년이 넘었음, 3점=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

로는 ‘학급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학급 임원 후보자나 학생회 후보자로 나가기,’ ‘친환경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16이며 원 설문에서 사용된 7개 활동 문항 중 1개는 연구진이 새롭게 만든 문항(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기)으로 갈음했다.

⑭ 학생 주도의 교내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효능감

학생 주도의 교내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효능감을 확인하고 응답자에게 총 5개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동의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 2점=동의하지 않음, 3점=동의함, 4점=매우 동의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여기서 집단효능감이란 공동체의 집단적 행동과 노력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본 설문에서는 학생들의 교내 정치참여 행위가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해석된다. 설문의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학교의 여러 일을 결정하는 데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 모임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21이다.

⑮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

응답자의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12개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참여 경험 유무를 3점 척도(1점=전혀 한 적 없음, 2점=안한 지 1년이 넘었음, 3점=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청소년 정당 단체 참여하기,’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참여하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하기’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15이다. 응답자에게 제시된 12개 문항 중 6개는 원 설문과 같으며 나머지 6개는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등)이다.

⑯ 학교 밖 사적 관계망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학교 밖 사적 관계망과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8개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경험 빈도를 4점 척도(1점=전혀(거의) 하지 않음,

2점=최소 한 달에 한 번, 3점=최소 일주일에 한 번, 4점=매일(거의 매일))로 평정하게 하였다. 여기서 사적 관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이란 부모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치 참여 경험을,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정치참여 경험과 관련한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등이 있으며 친구 사이에서의 정치참여 경험과 관련한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과 관련한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기,’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하기’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14이며 응답자에게 제시한 8개 문항은 원 설문의 일부 문항과 모상현 외(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Q8의 4번 보기를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⑰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인과 부모(보호자)의 관심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인과 부모(보호자)의 관심 정도를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본인, 어머니(또는 여자 보호자), 그리고 아버지(또는 남자 보호자)의 관심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관심 없음, 2점=별로 관심 없음, 3점=상당히 관심 있음, 4점=매우 관심 있음)로 평정하게 하였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설문의 Q10이다.

⑱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대화 대상과 빈도

응답자가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해 대화하는 대상과 빈도를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9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최근 1년간 각 문항과 발생한 대화 빈도를 4점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거의 하지 않음, 3점=가끔 함, 4점=자주 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친구,’ ‘부모님,’ ‘형제 또는 자매,’ ‘선배나 후배’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이지영 외(202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Q10이다.

⑲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정치 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사람, 매체 등)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12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대한 문항별 영향 수준을 4점 척도(1점=전혀

주지 않았음, 2점=별로 주지 않았음, 3점=어느 정도 주었음, 4점=매우 주었음)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친구,’ ‘부모님,’ ‘형제 또는 자매,’ ‘선배나 후배,’ ‘정치(선거)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모상현 외(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Q4이며 원 설문의 보기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본 조사 문항에 사용했다.

㉑ 학교 안팎 청소년 정치참여 저해 요인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7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 중 1, 2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학생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법이 부족하다,’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활동을 위한 기회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기구(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다.

㉒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학교 안팎에서 정치참여 및 시민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의 활성화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15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1점=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점=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점=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4점=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평정하게 하였다. 응답자에게 제시된 15개 문항은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교육 내용 5개와 학교 안에서의 교육 내용 10개로 구분된다. 학교 밖 교육의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감정, 리더십 교육’ 등이 있으며 학교 내 교육의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민주주의(민주주의 개념, 생활 속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환경(지구촌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 등이 있다. 특히 후자는 2015년 및 2022년 개정 사회과 및 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참여와 연계된 주요 학습 내용이다. 본 조사 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다.

㉓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도움 수준

21번 문항에 이어 학교 안팎에서 정치참여 및 시민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이 청소년

정치참여에 주는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4점 척도로(1점=전혀 도움이 안 됨, 2점=대체로 도움이 안 됨, 3점=대체로 도움이 됨, 4점=매우 도움이 됨) 교육 내용별 도움 수준을 평정하게 하였다. 본 조사 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다.

③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

22번 문항에서 1개 이상의 항목(교육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한 응답자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확인하고자 총 7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1, 2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항목으로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 방식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나는 학생(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다.

(2) 배경 문항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총 10개의 배경 문항을 설문하였다. 세부 조사 내용으로는 출생 연월, 학교급과 학년, 본인의 최종 기대 학력(본인이 기대하는 최종 학력 수준),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성원, 부모(보호자)의 출생 국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부모(보호자)의 최종 학력, 집에 소장하고 있는 서적 부수,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가정형편 등이 있다. 이 중 최종 기대 학력 조사 문항은 ICCS 2016년의 Q3,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성원 조사 문항은 ICCS 2016년의 Q7, 부모(보호자)의 출생 국가 조사 문항은 ICCS 2016년의 Q4, 부모(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모상현 외(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배문 1, 집에 소장하고 있는 서적 부수 조사 문항은 ICCS 2016년 Q11, 학생 학업성취 수준은 모상현 외(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배문 3(연구진 보기 수정), 가정형편은 모상현 외(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배문 2(연구진 보기 수정)를 사용했다.

3) 학교 설문조사 개요

(1) 학생 재적 현황

2023년 5월 1일 기준, 해당 학교의 재적 학생 규모를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2) 학생 유형별 재적 비율

2023년 5월 1일 기준, 해당 학교의 재적 학생 중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교육 급여 수혜 학생 등)의 학생, 2) 특수 교육 대상 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의 대략적인 구성 비율을 각각 4점 척도(1점=10% 미만, 2점=10% 이상~25% 미만, 3점=25% 이상~50% 미만, 4점=50% 이상)로 평정하게 하였다.

(3) 교원 재적 현황

2023년 5월 1일 기준, 해당 학교의 재적 교원 규모를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4) 교원 유형별 재적 비율

2023년 5월 1일 기준, 해당 학교의 재적 교원 중 1) 경력 15년 미만에 해당하는 교사 비율, 2)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비율, 3) 박사학위 소지 교사 비율을 각각 4점 척도(1점=10% 미만, 2점=10% 이상~25% 미만, 3점=25% 이상~50% 미만, 4점=50% 이상)로 평정하게 하였다.

(5) 학교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학교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8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사회나 정치, 시민 제도에 대한 지식 증진’, ‘환경 보전과 존중 의식 증진’,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줄 아는 능력 개발’,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 개발’,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지역사회 참여 독려’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학교 설문문의 Q10이며 원 설문의 보기 중 일부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했다.

(6)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

학교에서 운영되는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5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해당 여부를 ‘예’, ‘아니오’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하여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의 담당 교사가 지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과(예: <역사, 지리, 법, 경제 등>) 담당 교사가 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에 포함하여 지도’, ‘교과 외 활동으로 지도’, ‘총체적으로 학교 경험의 결과로 간주’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학교 설문의 Q10이며 원 설문의 보기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했다.

(7) 학교의 시민교육 운영 자율성

학교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데 학교에 보장된 자율성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7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자율성 행사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자율적이지 않음, 2점=거의 자율적이지 않음, 3점=상당히 자율적임, 4점=완전히 자율적임)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선택’, ‘학생 평가 절차 및 도구 수립’,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 연수의 내용 결정’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학교 설문의 Q7이며 원 설문의 보기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했다.

(8)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의 참여 활동 운영 빈도

학교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이 직접 참여하거나 수행하는 참여 활동을 학교가 얼마나 자주 운영하는지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6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수행 빈도를 4점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가끔 함, 3점=자주 함, 4점=매우 자주 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학생들은 학교 밖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에 참여함’,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모둠 활동을 함’, ‘학생들은 역할 놀이에 참여함’, ‘학생들은 최근 이슈에 대해 논쟁함’, ‘학생들은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제안함’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교사 대상 설문³⁴⁾의 Q17이며 원 설문의 보기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했다.

(9) 지역사회 시민 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여 실태

학교 시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학생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시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8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참여 빈도를 4점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가끔 함, 3점=자주 함, 4점=매우 자주 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34) ICCS 설문은 응답 주체에 따라 학생용, 학교용(교장), 교사용으로 구분된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한 활동’, ‘인권 프로젝트’,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내 다문화 활동’, ‘캠페인 활동’, ‘정치적 기관 방문’, 지역사회 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학교 설문문의 Q4이며 원 설문의 보기 중 일부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했다.

(10)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지원 환경

학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학교 구성원의 참여 수준, 원활한 참여를 위한 지원 환경(기회 및 정보 제공 등)을 확인 확인하고자 응답자에게 총 6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별 구현 정도를 4점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가끔 함, 3점=자주 함, 4점=매우 자주 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세부 제시 문항으로는 ‘교사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학부모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학생의 의견은 의사결정과정에 고려됨’, ‘학생에게 학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짐’, ‘학부모는 학교와 학생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등이 있다. 본 조사 문항의 출처는 ICCS 2016년 학교 설문문의 Q8이며 원 설문의 보기를 수정 없이 사용했다.

아래 표는 이상의 학생 조사 문항과 학교 조사 문항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며 특히 학생 조사 개요의 마지막 열(구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좋은 시민성의 6개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사회질서, 연대, 평등, 애국을 측정하는 조사 문항과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을 측정하는 조사 문항을 색인하였다.

표 IV-3 조사 문항 개요

구분		문항	내용	구분
학생 조사	시민성 및 정치 참여	문항 1	참여, 자율, 연대, 사회질서에 대한 태도	시민적 가치 규범: 참여, 자율, 연대, 사회질서 · 참여: 1), 2), 7), 8), 9), 10) · 자율: 3), 4), 6), 15) · 연대: 16), 17) · 사회질서: 5), 11), 12), 13), 14)
		문항 2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시민적 가치 규범: 평등
		문항 3	인종 평등에 대한 태도	

구분	문항	내용	구분
	문항 4	권력 기구에 대한 신뢰	시민적 가치 규범: 사회질서
	문항 5	국가에 대한 자긍심	시민적 가치 규범: 애국
	문항 6	시민적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	
	문항 7	정치적 자기 효능감	
	문항 8	학교 내 참여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문항 9	미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시민적 가치 규범: 참여
	문항 10	수업 중 토론을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	학교 안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문항 11	학교 민주주의 지수	
	문항 12	학교에서의 정치·시민교육 경험	
	문항 13	교내 자치활동을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	
	문항 14	학생 주도의 교내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효능감	
	문항 15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	
	문항 16	학교 밖 사적 관계망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문항 17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인과 부모(보호자)의 관심	
	문항 18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대화 대상과 빈도	
	문항 19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문항 20	학교 안팎 청소년 정치참여 저해 요인	
	문항 21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문항 22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도움 수준	
	문항 23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	
	문항 1	출생 연월	
	문항 2	학교급 및 학년	
	문항 3	본인의 최종 기대 학력	
	문항 4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성원	
배경 문항	문항 5	부모(보호자)의 출생 국가	
	문항 6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문항 7	부모(보호자)의 최종 학력	
	문항 8	가정 내 소장 서적 부수	
	문항 9	학생 학업성취 수준	
	문항 10	가정형편	

구분		문항	내용	구분
학교 조사	학교 특성	문항 1	학생 재적 현황	
		문항 2	학생 유형별 재적 비율	
		문항 3	교원 재적 현황	
		문항 4	교원 유형별 재적 비율	
		문항 5	학교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문항 6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	
		문항 7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자율성	
		문항 8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의 참여 활동 운영 빈도	
		문항 9	지역사회 시민 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여 실태	
		문항 10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지원 환경	

5. 실태조사 기초 분석 결과

1) 시민성

본 연구는 2장에서 시민성 이론에 대한 방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민성의 개념을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 규범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 총 6가지를 도출하였다. 이중 참여와 자율은 참여적 시민의 핵심 가치 규범으로, 연대와 평등은 정의 지향적 시민의 가치 규범으로, 그리고 사회질서와 애국은 책임 이행적 시민의 핵심 가치 규범에 해당한다.

표 IV-4 시민성 개념과 구성요소

구분			설명
시민성의 개념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의 가치로 구성
좋은 시민의 유형 및 규범	참여적 시민	참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및 실천
		자율	민주주의적 숙의를 위한 지식 습득과 타인의 의견 존중
	정의 지향적 시민	연대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
		평등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 존중
	책임 이행적 시민	사회질서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
		애국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본 연구는 이상의 가치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적 태도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성을 가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

좋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가치 규범인 참여,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며 초·중·고생의 경우 각각 평균 2.68점, 2.57점, 2.62점을 기록해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점수가 높았는데 이러한 집단 평균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초등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순서로 낮았다는 의미다. 다만 초·중·고생의 집단 평균이 모두 3점을 밑돌고 있으므로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해 절대적 맥락³⁵⁾의 수용적 태도는 어느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자율

좋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가치 규범인 자율, 즉 '민주주의적 숙의를 위한 지식 습득과 타인의 의견 존중'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중생의 경우 각각 평균 2.96점, 2.95점을, 고등학생은 평균 3.09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집단별 평균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집단 차이는 고등학생과 초·중생 간의 비교에 한정됐다. 또한 비록 근소한 집단 차이지만 고등학생의 집단 평균만이 3점을 웃돌고 있으므로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는 고등학생 집단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연대

좋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세 번째 가치 규범인 연대, 즉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35) 여기서 '절대적 맥락'이란 설문지의 응답 척도에서 긍정적(수용적) 태도에 해당하는 3점을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사용해 집단 평균을 해석한 것임. 집단 평균이 3점 이상이면 수용적, 3점 미만이면 그렇지 않다고 해석함.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고생의 평균이 각각 2.88점, 2.86점으로 집계됐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유의한 집단 차이는 초등학생과 중·고생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중·고생의 수용적 태도에는 차이가 없고 중·고생 모두 초등학생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세 집단 중 초등학생의 집단 평균만이 3점을 웃돌고 있으므로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 또한 초등학생 집단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4) 평등

좋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네 번째 가치 규범인 평등, 즉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중학생이 평균 3.45점, 고등학생이 평균 3.38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집단 평균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다. 다만 세 집단의 평균 점수가 모두 3점을 크게 웃돌고 있으므로 초·중·고생 모두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해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사회질서

좋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5번째 가치 규범인 사회질서, 즉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3.03점으로, 중학생 평균 2.79점과 고등학생 평균 2.67점을 웃돌았다. 이러한 집단 평균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세 집단 중 초등학생의 평균만이 3점을 웃돌고 있는 점은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가 초등학생 집단에 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애국

마지막으로 좋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6번째 가치 규범인 애국, 즉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에 대한 초·중·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평정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용성을 의미하는데 초등학교의 집단 평균은 3.68점으로, 중학생의 3.30점, 고등학교의 3.18점을 모두 웃돌았다. 이러한 집단 평균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다름이 확인됐는데 교급이 높아 질수록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초·중·고생의 집단 평균이 모두 3점을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절대적 맥락에서의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5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비교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참여적 시민	참여	a.초등학교	2.68	42.89*	2	8,649	a>c>b
		b.중학생	2.57				
		c.고등학교	2.62				
	자율	a.초등학교	2.96	64.24*	2	8,630	c>a,b
		b.중학생	2.95				
		c.고등학교	3.09				
정의 지향적 시민	연대	a.초등학교	3.31	438.56*	2	8,629	a>b,c
		b.중학생	2.88				
		c.고등학교	2.86				
	평등	a.초등학교	3.50	47.32*	2	8,640	a>b>c
		b.중학생	3.45				
		c.고등학교	3.38				
책임 이행적 시민	사회질서	a.초등학교	3.03	444.50*	2	8,649	a>b>c
		b.중학생	2.79				
		c.고등학교	2.67				
	애국	a.초등학교	3.68	695.52*	2	8,637	a>b>c
		b.중학생	3.30				
		c.고등학교	3.18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Scheffe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Dunnett C 검정을 사용

* $p<0.05$

지금까지 본 연구는 초·중·고생 집단이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의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해 보여주는 수용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하나의 그래프로 취합한 아래 그림에서 잘 드러나듯 자율을 제외한 여타 시민적 가치 규범에서 초등학교생 집단이 중·고생 집단보다 일관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한다. 반면 중·고생의 수용적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았고 특히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가 대부분의 가치 규범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전체 학생집단의 태도 추이를 살펴보면 6개의 가치 규범 중 평등과 애국 등의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 태도는 높지만, 유독 참여에 대한 수용 정도는 낮다는 것이 확인된다. 훗날 성인이 됐을 때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생 신분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학교나 지역사회 등)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예: 선거 출마, 투표, 정당 활동, 사회운동 등)에 대한 참여 의사 또는 실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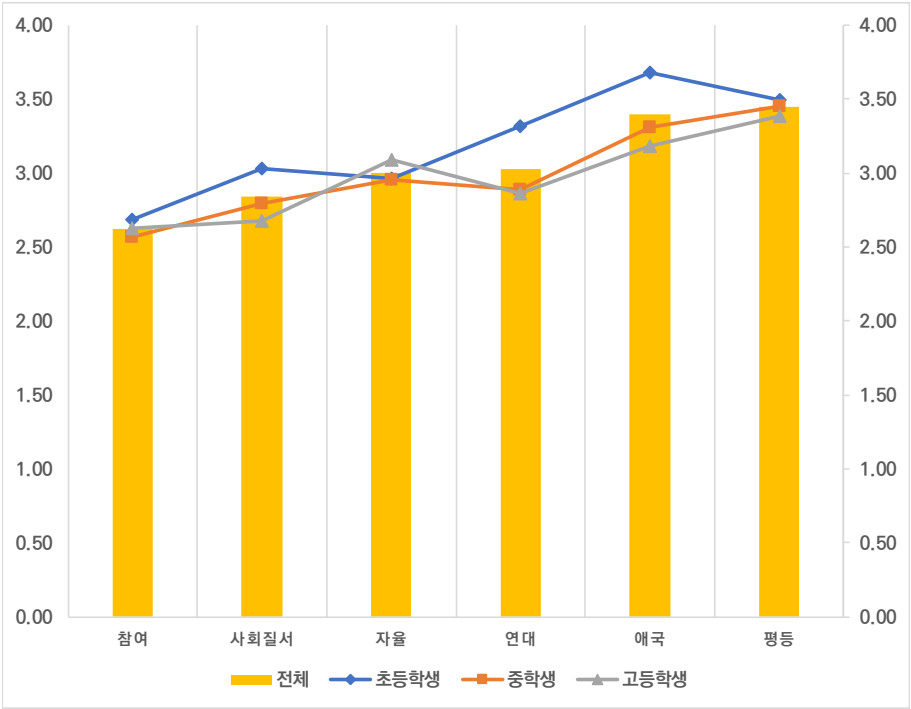


그림 IV-1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집단 평균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6개의 가치 규범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수용적 태도 점수를 활용해 해당 응답자의 참여적, 정의 지향적, 책임 이행적 성향을 계산하고 이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집계된 성향을 판별했는데 그 결과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구분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고 집단에서 정의 지향적 시민의 점유 비율은 각각 72.7%, 82.6%, 81.4%에 달한다. 반대로 참여적 시민의 점유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1.9%,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6.6%에 그쳤다. 앞서 참여라는 가치 규범에 대해 초·중·고생 집단이 공통으로 보여주었던 낮은 수용적 태도가 여기서도 확인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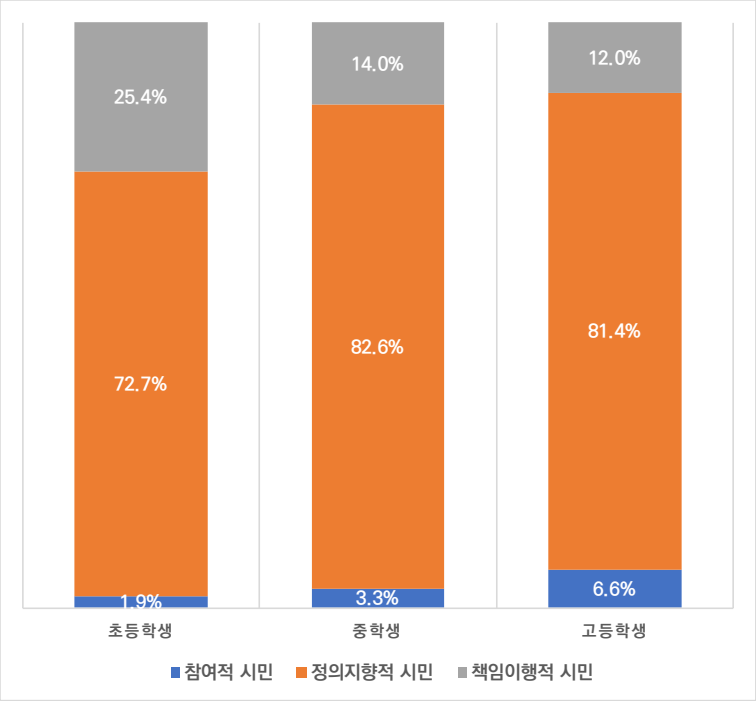


그림 IV-2 집단 내 세 가지 유형의 좋은 시민 점유율 비교

다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할 것은 본 연구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좋은 시민의 가치 규범 중 하나인 참여에 대한 초·중·고생 응답자들의 정의적 태도를 다루고 있을 뿐 실제 이들이 보유한 참여 역량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참여라는

가치 규범에 대한 정의적 수용 태도에 따라 현실에서의 실천 정도가 달라지는 개연성은 존재하나 수용 태도가 곧 실질적인 참여 역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시민성 이론에 대한 2장에서의 고찰에서 역설했듯 민주주의 사회의 좋은 시민은 참여적, 정의 지향적, 책임 이행적 시민으로 유형화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특성이 한 개인에게 반드시 균등한 비중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세 가지 특성을 골고루 보여주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어느 한 가지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시민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자 모두 좋은 시민임에는 다름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초·중·고생은 좋은 시민의 세 가지 유형 중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 존엄과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치참여 경험

본 연구는 정치참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2장에서의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여 표출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활동 공간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 오프라인 정치참여는 다시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의 정치참여로 구분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IV-6 청소년 정치참여 정의와 유형 구분

구분		내용	
정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	
유형	오프라인	학교 안 활동	교실 및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학급 토론 참여, 학생회 임원 활동 등)
		학교 밖 활동	가정, 지역사회 등 학교 밖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정치적 이슈에 관한 부모님과의 대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활동 등)
	온라인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예: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이슈 관련 정보 수집,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이슈 관련 의견 게시 등)	

이러한 유형 구분에 따른 초·중·고생의 참여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오프라인 학교 안: 수업 중 토론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

학교급을 기준으로 볼 때 수업 중 토론으로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초등학생이었다. 이들의 평균은 3.12점으로 중학생의 2.71점, 고등학생의 2.59점을 크게 웃돌았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이러한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수업 시간 중 정치·사회 이슈를 토론하며 정치참여의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2) 오프라인 학교 안: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경험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은 보기 활동별로 '전혀 한 적 없음'과 '안 한 지 1년이 넘었음'에 0점,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에 1점을 부여 후 전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 평균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평균은 각각 3.03점, 3.01점을 기록했다. 초등학생 대비 중·고생 집단 사이에는 점수 차가 없는데 실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는 초등학생과 중·고생 사이에서만 확인됐다. 중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내 자치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3) 오프라인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경험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은 보기 활동별로 '전혀 한 적 없음'과 '안 한 지 1년이 넘었음'에 0점,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에 1점을 부여 후 전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 양상과 크게 달랐다. 합산 점수는 최소 0점, 최대 12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초·중·고생의 집단 평균은 각 0.73점, 0.64점, 0.62점으로 모두 1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1년 안에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해 쌓은 정치참여 경험이 초·중·고생 모두 채 1건도 안 됨을 보여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집단 평균 차이의 유의성은 나타났지만, 사후검정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4) 오프라인 학교 밖: 사적 관계망을 통한 정치참여 경험

학교 밖에서 친구 또는 가족 등과 국제·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대화 및 토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 빈도는 고등학생이 평균 1.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중·생은 각각 1.72점, 1.70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집단 평균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설문 의 원칙도를 고려하면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설문에서 1점은 ‘전혀(거의) 하지 않음’, 2점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이다. 초·중·고생의 집단 평균이 모두 2점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평소 한 달에 채 한 번도 안 되는 빈도로 국제·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하고 있어 사적 관계망에서의 정치참여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 빈도는 고등학생이 평균 1.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중생은 각각 1.40점, 1.43점을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정치참여 경험 중 가장 저조한 활동 실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평균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됐지만 사적 관계망에서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의 사례와 같이 실제적 의미는 없다. 집단 평균이 2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초·중·고생 집단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평소 거의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IV-7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 경험 비교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학교 안	수업 중 토론을 통한 정치참여	a.초등학생	3.12	516.72*	2	8,620	a)b>c
		b.중학생	2.71				
		c.고등학생	2.59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a.초등학생	3.43	35.61*	2	8,629	a)b,c
		b.중학생	3.01				
		c.고등학생	3.03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a.초등학생	0.73	3.16*	2	8,616	유의성 미발견
		b.중학생	0.64				
		c.고등학생	0.62				
	사적 관계망을 통한 정치참여	a.초등학생	1.72	4.23*	2	8,615	c)a,b
		b.중학생	1.70				
		c.고등학생	1.87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온라인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a.초등학생	1.40	69.37*	2	8,614	c)a,b
		b.중학생	1.43				
		c.고등학생	1.58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Scheffe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Dunnett C 검정을 사용

* $p < 0.05$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정치참여의 5가지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이 학교 안팎 및 온라인 등에서 경험하는 정치참여 실태를 살펴보았다. 학교 안에서는 초등학생 집단의 참여 경험이 두드러졌지만, 학교 밖, 특히 친구나 부모 등과 같은 사적 관계망에서의 경험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경험은 고등학생 집단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학교 밖과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은 초·중·고생 공통으로 저조했다. 이러한 대조는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치참여 공간이 현실적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아래 그림은 초·중·고생 집단별로 어떤 유형의 정치참여 경험이 두드러지고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다.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 경험을 평정하는 데 사용된 응답 척도와 내용이 문항에 따라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 유형별 참여 수준의 평정 결과를 T 점수로 일괄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됐다.

T 점수 비교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치참여 경험은 학교 내 수업 중 토론이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은 가장 적었다. 고등학생의 정치참여 경험은 초등학생과 전혀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공간이나 학교 밖 사적 관계망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 경험이 가장 활발했지만, 수업 중 토론을 통해 구현되는 정치참여 경험은 가장 저조했다. 중학생 집단에서는 유형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다. 다만 T 점수의 특성(평균: 50점)상 중학생 집단의 정치참여 경험이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50점을 밑돌고 있는 것은 초·중·고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중학생 집단의 정치참여 경험이 학교 안팎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각 학생집단에서 T 점수가 50점에 못 미치는 정치참여 경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밖 사적 관계망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가,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 참여기구를 통한 정치참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정치참여는 각 집단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우선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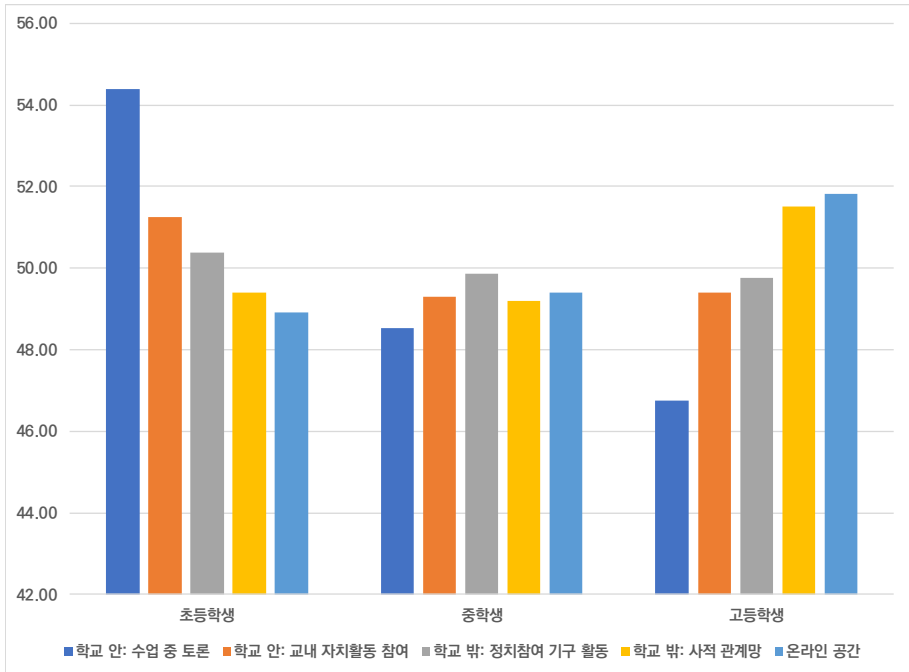


그림 IV-3 정치참여 유형에 따른 경험 수준(T 점수)의 집단 내 편차

3) 시민성 및 정치참여 경험 관련 변인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성을 구성하는 주요 가치 규범에 대한 학생 청소년의 태도, 학교 안팎 및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에 대한 설문 외에도 이러한 가치관과 경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환경)도 설문하였다. 이러한 변인으로는 참여 효능감, 소속 학교의 민주적 문화 구현 수준,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과 보호자의 관심, 본인의 정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 및 매체,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현행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 수준 및 효과성 등이다.

(1) 참여 효능감

본 연구에서 참여 효능감은 시민적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 정치적 자기 효능감, 학생 주도의 교내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효능감 등으로 구분해 측정됐다. 먼저 시민적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응답자가 학교 안팎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 연설,

기고, 후보자 출마 등 시민적 참여 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것 같은지를 측정하는데 학교급별 평균 점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평균이 2.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집단 평균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4점 척도로 평정한 설문에서 3점 이상이 긍정적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적 참여 활동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집단 자신감은 어떤 학교급 집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적 자신감(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 분석, 지식과 관련해 응답자가 보여주는 자신감)과 고난도의 정치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통해 측정되는데 이러한 정치적 효능감은 고등학생의 집단 평균이 2.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초등학교가 2.38점, 중학생이 2.34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집단 평균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앞에서 시민적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 설문과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 평정한 설문에서 긍정적 효능은 3점 이상부터다. 따라서 학교급에 상관없이 초·중·고생 공통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지식수준은 물론 고난도의 정치과제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집단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의 교내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효능감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집단 평균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평균은 각각 3.22점, 3.18점으로 집계됐다. 4점으로 평정한 설문에서 3점 이상이면 긍정적 인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중·고생 모두 학생이 주도하는 다양한 교내 정치참여 활동(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 학생회 조직, 집단 활동, 학생 선거 투표 등)이 학교를 긍정적(학생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표 IV-8 참여 효능감의 비교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시민적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	a.초등학교	2.45	47.07*	2	8,638	a>c>b
	b.중학생	2.28				
	c.고등학교	2.39				
정치적 자기 효능감	a.초등학교	2.38	16.77*	2	8,621	c>a>b
	b.중학생	2.34				
	c.고등학교	2.42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교내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효능감	a.초등학생	3.22	16.36*	2	8,625	c)a>b
	b.중학생	3.18				
	c.고등학생	3.26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Scheffe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Dunnett C 검정을 사용

* $p<0.05$

(2) 소속 학교의 민주적 문화(학교 민주주의) 구현 수준

학교 민주주의 지수 2.0 도구를 이용해 초·중·고생들이 체감하는 소속 학교의 민주적 문화(학교 민주주의) 구현 수준을 측정한 결과 초등학생 집단의 평정 점수가 3.0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평균 2.96점, 2.95점을 기록했는데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중·고생 집단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유의한 차이는 초등학생과 중·고생 집단 사이에만 존재했다. 다만, 4점 척도로 평정된 본 설문에서 3점 이상은 응답자의 긍정적 인식을 반영하므로 초·중·고생 응답자 대다수는 일상적 학교생활 영역에서만 아니라 학교 운영 및 의사결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 등 학교 전반에 걸쳐 나름의 민주적 문화와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9 학교 민주주의 지수 비교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소속 학교의 민주적 문화 (학교 민주주의) 구현 수준	a.초등학생	3.04	26.31*	2	8,627	a>b,c
	b.중학생	2.96				
	c.고등학생	2.95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Scheffe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Dunnett C 검정을 사용

* $p<0.05$

(3)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과 보호자의 관심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보호자와 자신의 관심 정도를 평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응답자 본인의 관심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이 각각 2.26점, 2.23점으로 유사했

고 중학생이 평균 2.05점으로 전자의 두 집단보다 낮았다. 실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전자의 두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없었고 중학생의 집단 평균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다만 4점 척도로 관심 수준을 평정한 본 설문에서 3점 이상이 긍정적 응답에 해당하므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초·중·고 집단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중학생 집단의 무관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IV-10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과 보호자의 관심 비교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본인	a.초등학생	2.26	45.39*	2	8,518	a,c>b
	b.중학생	2.05				
	c.고등학생	2.23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	a.초등학생	2.92	40.40*	2	6,775	a>b,c
	b.중학생	2.75				
	c.고등학생	2.72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	a.초등학생	3.13	12.07*	2	6,778	a>b,c
	b.중학생	3.02				
	c.고등학생	3.03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Scheffe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Dunnett C 검정을 사용

*p<0.05

어머니 또는 여성 보호자의 관심도 학교급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초등학생의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 집단의 평균은 2.92점으로 평균 2.75점과 2.72점의 중·고생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아버지 또는 남성 보호자의 관심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남녀 보호자 집단의 관심은 초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고 중·고생 집단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와 더불어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보호자와 학생 당사자의 관심에서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보호자의 관심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관심 수준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자 성별에 상관없이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수준에 비례하여 학생 응답자의 관심 정도가 변화하는데 특히 보호자가 여성일 때 상관관계수의 크기가 남성일 때에 비해 더 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참여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북돋는 데 있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IV-1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과 보호자 관심의 상관관계

구분		상관계수
본인	어머니(여성 보호자)	0.45**
	아버지(남성 보호자)	0.38**
	남녀보호자	0.45**

** $p < 0.01$ (양측검정)

(4) 본인의 정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 및 매체

학생의 정치 견해 형성에 있어 주변 사람들과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의 평정 결과에 대한 개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평균 영향력이 3점을 웃도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의 정치 견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떤 주변인과 매체도 절대적 맥락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적 맥락³⁶⁾에서 보면 전체 평가 대상 중 부모님과 언론매체의 영향력이 높게 평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력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수준과 학생의 관심 수준 사이의 정적 상관 관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유독 초등학생의 평정 점수가 부모님의 영향력에 상당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참여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과 실천 역량 학습에 있어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못지않게 중요함을 의미한다. 언론매체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평정 점수가 유의하게 커졌는데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치 견해 형성 및 정치참여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병행되어야 하는지를 방증한다.

표 IV-12 자신의 정치 견해 형성에 있어 주변 사람들과 매체가 미친 영향력 비교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친구	a.초등학생	1.95	42.14*	2	8,588	c)b>a
	b.중학생	2.08				
	c.고등학생	2.19				

36) 여기서 '상대적 맥락'이란 여타 집단 평균과 비교했을 때라는 의미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부모님	a.초등학생	2.75	8.40*	2	8,583	a>b,c
	b.중학생	2.65				
	c.고등학생	2.67				
형제·자매	a.초등학생	1.76	11.13*	2	8,528	b,c>a
	b.중학생	1.86				
	c.고등학생	1.87				
할머니·할아버지	a.초등학생	2.10	47.71*	2	8,571	a>b>c
	b.중학생	1.99				
	c.고등학생	1.84				
학교 선생님	a.초등학생	2.43	291.96*	2	8,578	c>b>a
	b.중학생	1.99				
	c.고등학생	1.81				
선·후배	a.초등학생	1.53	9.39*	2	8,572	b>a
	b.중학생	1.62				
	c.고등학생	1.57				
친척	a.초등학생	1.78	19.26*	2	8,578	a>b>c
	b.중학생	1.72				
	c.고등학생	1.64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a.초등학생	1.36	87.84*	2	8,565	b,c>a
	b.중학생	1.57				
	c.고등학생	1.62				
학원 선생님	a.초등학생	1.88	66.94*	2	8,555	a>b,c
	b.중학생	1.69				
	c.고등학생	1.61				
언론매체	a.초등학생	2.23	156.60*	2	8,562	c>b>a
	b.중학생	2.54				
	c.고등학생	2.71				
정치(선거) 수업 혹은 프로그램	a.초등학생	2.07	26.17*	2	8,575	b,c>a
	b.중학생	2.25				
	c.고등학생	2.22				
독서	a.초등학생	2.07	0.61	2	8,575	차이 없음
	b.중학생	2.05				
	c.고등학생	2.08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Scheffe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Dunnett C 검정을 사용

* $p<0.05$

아래 그림은 초·중·고생의 정치 견해 형성에 있어 주변 사람들과 매체가 미친 영향력의 집단 내 편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초·중·고생별로 어떤 요인이 해당 집단의 정치 견해 형성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세 집단 모두 부모님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평정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초등학생 집단의 경우 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는 언론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정치(선거) 수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교육의 영향력도 컸다.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중학생 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에 비춰볼 때 학생의 정치참여 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은 학교급에 따라 달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량 증진이, 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및 정치(선거)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강화가 필요하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화된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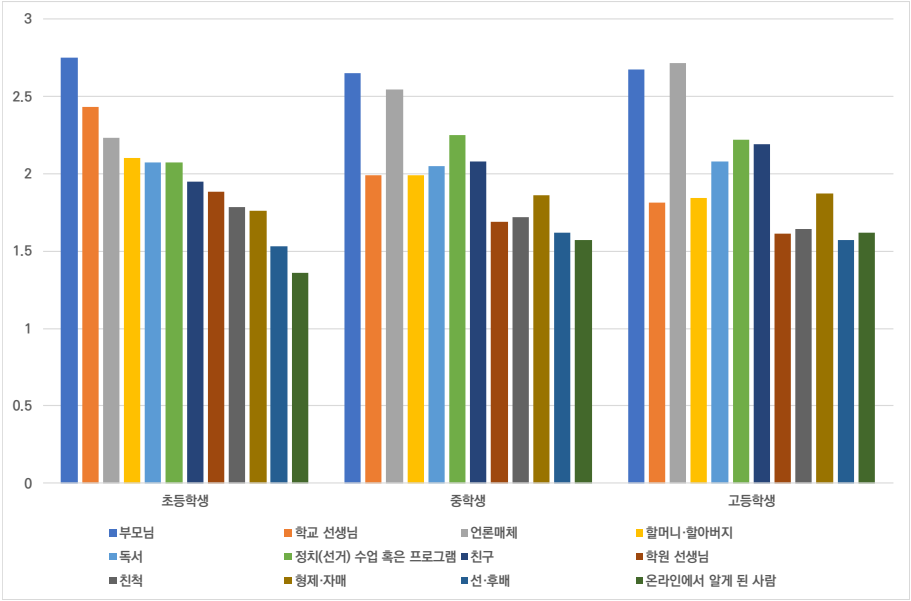


그림 IV-4 자신의 정치 견해 형성에 있어 주변 사람들과 매체가 미친 영향력의 집단 내 편차

(5)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아래 그림은 저해 요인에 대한 다중 응답(1, 2순위) 결과를 초·중·고생별 그리고 초·중·고생 전체의 반응 백분율로 집계한 결과다. 먼저 초·중·고생 전체의 응답 결과를 놓고 보면 ‘기회와 정보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체 응답의 23.3%로 가장 많았고 ‘학생 정치참여 지원법의 부족’이 18.7%, ‘학생 정치참여에 대한 학교 교육의 부족’이 16.3%, ‘학교 구성원의 무관심’이 15.4%, 그리고 ‘참여기구의 역할 부족’이 12.3%를 차지했다. ‘학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학교에 의한 제한’ 등은 각각 8.4%, 5.7%로 비중이 작았다.

학교급별 응답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일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교차분석을 했을 때는 문제 인식이 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결과가 확인됐다($X^2(12)=177.42$, $p<(0.001)$). 이에 본 연구는 수정된 표준화 잔차(adjusted standardized residuals)³⁷⁾를 통해 세 집단의 문제 인식이 뚜렷하게 갈리는 영역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학생 정치참여 지원법의 부족’과 관련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문제 인식이 매우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자가 해당 요인을 매우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참여 관련 학교 교육의 부족과 관련해 중·고생 집단은 초등학생과 매우 상반된 문제 인식을 보여주었다. 기회와 정보 부족의 경우 고등학생의 문제 인식이 도드라지고 학생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고등학생에게서 두드러진다. 학교의 참여기회 제한에 대한 문제 인식은 중학생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고 참여기구의 역할 부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문제 인식과 집단 간의 연관성 정도를 보여주는 Cramer’s V값이 0.07($p<(0.001)$)에 불과하므로³⁸⁾ 실제 집단에 따른 문제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7) 각 셀의 관측 카운트와 기대 카운트 간의 차이를 표준 오차의 추정치로 나눈 값으로 절댓값이 3보다 큰 셀은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에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38) Cramer’s V값이 0.2 이하면 두 변인 간의 연관성은 작은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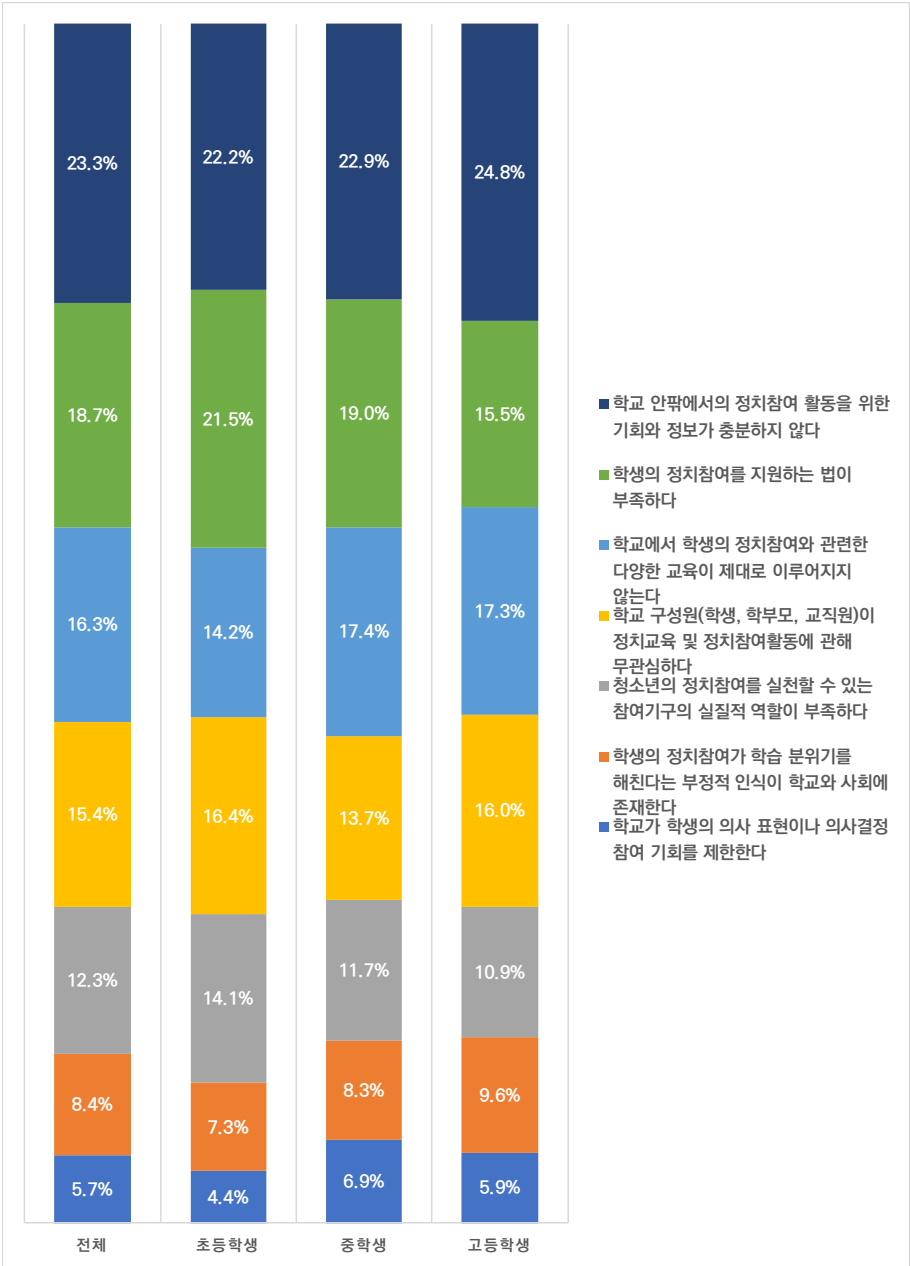


그림 IV-5 학생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에 관한 생각 비교

표 IV-13 학생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에 대한 문제 인식의 경향성 비교

구분	집단	수정된 표준화 잔차
학생 정치참여 지원법의 부족	a.초등학생	6.5
	b.중학생	0.8
	c.고등학생	-7.4
학생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학교 교육의 부족	a.초등학생	-5.3
	b.중학생	2.8
	c.고등학생	2.6
기회와 정보의 부족	a.초등학생	-2.4
	b.중학생	-0.7
	c.고등학생	3.1
학생 정치참여에 대한 학교·사회의 부정적 인식	a.초등학생	-3.7
	b.중학생	-0.3
	c.고등학생	4.1
학교 구성원의 무관심	a.초등학생	2.7
	b.중학생	-4.3
	c.고등학생	1.6
학교의 참여기회 제한	a.초등학생	-5.3
	b.중학생	4.7
	c.고등학생	0.5
참여기구의 역할 부족	a.초등학생	5.3
	b.중학생	-1.6
	c.고등학생	-3.8

주1. 잔차의 절댓값이 3보다 크면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6)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시민성을 주제로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에 대한 초·중·고생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밖 교육의 사례로 제시된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일반 선거 교육, 청소년 정치학교, 민주시민교육, 인성, 감정, 리더십 교육 등의 활성화 수준과 관련해 초등학생 집단의 평가가 중·고생 집단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그러나 본 설문에서 4점 척도(1점=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점=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점=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4점=매우 잘 이루어지

고 있음)로 각 교육의 활성화 수준을 평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중·고생 집단 모두 학교 밖 교육의 활성화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 안 교육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해당 교육 내용은 현행 교과 과정에서 정치·시민교육 관련 학습 주제로 구분되는데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집단이 중·고생 집단보다 학교 안 교육의 활성화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만, 전반적인 평정 추이를 볼 때 학교 밖 교육에 상응하는 낮은 평정 결과가 일부 교육 내용에서 발견되고 있다. ‘정치제도와 참여’, ‘국제 정치와 공존’,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교육 내용은 ‘민주주의’, ‘생활과 법’, ‘사회계층과 불평등’,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 등 여타 교육 내용과 비교했을 때 학교급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IV-14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비교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학 교 밖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a.초등학생	2.47	40.00*	2	6,275	a)b>c
		b.중학생	2.34				
		c.고등학생	2.22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일반 선거 교육	a.초등학생	2.84	37.79*	2	7,301	a)b>c
		b.중학생	2.72				
		c.고등학생	2.61				
	학교 밖 (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청소년 정치학교	a.초등학생	2.46	59.20*	2	6,152	a)b>c
		b.중학생	2.29				
		c.고등학생	2.14				
	학교 밖 (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민주시민교육	a.초등학생	2.55	67.84*	2	6,265	a)b>c
		b.중학생	2.36				
		c.고등학생	2.22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감정, 리더십 교육	a.초등학생	2.89	131.95*	2	7,021	a)b>c
		b.중학생	2.61				
		c.고등학생	2.45				
학 교 안	민주주의	a.초등학생	2.99	19.96*	2	7,698	a,b>c
		b.중학생	3.00				
		c.고등학생	2.86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정치제도와 참여	a.초등학생	2.71	17.59*	2	7,366	a)b>c
	b.중학생	2.63				
	c.고등학생	2.56				
국제 정치와 공존	a.초등학생	2.73	9.07*	2	7,376	a,b>c
	b.중학생	2.71				
	c.고등학생	2.63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a.초등학생	2.73	7.05*	2	7,522	a>c
	b.중학생	2.69				
	c.고등학생	2.63				
생활과 법	a.초등학생	3.16	81.81*	2	7,849	a)b>c
	b.중학생	3.02				
	c.고등학생	2.85				
사회계층과 불평등	a.초등학생	3.00	13.59*	2	7,682	a,b>c
	b.중학생	2.96				
	c.고등학생	2.87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	a.초등학생	3.04	22.41*	2	7,693	a,b>c
	b.중학생	2.98				
	c.고등학생	2.87				
지속가능한 환경	a.초등학생	3.21	42.44*	2	7,850	a)b>c
	b.중학생	3.11				
	c.고등학생	2.99				
매체 이해와 사용	a.초등학생	2.91	4.73*	2	7,632	b>c
	b.중학생	2.94				
	c.고등학생	2.87				
논리적 사고	a.초등학생	2.98	12.44*	2	7,683	a,b>c
	b.중학생	2.97				
	c.고등학생	2.87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Scheffe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Dunnett C 검정을 사용

* $p < 0.05$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학교 안 교육보다는 학교 밖 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학생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고 학교 안 교육이라도 일부 교육 내용의 활성화 수준은

학교 밖 교육에 상당하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아래 그림 참조). 이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밖 교육이 청소년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체감 운영 정도가 덜한 학교 안 교육 내용도 해당 교과목 수업에 더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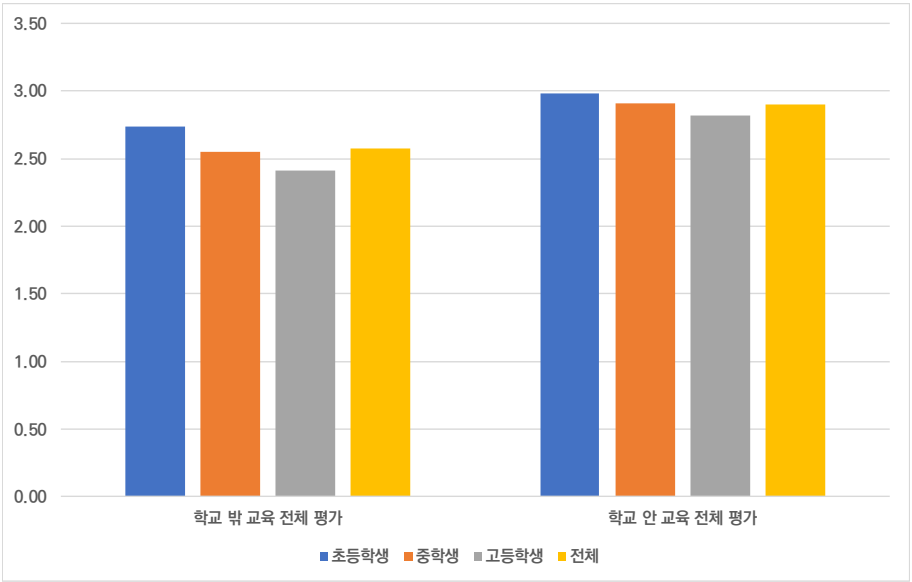


그림 IV-6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비교

(7)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도움 수준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교육이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실제 기여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학교 밖 교육의 정치참여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생이 중·고생 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본 설문에서 기여도에 대한 평정이 4점 척도(1점=전혀 도움이 안 됨, 2점=대체로 도움이 안 됨, 3점=대체로 도움이 됨, 4점=매우 도움이 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 밖 교육의 기여도에 대해 초·중·고생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 안 교육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초등학생 집단의 평정 점수가 가장 높아 이들이 중·고생보다 학교 안 교육의 실효성을 더 높게 사고 있지만

중·고생의 평정 수준 역시 3점에 상당하고 있어 초·중·고생 모두 학교 안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5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도움 수준 비교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학 교 밖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a.초등학생	21.61*	2	6,686	a>b,c
		b.중학생				
		c.고등학생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일반 선거 교육	a.초등학생	41.50*	2	7,301	a>b>c
		b.중학생				
		c.고등학생				
	학교 밖 (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청소년 정치학교	a.초등학생	29.25*	2	6,600	a>b,c
		b.중학생				
		c.고등학생				
	학교 밖 (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민주시민교육	a.초등학생	36.86*	2	6,658	a>b,c
		b.중학생				
		c.고등학생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감정, 리더십 교육	a.초등학생	110.29*	2	7,175	a>b>c
		b.중학생				
		c.고등학생				
학 교 안	민주주의	a.초등학생	19.14*	2	7,396	a>b>c
		b.중학생				
		c.고등학생				
	정치제도와 참여	a.초등학생	10.29*	2	7,305	a>b,c
		b.중학생				
		c.고등학생				
	국제 정치와 공존	a.초등학생	14.23*	2	7,320	a>b,c
		b.중학생				
		c.고등학생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a.초등학생	2.70	2	7,378	
		b.중학생				
		c.고등학생				

구분	집단	평균	t/F-test			사후검정 ¹
			t/F	df1	df2	
생활과 법	a.초등학생	3.20	73.06*	2	7,583	a)b)c
	b.중학생	2.99				
	c.고등학생	2.93				
사회계층과 불평등	a.초등학생	3.07	21.85*	2	7,519	a)b,c
	b.중학생	2.94				
	c.고등학생	2.92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	a.초등학생	3.11	38.73*	2	7,530	a)b,c
	b.중학생	2.96				
	c.고등학생	2.91				
지속가능한 환경	a.초등학생	3.24	80.63*	2	7,691	a)b)c
	b.중학생	3.04				
	c.고등학생	2.95				
매체 이해와 사용	a.초등학생	2.97	4.38*	2	7,446	a)c
	b.중학생	2.93				
	c.고등학생	2.90				
논리적 사고	a.초등학생	3.02	12.77*	2	7,478	a)b,c
	b.중학생	2.93				
	c.고등학생	2.91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Scheffe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Dunnett C 검정을 사용

* $p < 0.05$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학교 안 교육의 기여도가 학교 밖 교육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아래 그림을 통해 기여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부연하면 아래 그림은 초·중·고생 전체 응답자의 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만들어진 결과다. 가장 높은 기여도는 지구촌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학교 안 교육으로 평점 3.08점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이어 생활과 법에 대한 교육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3.04점을 기록하였다. 한국 정치사, 세계 정치사, 민주화 역사 등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에 대한 교육, 신분제도, 차별, 평등, 빈곤, 소수자 등 사회계층과 불평등에 대한 교육, 민주주의의 개념, 생활속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활용을 다루는 매체 이해와 사용에 대한 교육 등도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제도와 참여는 내용 면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학교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기여도가 학교 안 교육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안에서의 정치교육이 지식 학습에서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방증한다. 학교 정치교육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성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참여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동기 유발과 실천 장려가 학교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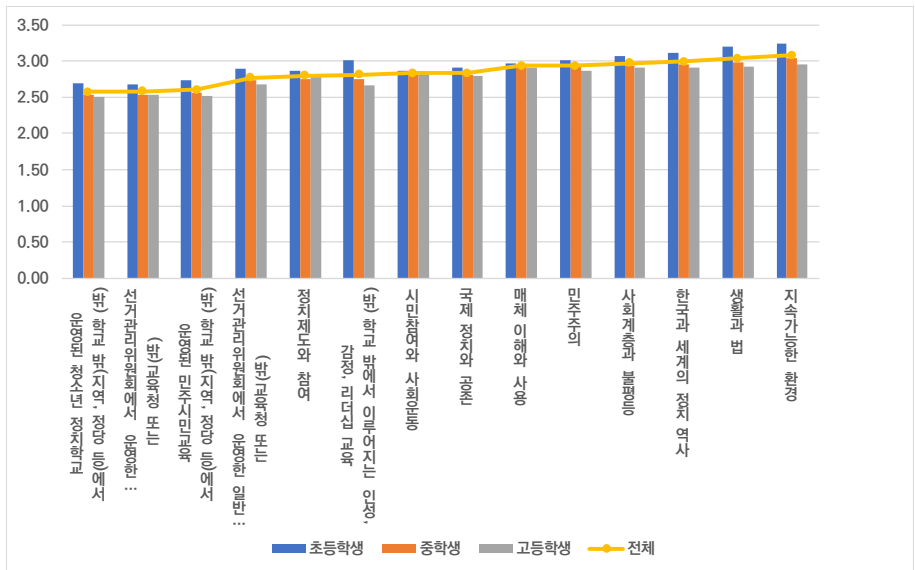


그림 N-7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도움 수준 비교

(8)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우리는 앞서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초·중·고생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즉, 15개 평정 항목 중 하나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인 인식을 보여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추가 조사한 결과다. 1, 2순위의 중복응답 결과를 학교급별로 취합했을 때 초·중생의 경우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교육 내용의 난해함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답에서 각각 26.2%, 21.7%를 차지했다. 반면 고등학생에게서는 교육 내용

과 현실(삶) 사이의 괴리 그리고 교육 시간과 기회의 불충분이 각각 20.1%로 가장 높았다. 다만, 초·중생 사이에서도 교육 내용과 현실(삶) 사이의 괴리 그리고 교육 시간과 기회의 불충분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눈여겨볼 결과는 응답자 스스로 청소년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한 경우가 전체 응답 기준으로 13.9%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응답의 경우 16.9%, 중학생 응답의 경우 14.4%, 고등학생 응답의 경우 10.3%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청소년 정치참여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외적 요인(교육, 사회 분위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참여 당사자인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와 같은 내적 요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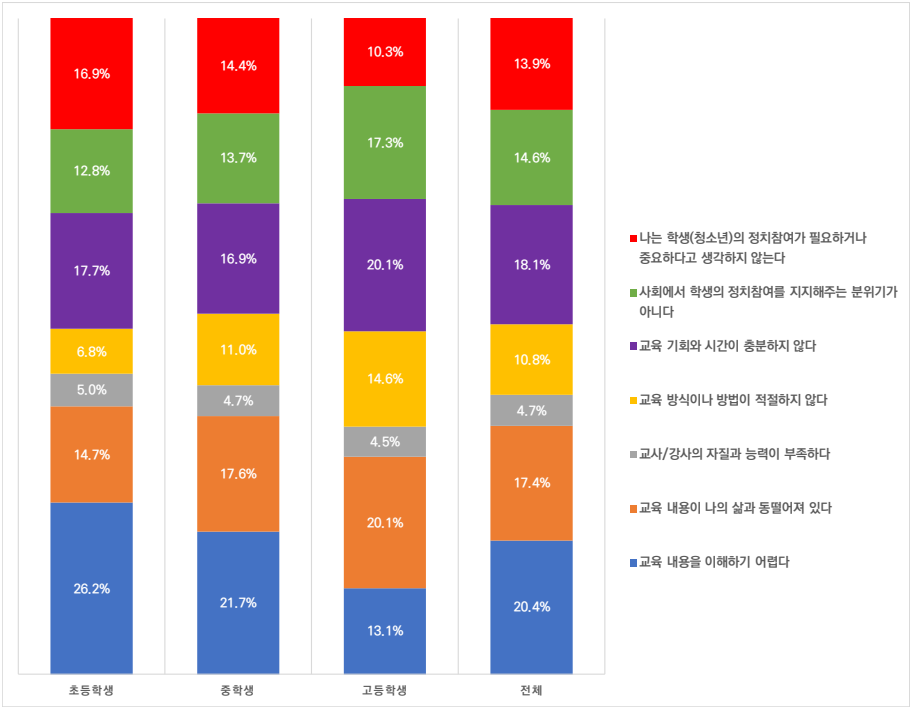


그림 IV-8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중복응답 취합 결과)

다른 한편으로 초·중·고생의 문제 인식에서 차이점도 분명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문제 인식과 학교급 간의 교차분석을 시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는데(X^2

(12)=245.68, $p<0.05$) 아래의 수정된 표준화 잔차(adjusted standardized residuals)³⁹⁾는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절댓값이 3보다 큰 잔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초등학생에게는 교육 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 제기 경향이 중·고생에 비해 컸고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 방식의 문제와 더 나아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의 문제에 문제의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청소년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중·고생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표 IV-16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의 학교급별 경향성 비교

구분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 내용이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	교사/강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	교육 방식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교육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사회에서 학생의 정치참여를 지지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나는 학생(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초등학생	8.3	-4.3	0.7	-7.4	-0.8	-3.0	5.1
중학생	2.0	0.3	-0.2	0.3	-2.1	-1.5	0.9
고등학생	-10.5	4.0	-0.5	7.1	2.9	4.5	-6.1

4)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⁴⁰⁾

(1) 학교의 핵심 시민교육 목표

초·중·고에서 운영되는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교급에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갈등 해결 능력’이 각각 32.8%, 28.5%로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였고 중학교에서도 동일 목표의 점유율이 각각 41.6%, 15.9%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이 40.3%로 가장 높았고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이 두 번째로

39) 각 셀의 관측 카운트와 기대 카운트 간의 차이를 표준 오차의 추정치로 나눈 값으로 절댓값이 3보다 큰 셀은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에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40)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에 관한 내용은 학교 조사 데이터의 분석 결과임

높은 18.1%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유율은 현재 전국의 초·중·고에서 운영되는 학교 시민교육의 방점이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에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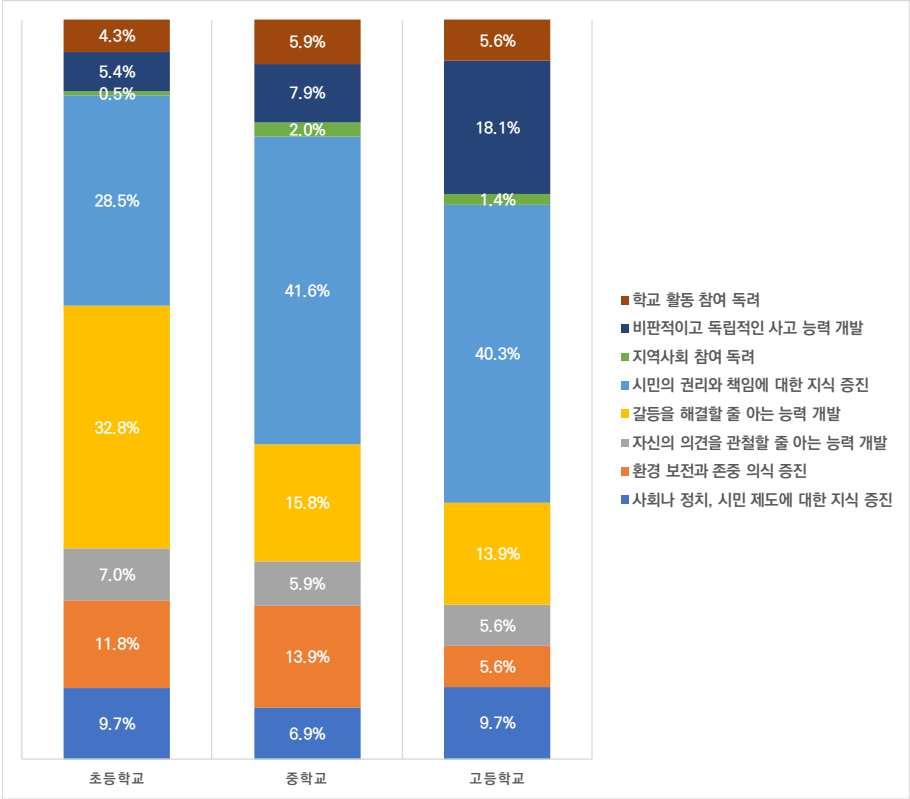


그림 IV-9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 목표 학교급별 비교

그러나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 목표가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 목표와 학교급 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는데($X^2(14)=30.88$, $p<0.05$) 아래의 수정된 표준화 잔차(adjusted standardized residuals)⁴¹⁾는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절댓값이 3보다 큰 잔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의 핵심 목표로 ‘갈등을

41) 각 셀의 관측 카운트와 기대 카운트 간의 차이를 표준 오차의 추정치로 나눈 값으로 절댓값이 3보다 큰 셀은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에 유의하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됨.

해결할 줄 아는 능력 개발’을, 고등학교에서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을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표 IV-17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한 학교급별 경향성 비교

구분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사회나 정치, 시민 제도에 대한 지식 증진	환경 보전과 존중 의식 증진	자기 의견을 관철할 줄 아는 능력 개발	갈등 해결 능력 개발	시민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지역사회 참여 독려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
초등학교	0.5	0.4	0.5	3.9	-2.5	-1.1	-2.3
중학교	-0.8	1.0	-0.2	-2.3	1.8	1.0	-0.3
고등학교	0.3	-1.7	-0.3	-2.3	1.1	0.2	3.2

(2)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문은 각 학교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지도가 어떤 교과를 통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아래 그림은 지도 방식에 대한 5개 보기의 중복응답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한 결과로 학교급에 따라 지도 방식별 비중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 시민교육을 포함해 지도하고 있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고 시민교육을 특정 교과에 한정하기보다 학교 경험의 총체적 산물로 본다는 응답이 29.1%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시민교육을 교과 외 활동으로 지도한다는 응답도 21.6%로 세 번째로 많았다.

초등학교 대비 중·고교의 시민교육 지도 방식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등학교에서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과를 통해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29%~32%에 상당하였고 시민교육을 학교 경험의 총체적 산물로 본다는 응답 역시 28%에 상당했다. 모든 교과목에 시민교육을 포함해 지도하거나 교과 외 활동으로 시민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20%에 상당했다.

끝으로 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과 및 전담 교사를 편성해 학생에게 시민의식과 시민 권 등을 지도하는 경우는 초·중·고 각각 3.0%, 3.4%, 1.8%로 가장 낮았다. 이는 초·중등 학교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시민교육이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나 시민교육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현되고는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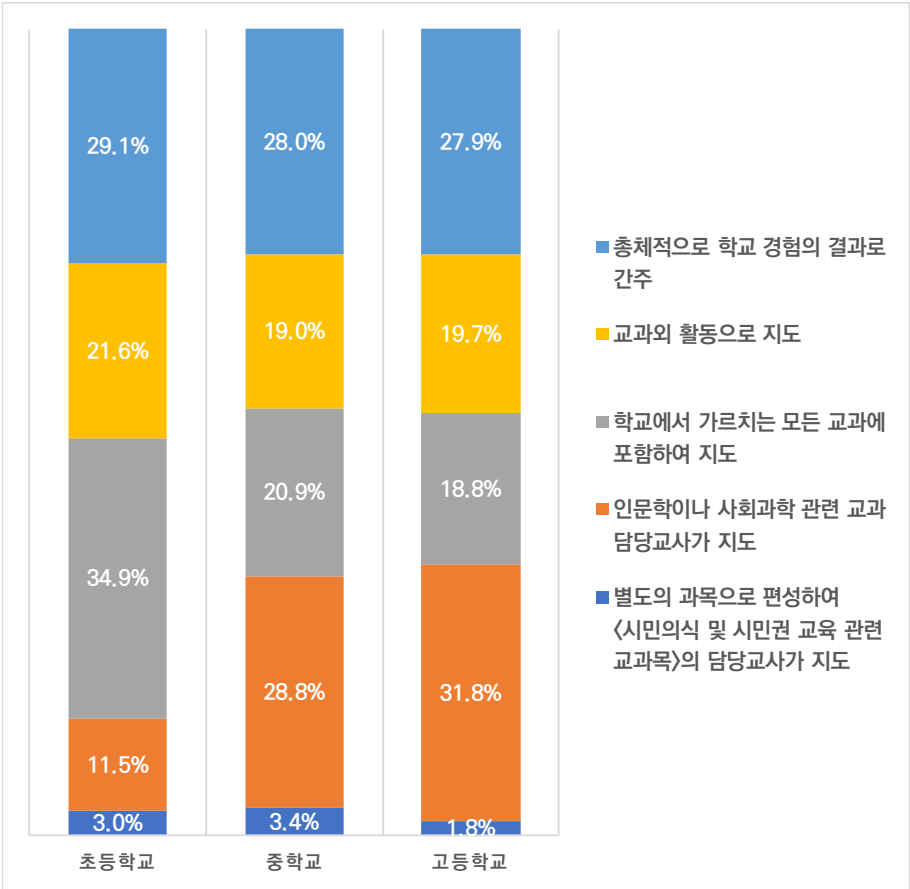


그림 IV-10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 학교급별 비교

(3) 학교의 시민교육 운영 자율성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자율성에 대한 설문은 학교가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교육 자료 선택, 평가 절차, 교사 연수 내용 결정, 외부 협력 기관 섭외 등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7개 항목의 평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높다. 학교의 자율성을 평정하는 데 사용된 4점 응답 척도(1점=전혀 자율적이지 않음, 2점=거의 자율적이지 않음, 3점=상당히 자율적임, 4점=완전히 자율적임)에서 3점 이상이면 상당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각 문항에 대한 학교별 평정 평균이 대부분 3점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평가 항목 중 다른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외부 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등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학교 시민교육의 확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 점수가 낮았다. 학교 시민교육의 고도화를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학교 의지와 노력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항목의 학교급별 평정 결과 역시 2.93점~2.98점에 달해 결코 문제적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학교 시민교육의 계획 수립부터 운영 및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위 학교가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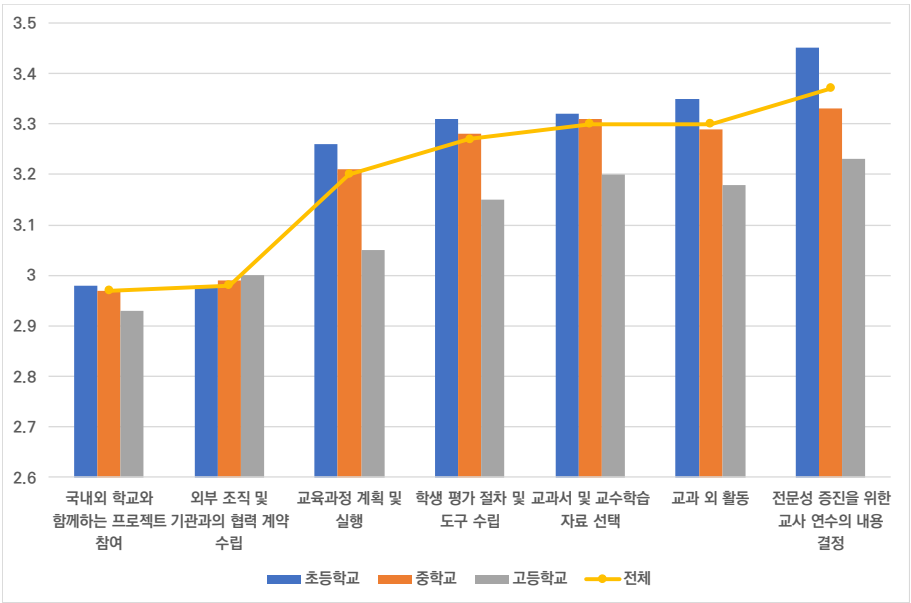


그림 IV-11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관련 학교의 자율성 비교

(4)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의 참여 활동 운영 빈도

학교가 학교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학교 밖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예: 이웃 면담, 소규모 설문조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모둠 활동, 역할 놀이, 최근 이슈에 대한 논쟁, 온라인 자료를 이용한 정보 수집과 분석, 수업 시간에 학습할 내용의 제안 등과 같은 학생 참여 활동을 얼마나 자주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 참여 활동의 운영 수준은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참여 활동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사이의 운영 편차는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지만, 특히 역할 놀이에서의 편차가 두드러진다.

다른 한편 다양한 주제에 대한 모둠 활동, 온라인 자료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초·중·고 공통으로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 자주 운영되는 참여 활동으로 확인된다. 특히 온라인 자료(매체)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분석 활동이 학교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결과는 앞서 역설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다시 한번 귀결된다.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과 정치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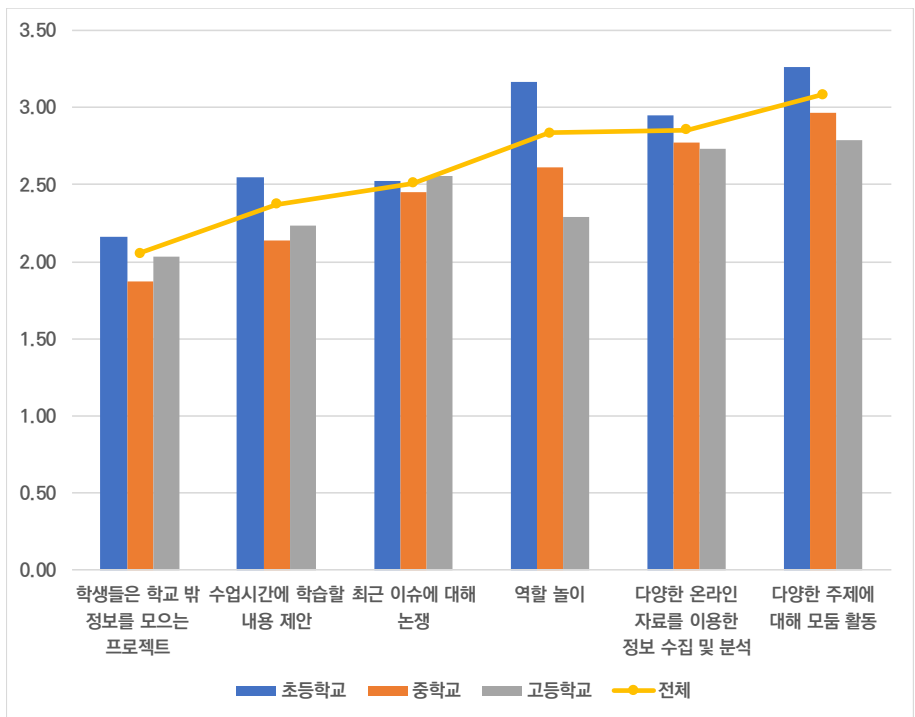


그림 IV-12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 운영되는 학생 참여 활동의 운영 빈도 비교

(5)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지원 환경

학교 의사결정 참여 환경에 대한 설문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이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정보와 기회 제공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전체 평가 항목에서 중학교의 점수가 일관되게 높게

집계됐고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초·중·고 가운데 중학교의 의사결정 환경이 가장 학교 구성원 친화적인 셈이다. 다만, 본 설문이 4점으로 구성된 응답 척도(1점=전혀 하지 않음, 2점=가끔 함, 3점=자주 함, 4점=매우 자주 함)로 평정됐고 각 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평정 평균이 대부분 3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⁴²⁾ 대부분의 학교 현장은 학교 구성원 친화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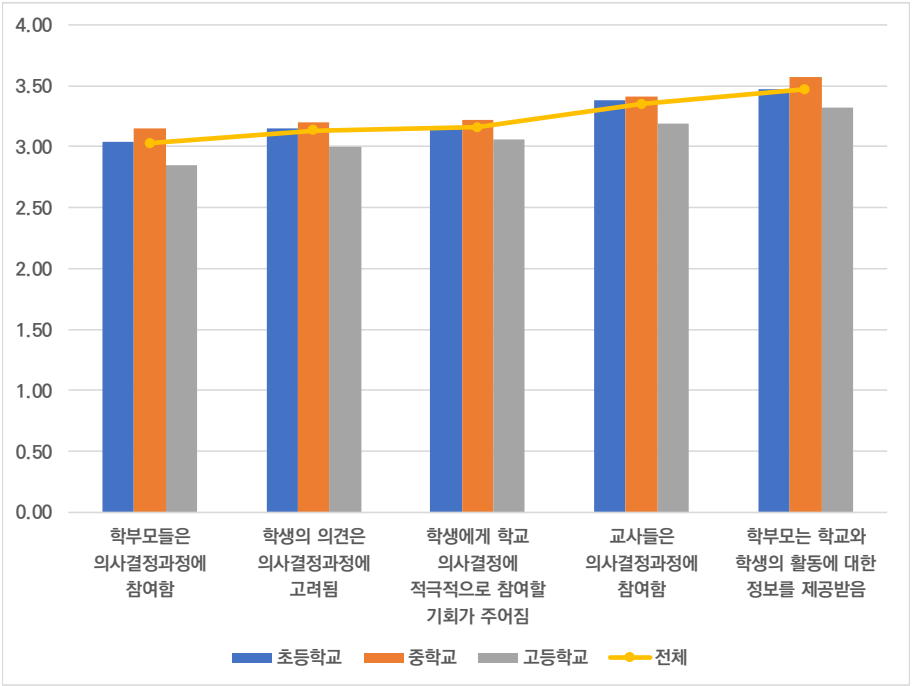


그림 IV-13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환경 실태 비교

6. 실태조사 심화 분석 결과

1) 주요 변수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에 대한 기초분석에 이어 본 절에서는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심층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42) 고등학교의 학부모 참여 수준만 평균 2.85점으로 3점에 못 미침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좋은 시민성의 6개 가치 규범별로 관련 문항을 요인분석하고 여기서 도출한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이는 문항을 단순히 평균해서 변수를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측정오차로 인한 편의(measurement error bias)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요 변수의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관심 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표준화된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에서 회귀계수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회귀계수의 크기를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투입된 각 변수에 대해 부연하면 참여의 경우 문항 1의 1, 2, 7, 8, 9, 10 등의 6개 하위문항, 문항 8의 5개 하위문항, 문항 9의 10개 하위문항 등 총 21개 문항을 요인분석하고 이를 통해 표준화한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자율의 경우 문항 1의 3, 4, 5, 6, 15 등 5개 하위문항을, 사회질서는 문항 1의 5, 11, 12, 13, 14, 문항 4의 6개 하위문항 등 총 11개 문항을, 연대는 문항 1의 16, 17 등 2개 하위문항을, 평등은 문항 2의 7개 하위문항과 문항 3의 5개 하위문항 등 총 12개 하위문항을, 애국은 문항 5의 5개 하위문항을 각각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된 독립변수 정치참여 변수는 크게 교실 안 정치참여(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교내 정치참여(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학교 밖 정치참여(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등 4가지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⁴³⁾ 교실 안 정치참여는 문항 10의 6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교내 정치참여는 문항 13의 7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학교 밖 정치참여는 문항 15의 12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는 문항 16번의 5번부터 8번까지의 4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활용한 통제 변수는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 활성화 수준, 학교급, 여학생 여부, 나이, 기대 학력, 양부모 가정 여부, 한국인 가정 여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 내 도서

43) 사적 관계망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경험(예: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부모 및 친구와의 대화)은 공공 정책의 개입으로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영역임. 개인의 성향, 가정 배경 등 비 정책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분석에서 해당 경험은 제외함

수, 성적 수준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인식, 가정형편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인식, 정치적 자기 효능감, 교내 정치참여 집단효능감, 학교 민주주의 풍토, 정치참여 관심, 정치 대화 등이었다. 부연하면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시민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 정도를 묻는 12번 문항의 7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이다. 학교 안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은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의 활성화 정도를 묻는 21번 문항의 6번부터 15번까지의 하위문항을, 학교 밖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은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주제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교육의 활성화 정도를 묻는 문항 21의 1번부터 5번까지의 하위문항을 각각 활용하였다. 학교급 변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였고 여학생 여부는 여학생일 경우 1로, 남학생일 경우 0으로 구분했다. 양부모 가정 여부, 한국인 가정 여부 등도 모두 이분 변수로 처리했다. 기대 학력은 학생이 기대하는 최종 학력을 의미하는데, 설문에 사용된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인 학업 기간(해당 학력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변환하여(중학교 졸업→9년, 고등학교 졸업→12년, 대학교 졸업→16년, 대학원 졸업→18년)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도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학업 기간으로 변환 후 분석에 활용했다. 가정 내 도서 수는 설문에 사용된 범주형 변수를 연속변수로 변환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적 수준은 5점 척도로 평정된 주관적 인식을 연속변수로 간주하고 분석에 활용했고 가정형편 역시 7점 척도로 평정된 주관적 인식을 연속변수로 간주하고 분석에 활용했다. 정치적 자기 효능감은 문항 7의 14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 후 도출한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교내 정치참여에 대한 집단효능감은 문항 14의 5개 하위문항을, 학교 민주주의 풍토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문항 11의 21개 하위문항을, 정치참여 관심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인과 부모(보호자)의 관심 정도를 묻는 문항 17의 3개 하위문항을, 마지막으로 정치 대화는 최근 1년간 응답자가 친구, 부모, 형제자매 등과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빈도 정도를 측정한 문항 18의 9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도출한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학생의 정치참여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학교 조사 설문에서 학교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측정한 문항 5의 8개 하위문항,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을 측정한 문항 6의 5개 하위문항, 학교의 시민

교육 운영 자율성을 측정한 문항 7의 7개 하위문항,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의 참여 활동 운영 빈도를 측정한 문항 8의 6개 하위문항, 지역사회 시민 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여 실태를 측정한 문항 9의 8개 하위문항,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지원 환경을 측정한 문항 10의 6개 하위문항을 사용했다. 학교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측정한 문항 5의 8개 하위문항과 학교 시민교육의 운영 방식을 측정한 문항 6의 5개 하위문항은 각각 0, 1의 이항 값으로 처리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교의 시민교육 운영 자율성을 측정한 문항 7의 경우 4점 척도로 평정된 각 하위문항의 개별 점수와 모든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도출한 하나의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을 함께 분석에 활용했다.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의 참여 활동 운영 빈도를 측정한 문항 8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에 활용됐다. 4점 척도로 측정된 각 하위문항의 평정 결과와 6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도출한 하나의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이 함께 활용됐다. 지역사회 시민 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여 실태를 측정한 문항 9 역시 4점 척도로 측정된 각 하위문항의 평정 결과와 8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도출한 하나의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이 활용됐다. 끝으로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수준과 지원 환경을 측정한 문항 10도 4점 척도로 측정된 각 하위문항의 평정 결과와 6개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도출한 하나의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이 활용됐다.

이상 심화 분석에 활용된 일련의 변수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18 변수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비고
종속 변수	참여	문항 1의 1, 2, 7, 8, 9, 10, 문항 8, 문항 9 등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학생 조사 설문
	자율	문항 1의 3, 4, 6, 15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사회질서	문항 1의 5, 11, 12, 13, 14, 문항 4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연대	문항 1의 16, 17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평등	문항 2, 문항 3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애국	문항 5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비고
독립 변수	교실 안 정치참여	문항 10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교내 정치참여	문항 13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학교 밖 정치참여	문항 15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온라인 정치참여	문항 16의 5번부터 8번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통제 변수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	문항 12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학교 밖 정치· 시민교육의 활성화수준	문항 21의 1번부터 5번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학교 안 정치· 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문항 21의 6번부터 15번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학교급 (고등학교)	학교급이 고등학교일 경우 (1), 아닐 경우 (0)	
	학교급 (중학교)	학교급이 중학교일 경우 (1), 아닐 경우 (0)	
	학교급 (초등학교)	학교급이 초등학교일 경우 (1), 아닐 경우 (0)	
	여학생 여부	성별이 여학생일 경우 (1), 아닐 경우 (0)	
	나이	학생의 연령	
	기대 학력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 연한	
	양부모 가정 여부	양부모 가정일 경우 (1), 아닐 경우 (0)	
	한국인 가정 여부	한국인가정일 경우 (1), 아닐 경우 (0)	
	아버지 학력	아버지의 교육 연한	
	어머니 학력	어머니의 교육 연한	
	가정 내 도서 수	가정 내 도서 권수	
	성적	학교 성적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인식(5점 척도 범주형)	
	가정형편	가정형편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인식(7점 척도 범주형)	
	정치적 자기 효능감	문항 7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교내 정치참여 집단효능감	문항 14를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학교 민주주의 풍토	문항 11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정치참여 관심	문항 17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정치 대화	문항 18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비고
학교 시민 교육 운영 환경 변수	학교 시민교육 중요목표	문항 5의 8개 하위문항을 각각 0.1로 이항 처리한 값	학교 조사 설문
	학교 시민교육 운영 방식	문항 6의 5개 하위문항을 각각 0.1로 이항 처리한 값	
	학교 시민교육 운영 자율성	문항 7의 7개 하위문항에 대한 개별적 평정 결과(4점 척도)와 전체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학교 시민교육 맥락에서의 참여 활동 운영 빈도	문항 8의 6개 하위문항에 대한 개별적 평정 결과(4점 척도)와 전체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지역사회 시민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 실태	문항 9의 8개 하위문항에 대한 개별적 평정 결과(4점 척도)와 전체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학교 구성원의 학교 의사 결정 참여 수준과 지원 환경	문항 10의 6개 하위문항에 대한 개별적 평정 결과(4점 척도)와 전체 하위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요인점수를 Z 점수로 표준화한 값	

2) 분석모형

본 연구는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식 1]과 같은 기본 회귀모형을 분석에 활용했다.

[수식 1]

$$y_{ij} = \beta_0 + \beta_1 part_{ij} + X' \gamma + POLEDU' \delta + \theta_j + \epsilon_{ij}$$

여기서 y_{ij} 는 j 학교에 다니는 i 학생의 시민성을, $part_{ij}$ 는 j 학교에 다니는 i 학생의 정치참여를, X 는 학생의 배경 변인과 관련한 특성을, $POLEDU$ 는 정치·시민교육 변수들을, ϵ_{ij} 는 오차항을 각각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회귀계수가 정치참여 변수의 회귀계수인 β_1 인데, $\beta_1 > 0$ 일 경우 학생의 정치참여와 시민성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수식 1]의 회귀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됐다. 첫째, 학생의 성별, 연령 등과 같은 배경 변인 이외에 학생의 정치적 자기 효능감, 정치적 관심 등과 같은 개인 성향이 학생의 정치참여와 시민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학생의 정치적 자기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 등과 같은 변인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 누락 변인으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여 추정된 회귀계수 값에 편(bias)이 발생한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학생의 정치적 자기 효능감과 같은 개인 성향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 고정 효과(student fixed effect)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는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라는 점에서 학생 고정 효과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적이거나 정치적 자기 효능감, 참여 효능감 등과 같은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학생의 정치참여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찰하기 어려운 학교 특성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학교에서 시민교육의 활성화 정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시민교육이나 학생 시민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학생 시민성을 중시하는 교직 문화, 시민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정도 등과 같은 변인들도 학생의 정치참여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인들의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본 연구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했는데 우선, 학교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더미변수 최소제곱(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LSDV)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더미변수들을 만들고 이를 분석모형에 포함함으로써 관찰하기 어려운 학교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정치참여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인 학교에서의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 등 교육 관련 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해당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아래 [수식 2]는 [수식 1]에 학생의 정치참여와 정치·시민교육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한 모형이다. 이는 시민성 함양에 대한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정치·시민교육 관련 변인과 상호작용했을 때 커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상호작용의 회귀계수 β_2 가 양의 값이면 정치·시민교육이 시민성 함양에 대한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을 높이는 게 도움을 준 것이며, 반대로 음의 값이면 그렇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수식 2]

$$y_{ij} = \beta_0 + \beta_1 part_{ij} + \beta_2 part_{ij} \times poledu_{ij} + X' \gamma + POLEDU' \delta + \theta_j + \epsilon_{ij}$$

끝으로 본 연구는 학생의 정치참여 경험과 학교의 시민교육 운영환경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이 정치참여 경험을 통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분석모형이 아래의 [수식 3]이다. 부연하면 CE_j 는 j 학교의 시민교육 운영환경을 보여주는 변수이다. β_2 가 양의

값이면 학교의 시민교육 운영환경이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반대로 회귀계수가 음의 값이면 학교의 시민교육 운영환경이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간의 관계를 약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식 3]

$$y_{ij} = \beta_0 + \beta_1 part_{ij} + \beta_2 part_{ij} * CE_{ij} + X' \gamma + POLEDU' \delta + \theta_j + \epsilon_{ij}$$

3) 분석 결과 1: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

심층 분석의 선택 모형을 적용해 정치참여 경험이 각각의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집단

① 참여

아래 표에서 모형 1부터 모형 4까지는 4가지 유형의 정치참여 경험을 개별적으로 투입했을 때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초등학교생의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모형 5는 4가지 유형의 정치참여 경험을 함께 투입했을 때의 결과다. 우선, 다른 정치참여 경험에 대한 통제 없이 각 유형의 정치참여 경험을 독립적으로 투입했을 때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여타 경험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이는 모든 정치참여 경험이 함께 투입한 모형 5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효과 크기로 보면 교내 정치참여 > 온라인 정치참여 > 학교 밖 정치참여 순으로 영향력이 컸는데 이는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초등학교생의 수용적 태도 함양에 있어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가 다른 방식의 정치참여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9 정치참여와 참여의 관계(초등학교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15 (0.030)	-	-	-	-0.014 (0.033)
교내 정치참여	-	0.147*** (0.031)	-	-	0.121** (0.034)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학교 밖 정치참여	-	-	0.136** (0.037)	-	0.083* (0.033)
온라인 정치참여	-	-	-	0.161** (0.043)	0.115** (0.037)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868	868	868	868	868
R2	0.557	0.569	0.570	0.569	0.584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② 자율

모형 1부터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정치참여 경험은 없었다. 반면 4가지 정치참여 경험이 함께 통제된 경우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초등학생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IV-20 정치참여와 자율의 관계(초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01 (0.057)	-	-	-	0.006 (0.056)
교내 정치참여	-	-0.027 (0.033)	-	-	-0.038 (0.037)
학교 밖 정치참여	-	-	0.038 (0.027)	-	0.021 (0.021)
온라인 정치참여	-	-	-	0.088 (0.042)	0.082* (0.038)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868	868	868	868	868
R ²	0.438	0.438	0.439	0.441	0.442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③ 사회질서

자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형 1에서 모형 4까지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 정치참여 경험을 통제했을 때는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 이는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초등학생의 수용적 태도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 밖의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정치참여가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표 IV-21 정치참여와 사회질서의 관계(초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09 (0.043)	-	-	-	0.014 (0.042)
교내 정치참여	-	-0.015 (0.041)	-	-	-0.028 (0.044)
학교 밖 정치참여	-	-	0.055 (0.026)	-	0.067* (0.030)
온라인 정치참여	-	-	-	0.003 (0.031)	-0.023 (0.034)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868	868	868	868	868
R ²	0.391	0.391	0.394	0.391	0.395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④ 연대

연대의 경우 모형 1부터 모형 5에 이르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치참여 경험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견 정치참여 경험 자체가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초등학생의 수용적 태도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초등학생의 정치참여 경험이 형태는 다양할지 몰라도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여 활동의 모색이 요구된다.

표 IV-22 정치참여와 연대의 관계(초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39 (0.047)	-	-	-	0.042 (0.047)
교내 정치참여	-	-0.000 (0.026)	-	-	-0.013 (0.030)
학교 밖 정치참여	-	-	0.053 (0.038)	-	0.061 (0.041)
온라 인 정치참여	-	-	-	0.004 (0.038)	-0.020 (0.039)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868	868	868	868	868
R ²	0.356	0.355	0.358	0.355	0.359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⑤ 평등

평등도 연대와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모형 1부터 모형 5에 이르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치참여 경험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대의 결과에 대한 해석처럼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정치참여 경험 자체가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초등학생의 수용적 태도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초등학생의 정치참여 경험이 평등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을 이해하거나 이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표 IV-23 정치참여와 평등의 관계(초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21 (0.047)	-	-	-	0.018 (0.049)
교내 정치참여	-	-0.013 (0.032)	-	-	-0.000 (0.029)
학교 밖 정치참여	-	-	-0.059 (0.034)	-	-0.051 (0.036)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온라인 정치참여	-	-	-	-0.050 (0.029)	-0.027 (0.032)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868	868	868	868	868
R ²	0.387	0.387	0.391	0.389	0.391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⑥ 애국

애국에서도 전체 모형을 통틀어 유의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두 사례처럼 초등학교 정치참여 활동의 내용적, 방법적 한계와 결부 지어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애국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맥락에서 중요한 동기 혹은 목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정치참여 자체의 개선 방안이 요구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애국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다른 유형의 활동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V-24 정치참여와 애국의 관계(초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36 (0.048)	-	-	-	0.035 (0.046)
교내 정치참여	-	-0.016 (0.022)	-	-	-0.013 (0.024)
학교 밖 정치참여	-	-	-0.022 (0.027)	-	-0.026 (0.028)
온라인 정치참여	-	-	-	0.011 (0.042)	0.024 (0.046)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868	868	868	868	868
R ²	0.345	0.344	0.344	0.344	0.346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2) 중학생 집단

① 참여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유형의 정치참여 경험은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중학생 집단의 수용적 태도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각 정치참여 경험의 배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형 5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교내 정치참여> 교실 안 정치참여> 학교 밖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순으로 효과 크기가 컸는데 이는 교내 자치활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업 중 토론을 통해서든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정치참여가 학교 밖에서의 정치참여 경험보다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중학생의 수용적 태도 제고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표 IV-25 정치참여와 참여의 관계(중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121*** (0.017)	-	-	-	0.111*** (0.017)
교내 정치참여	-	0.231*** (0.028)	-	-	0.199*** (0.029)
학교 밖 정치참여	-	-	0.162*** (0.027)	-	0.097** (0.028)
온라인 정치참여	-	-	-	0.137*** (0.024)	0.088*** (0.021)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250	1,250	1,250	1,250	1,250
R ²	0.522	0.550	0.532	0.524	0.571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② 자율

자율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정치참여 경험은 온라인 정치참여가 유일했다. 특히 온라인 정치참여가 단독으로 투입된 모형 4 대비 모든 정치참여 경험이 투입(통제)된 모형 5에서의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 갖는 효과 크기가 더 커진 것은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중학생의 수용적 태도 증진에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이 실효성 있게 기여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표 IV-26 정치참여와 자율의 관계(중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07 (0.022)	-	-	-	-0.009 (0.024)
교내 정치참여	-	0.051 (0.037)	-	-	0.054 (0.036)
학교 밖 정치참여	-	-	-0.012 (0.034)	-	-0.043 (0.036)
온라인 정치참여	-	-	-	0.088* (0.041)	0.094* (0.044)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250	1,250	1,250	1,250	1,250
R ²	0.384	0.386	0.384	0.389	0.391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③ 사회질서

자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정치참여 경험은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이었다. 그러나 영향의 결과가 정적이 아닌 부정적이었는데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과 정치참여 활성화와 관련해 역설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이나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뉴스, 정보 등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정치적 견해 또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온라인 정치참여 행동으로 인해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공감이 퇴보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표 IV-27 정치참여와 사회질서의 관계(중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교실 안 정치참여	0.073 (0.036)	-	-	-	0.074 (0.036)
교내 정치참여	-	0.005 (0.036)	-	-	0.007 (0.037)
학교 밖 정치참여	-	-	0.004 (0.038)	-	0.021 (0.037)
온라인 정치참여	-	-	-	-0.094* (0.039)	-0.103** (0.032)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250	1,250	1,250	1,250	1,250
R ²	0.365	0.361	0.361	0.366	0.370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④ 연대

연대의 경우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이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정치참여 경험이 투입(통제)된 모형 5에서의 효과 크기가 그렇지 않았을 때(모형 3)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 기구 활동은 학교 안에서의 활동에 비해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됐다.

표 IV-28 정치참여와 연대의 관계(중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73 (0.037)	-	-	-	0.070 (0.037)
교내 정치참여	-	0.073 (0.045)	-	-	0.059 (0.048)
학교 밖 정치참여	-	-	0.073* (0.027)	-	0.062* (0.028)
온라인 정치참여	-	-	-	0.009 (0.035)	-0.015 (0.035)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250	1,250	1,250	1,250	1,250
R ²	0.257	0.258	0.258	0.254	0.264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⑤ 평등

평등에서는 어떤 정치참여 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집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같게 나왔던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맥락에서 만 본다면 정치참여 경험 자체가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중학생의 수용적 태도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 맥락에서 볼 때 중학생의 정치참여 경험이 평등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을 이해하거나 이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이 평등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한 정치참여 활동이 학교 안팎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표 IV-29 정치참여와 평등의 관계(중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11 (0.038)	-	-	-	0.012 (0.038)
교내 정치참여	-	0.009 (0.016)	-	-	0.023 (0.020)
학교 밖 정치참여	-	-	-0.053 (0.041)	-	-0.056 (0.041)
온라인 정치참여	-	-	-	-0.021 (0.031)	-0.009 (0.024)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250	1,250	1,250	1,250	1,250
R ²	0.306	0.306	0.308	0.306	0.309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⑥ 애국

마지막으로 애국의 경우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이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은 단독으로 그리고 여타 정치참여 경험과 함께 투입(통제)된 상태에서도 모두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정치참여 경험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초등학생의 사례와 대조된다. 다만, 여전히 교내 자치활동,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온라인 공간 및 매체 등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 경험은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고 오직 수업 중 토론을 매개로 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만이 유의했다는 사실은 애국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 기회가 교과 학습 시간에 제한되고 참여 조직을 통한 제도적 정치참여 활동이나 온라인에서의 자율적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IV-30 정치참여와 애국의 관계(중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45* (0.018)	-	-	-	0.046* (0.018)
교내 정치참여	-	-0.002 (0.051)	-	-	0.004 (0.048)
학교 밖 정치참여	-	-	-0.031 (0.034)	-	-0.035 (0.036)
온라인 정치참여	-	-	-	-0.001 (0.039)	0.007 (0.045)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250	1,250	1,250	1,250	1,250
R ²	0.300	0.299	0.299	0.299	0.301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3) 고등학생 집단

① 참여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의 분석 결과는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을 제외한 여타 정치참여 경험이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형 5의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보면 교내 정치참여 > 학교 밖 정치참여 > 교실 안 정치참여 순으로 효과 크기가 커지는데 특히 교내 정치참여와 학교 밖 정치참여의 효과 크기에 비해 교실 안 정치참여의 효과 크기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 크기의 비교는 학교 안팎의 구분을 떠나 참여 조직을 통한 제도적 정치참여 경험이 수업 중 토론을 매개로 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보다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고등학생의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표 IV-31 정치참여와 참여의 관계(고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120*** (0.024)	-	-	-	0.096*** (0.018)
교내 정치참여	-	0.216*** (0.034)	-	-	0.173*** (0.025)
학교 밖 정치참여	-	-	0.196*** (0.039)	-	0.138** (0.035)
온라인 정치참여	-	-	-	0.041 (0.030)	0.021 (0.032)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625	1,625	1,625	1,625	1,625
R ²	0.483	0.503	0.496	0.473	0.523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② 자율

자율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정치참여 경험은 수업 중 토론을 매개로 한 교실 안 정치참여가 유일했다. 다만 그 영향력은 부적 상관관계로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좋은 시민이 갖춰야 할 가치 규범으로서의 자율은 민주주의적 속의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얻고자 노력하고, 나의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동시에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하는 데 정작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이상적 활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행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시사 토론이 소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적, 방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표 IV-32 정치참여와 자율의 관계(고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62* (0.029)	-	-	-	-0.061* (0.028)
교내 정치참여	-	0.010 (0.026)	-	-	0.016 (0.026)
학교 밖 정치참여	-	-	-0.008 (0.024)	-	-0.009 (0.024)
온라인 정치참여	-	-	-	0.040 (0.028)	0.039 (0.028)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625	1,625	1,625	1,625	1,625
R ²	0.483	0.503	0.496	0.473	0.523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③ 사회질서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정치참여 경험은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과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적 상관관계는 전자에서만 발견됐고 후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떨어지지만, 학교 밖의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는 사회질서 가치 규범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과 사회질서 사이의 부적 상관관계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역설한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이나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뉴스, 정보 등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정치적 견해 또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학교 밖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참여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들의 제도적 정치참여 경험치를 높여 주는 노력은 이들이 사회질서 가치 규범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IV-33 정치참여와 사회질서의 관계(고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86* (0.038)	-	-	-	0.077 (0.038)
교내 정치참여	-	-0.013 (0.038)	-	-	-0.046 (0.031)
학교 밖 정치참여	-	-	0.107* (0.039)	-	0.117** (0.031)
온라인 정치참여	-	-	-	-0.053 (0.026)	-0.062* (0.023)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625	1,625	1,625	1,625	1,625
R ²	0.483	0.503	0.496	0.473	0.523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④ 연대

연대의 경우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과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수업 중 시사 문제에 관한 토론을 매개로 하든, 학교 밖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매개로 하든 이러한 정치참여 경험은 모두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34 정치참여와 연대의 관계(고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103** (0.035)	-	-	-	0.094* (0.035)
교내 정치참여	-	0.017 (0.030)	-	-	-0.012 (0.031)
학교 밖 정치참여	-	-	0.096* (0.037)	-	0.097* (0.036)
온라인 정치참여	-	-	-	-0.065 (0.037)	-0.072 (0.037)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625	1,625	1,625	1,625	1,625
R ²	0.483	0.503	0.496	0.473	0.523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⑤ 평등

평등에서는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평등과의 관계는 부정 상관관계로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이 많을수록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는 줄어들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질서의 결과처럼 평등이라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는 데 있어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표 IV-35 정치참여와 평등의 관계(고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20 (0.024)	-	-	-	0.022 (0.026)
교내 정치참여	-	-0.045 (0.033)	-	-	-0.044
학교 밖 정치참여	-	-	-0.019 (0.026)	-	-0.002 (0.033)
온라인 정치참여	-	-	-	-0.074** (0.025)	-0.071* (0.027)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625	1,625	1,625	1,625	1,625
R ²	0.483	0.503	0.496	0.473	0.523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⑥ 애국

마지막으로 애국의 경우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과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정적 상관관계는 전자, 즉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에만 국한되고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사회질서와 평등에 이어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에 대해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중생의 분석 결과에서도 그랬듯이 교내 자치활동,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등 참여기구 활동을 매개로 한 제도적 정치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이 애국이라는 가치 규범을 수용하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애국과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정적 상관관계가 중·고생 대상 분석 결과에서만 확인되고 초등학생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애국이라는 가치 규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중·고생 대상의 교과 토론 수업, 즉 중등 교육과정에서 기대되는 성과물임을 방증한다. 다만, 애국 역시 좋은 시민이 함양해야 할 가치 규범 중의 하나이므로 초등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충실하게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이 요구된다.

표 IV-36 정치참여와 애국의 관계(고등학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교실 안 정치참여	0.072* (0.027)	-	-	-	0.069* (0.026)
교내 정치참여	-	-0.004 (0.036)	-	-	-0.012 (0.032)
학교 밖 정치참여	-	-	0.021 (0.040)	-	0.025 (0.039)
온라인 정치참여	-	-	-	-0.080*** (0.016)	-0.080*** (0.017)
학교 고정효과	○	○	○	○	○
강건 표준오차	○	○	○	○	○
사례 수	1,625	1,625	1,625	1,625	1,625
R ²	0.483	0.503	0.496	0.473	0.523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4) 분석 결과 2: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시민교육의 상호작용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는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한 정치참여 경험과 정치·시민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참여 경험 자체가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존재할 수 있지만, 정치참여 경험이 정치참여 및 시민성 등 관련 주제의 교육 활동과 연계됐을 때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급별로 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수용적인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상호작용을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1) 초등학교 집단

초등학교의 경우 정치교육과 정치참여 경험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교실 안 정치참여×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온라인 정치참여×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이었고 이들의 상호작용은 각각 참여와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교실 안 정치참여와 학교 안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 인식은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초등학교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실 안 정치참여, 즉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참여 및 시민성 함양 교육 활동과 연계될 경우,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초등학교의 수용적 태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온라인 정치참여와 학교 안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온라인 정치참여가 학교 안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 활동과 연계될 경우, 초등학교가 사회질서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37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시민교육의 상호작용 효과(초등학생)

구분	종속변수	
	참여	사회질서
교실 안 정치참여× 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0.057* (0.025)	-
온라인 정치참여× 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	0.061* (0.028)
교실 안 정치참여	0.001 (0.054)	0.012 (0.047)
온라인 정치참여	0.078 (0.038)	-0.052 (0.036)
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0.055 (0.052)	0.007 (0.034)
학교 고정효과	○	○
강건 표준오차	○	○
사례 수	868	868
R ²	0.445	0.395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2) 중학생 집단

중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은 학교 밖 정치참여×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 온라인 정치참여×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이었고 이들의 상호작용은 각각 참여와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학교 밖 정치참여와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은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중학생의 수용적 태도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런 결과는 학교 밖 정치참여, 즉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시민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 활동과 연계될 경우,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중학생의 수용적 태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질서 가치 규범의 경우 온라인 정치참여와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시민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 활동과 연계될 경우,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중학생의 수용적 태도를 제고하는 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표 IV-38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시민교육의 상호작용 효과(중학생)

구분	종속변수	
	참여	사회질서
학교 밖 정치참여×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	0.058* (0.034)	-
온라인 정치참여×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		0.094* (0.042)
학교 밖 정치참여	0.090** (0.024)	0.012 (0.040)
온라인 정치참여	0.083*** (0.020)	-0.141*** (0.033)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	0.046 (0.023)	0.142*** (0.029)
학교 고정효과	○	○
강건 표준오차	○	○
사례 수	1,250	1,250
R ²	0.575	0.378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3) 고등학생 집단

끝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은 교실 안 정치참여×학교 밖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온라인 정치참여×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온라인 정치참여×학교 밖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등이었고 이들의 상호작용은 각각 자율, 연대, 평등 가치 규범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자율 가치 규범의 경우 교실 안 정치참여, 즉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가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주제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교육 활동과 연계될 때 자율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정치참여와 학교 안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의 상호작용은 연대와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모두 도움이 됐다.

끝으로 온라인 정치참여와 학교 안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의 활성화 수준 간의 상호작용은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IV-39 정치참여 경험 및 정치·시민교육의 상호작용 효과(고등학생)

구분	종속변수			
	자율	연대	평등	평등
교실 안 정치참여× 학교 밖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0.040* (0.016)	-	-	-
온라인 정치참여× 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	0.037* (0.015)	0.078** (0.024)	-
온라인 정치참여× 학교 밖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	-	-	0.050* (0.023)
교실 안 정치참여	-0.052 (0.028)	0.090* (0.035)	0.014 (0.027)	0.021 (0.027)
온라인 정치참여	0.036 (0.029)	-0.069 (0.038)	-0.063* (0.028)	-0.066* (0.026)
학교 안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0.022 (0.029)	-0.027 (0.040)	-0.017 (0.032)	0.005 (0.033)
학교 밖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	0.002 (0.028)	0.049 (0.025)	-0.008 (0.017)	-0.024 (0.018)
학교 고정효과	○	○	○	○
강건 표준오차	○	○	○	○
사례 수	1,625	1,625	1,625	1,625
R ²	0.353	0.238	0.332	0.328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5) 분석 결과 3: 학교 시민교육 환경과 정치참여 경험의 상호작용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

끝으로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교에서 구현되고 있는 시민교육 환경과 정치참여 경험의 상호작용이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은 한편으로 개인 수준의 경험과 성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경험과 성장은 관련 주제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가능케 하는 학교 환경, 즉 학생 개개인 배태된 학교의 시민교육 환경으로부터 상당 수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의 시민교육 환경(맥락)이 개인 수준의 정치참여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고 가치 규범별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여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어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시민교육의 목표가 학생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또한,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선택과 관련해서 자율성이 높은 초등학교일수록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 또한 더 커졌다.

중학교의 경우 시민교육의 목표가 학생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에 있는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의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프로젝트 활동, 모둠 활동, 토론학습 등 학생 참여형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식 및 시민권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일수록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표 IV-40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학교 밖 정치참여× [목표] 비판적 사고	0.115* (0.050)	교실 안 정치참여× [목표] 비판적 사고	0.133* (0.062)	교실 안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6.190*** (0.327)
온라인 정치참여× [자율성] 교과서 (자료) 선택	0.067* (0.029)	온라인 정치참여×의 사결정 참여 정도	0.047* (0.019)	교내 정치참여× 시민교육 활동 운영 정도	0.093*** (0.019)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2) 자율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어 초등학교의 경우 국내외 학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참여에서 자율성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다음으로 중학교에서는 교과 외 활동에서 자율성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인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재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재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표 IV-41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교실 안 정치참여× [자율성] 국내 프로젝트 참여	0.079* (0.035)	교실 안 정치참여× [자율성] 교과 외 활동	0.108* (0.040)	교실 안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2.850*** (0.433)
학교 밖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0.308*** (0.036)	교내 정치참여× [사회참여] 인권 프로젝트	0.068* (0.023)	교내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도	0.073* (0.033)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3) 사회질서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어 초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시민교육 목표가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 개발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중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가 더 높은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시민교육 목표가 학생의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소외계층을 위한 재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시민교육 목표가 학교 활동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표 IV-42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교실 안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0.156* (0.068)	교실 안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도	0.065* (0.023)	교실 안 정치참여× [사회참여]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0.118* (0.049)
학교 밖 정치참여× [목표] 갈등 해결 능력	0.166* (0.061)	학교 밖 정치참여× [목표] 비판적 사고	0.145* (0.054)	학교 밖 정치참여× [목표] 학교 활동 참여	0.383*** (0.091)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4) 연대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초등학교의 경우 국내외 학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참여에서 자율성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또한,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는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중학교의 경우 교내 시민의식 및 시민권 교육을 특정 교과수업에 한정 짓지 않고 모든 교과에 포함해 시민성을 지도하는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또한,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시민의식 및 시민권 교육과 관련한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표 IV-43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교실 안 정치참여× [자율성] 국내 프로젝트 참여	0.092* (0.042)	교실 안 정치참여× [교육 방식] 모든 교과에서 지도	0.079* (0.035)	교내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0.411** (0.125)
학교 밖 정치참여× [의결 참여] 학생 의견 고려	0.056* (0.025)	온라인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0.300*** (0.073)	온라인 정치참여× 시민교육 운영의 자율성 정도	0.058* (0.025)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5) 평등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초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시민교육 목표가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중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중 캠페인 활동의 참여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 목표가 학교 활동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또한, 시민의식 및 시민권 교육과 관련한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표 IV-44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교실 안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0.385** (0.106)	교실 안 정치참여× [사회참여] 캠페인 활동	0.141*** (0.020)	교내 정치참여× [목표] 학교 활동 참여 독려	0.212* (0.097)
학교 밖 정치참여× [목표] 시민 권리와 책임	0.062* (0.028)	교내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0.188*** (0.039)	학교 밖 정치참여× 시민교육 운영의 자율성 정도	0.051** (0.016)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6) 애국

끝으로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초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 목표가 사회나 정치, 시민 제도에 대한 지식 증진에 있는 학교일수록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중학교의 경우 시민의식 및 시민권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제안하는 빈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또한,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교육 목표가 학교 활동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시민교육 목표가 지역사회 참여 독려에 있는 학교일수록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표 IV-45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 운영환경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온라인 정치참여× [목표] 시민 지식 증진	0.155* (0.058)	교실 안 정치참여× [활동 운영] 학생 학습 내용 제안	0.086* (0.039)	교실 안 정치참여× [목표] 학교 활동 참여 독려	0.195*** (0.04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변수명	회귀 계수
		학교 밖 정치참여× [목표] 학교 활동 참여 독려	0.261* (0.103)	교내 정치참여× [목표] 지역사회 참여 독려	0.522** (0.140)

주: 제시 값은 회귀계수이며, ()안의 값은 지역 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임. 통제변수는 통제하였음.

범례: *** p<0.001, ** p<0.01, * p<0.05

7. 실태조사 시사점

본 연구는 학생의 정치참여와 시민의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학교 1~3학년 학생,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정치참여 경험이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두 변인의 관계를 보다 정치하게 고찰하고자 우리는 개별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는 학교 고정효과를 적용하였고 학생의 정치적 자기효능감, 정치 관심 등 두 변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 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은 각각의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종속변수 삼아 초·중·고 학교급별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취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IV-46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의 관계(학교급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참여			자율			사회질서			연대			평등			애국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교실 안 정치참여		+	+			-						+					+	+
교내 정치참여	+	+	+															
학교 밖 정치참여	+	+	+				+		+		+	+						
온라인 정치참여	+	+		+	+			-	-						-			-

주1. A. 초등학생, B. 중학생, C. 고등학생

주2. +: 정적 상관, -: 부정 상관

먼저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에 있어 초·중·고생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정치참여 경험은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와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였다. 이에 비해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의 긍정적 효과는 중·고생,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의 긍정적 효과는 초·중생 집단에서만 발견됐다. 학교급을 기준으로 보면, 중학생 집단의 경우 모든 유형의 정치참여 경험이 참여 가치 규범에 대한 이들의 수용적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과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을 제외한 경험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참여는 다른 시민적 가치 규범과 비교해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 함양이 가장 원만하게(유의한 정적 상관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자율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에 있어 정적 상관을 보여준 정치참여 경험은 초·중생의 온라인 정치참여가 유일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유일하게 유의한 정치참여 경험은 수업 중 토론을 통한 교실 안 정치참여지만 실제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실 안 정치참여 활동이 오히려 자율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 함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사 토론이 민주주의적 속의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자율적으로 탐색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 주도의 능동적, 적극적 토론 활동 대신 교사 주도의 수동적, 소극적 지식 학습이 교실 속 정치참여 활동의 주를 차지하는 환경에서는 지금과 같은 역효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관련 의견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적극적, 주체적 의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자율이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초·중생의 수용적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함양에 있어서는 정치참여 활동의 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확인됐다. 학교 밖의 다양한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밖 정치참여 경험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은 중·고생의 태도 함양에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전자의 결과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환경 운동 단체, 인권 운동 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과 같은 학교 밖 기구 및 단체를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이 교과 수업으로 체득하기 어려운 사회체계의 수용과 신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 등의 가치와

의의를 깨우쳐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 사회질서 가치 규범을 수용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온라인 공간이 한편으로 청소년의 자율적으로 주체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검증되지 않은 뉴스, 정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치적 견해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사회체계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와 불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 등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는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고생의 건강한 온라인 정치참여와 사회질서 가치 규범 수용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정치교육과 정치참여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찰하며 온라인 정치참여와 학교 정치·시민교육 주제 학습 수준의 상호작용이 사회질서 가치 규범에 대한 중학생 집단의 수용적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치·시민교육 주제에 대한 충분한 학교 학습 또한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순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연대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교내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안 정치참여 경험과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의 태도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 활동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은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하고,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 선출 시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학급 및 학생회 후보자로 출마하는 등 교내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연대라는 시민적 가치 규범, 즉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 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환경 운동 단체, 인권 운동 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과 같은 학교 밖 기구 및 단체를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은 이러한 연대 가치 규범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교를 벗어난 더 큰 공동체 맥락(지역사회, 국가)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평등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 유일한 정치참여 경험은 고등학생의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었다. 다만, 그 작용 방식은 부적 상관으로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 높을수록 해당 고등학생의 수용적 태도는 떨어졌다. 온라인 공간은 매체를 사용할 줄 아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연령, 성별, 지역에 따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기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의 존중을 골자로 하는 평등 가치 규범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만큼 도움이 되는 경험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적 상관이 확인됐다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며 특정 집단의 존엄이나 권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반목을 조장하는 정보와 뉴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온라인 공간은 시공간, 연령,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이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성 발달로 귀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

여섯째,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과 관련해 수업 중 토론을 매개로 한 교실 안 정치참여 경험만이 중·고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과 의사 표현 등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는 교실 수업에서의 정치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이 애국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함양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앞서 사회질서 및 평등 가치 규범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논의됐던 온라인 정치참여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온라인 정치참여는 청소년을 포함해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이용자가 극단적이고 거짓된 정보와 뉴스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건강하지 못한 시민성(예: 사회체계의 부정과 불신으로 인한 국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의 외면 등)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지므로 온라인 정치참여의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매체 활용 역량의 함양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함양 간의 관계가 정치교육 경험과 학교의 시민교육 환경 등과 같은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특성들과 정치참여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적 태도 함양에 있어 정치교육 경험과 정치참여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편으로 이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나, 이러한 정치참여가 내실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치교육의 효과적 운용도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의 시민교육 환경과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식 및 시민권 교육과 관련한 활동의 자율성 정도, 시민의식 및 시민권 교육과 관련한 활동의 운영 방식, 학생의 지역사회

회 활동 참여도,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 정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따라 정치참여 경험으로 인한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변화 양상 또한 유의하게 달라졌다. 이상의 상호작용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이 이들의 건강한 시민성 함양으로 귀결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치참여 활동 자체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참여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의 고도화, 더 나아가 이러한 정치참여와 교육 커리큘럼이 구현되는 학교의 민주적 문화 정착 등을 위한 노력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 정책 제언

- 1. 정책과제 도출과정 개요
- 2. 정책과제와 대안

5장 개요

연구 방법

-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일상 속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1)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개념,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관한 문헌 연구, 2)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담(FGI)을 통한 청소년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경험의 관계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3)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 4) 교육·자치활동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 안팎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문 및 관계부처 대상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음

주요 내용

- **정책 영역 1: 교육**
 - 과제 1.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적 노력 강화
 - 과제 2.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 및 정치·시민교육 과정 강화
 - 과제 3. 학교 안팎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연계 강화
- **정책 영역 2: 법령**
 - 과제 1.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치·시민교육의 제도적 원칙 수립
 - 과제 2. 내실 있는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교칙 개정
- **정책 영역 3: 기구**
 - 과제 1.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 과제 2.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 방식 개편

1. 정책과제 도출과정 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성원(成員)으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개념,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시민성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권리적 측면과 가치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정치적 행동과 실천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적 가치와 태도 함양을 도모하는 본 연구 목표에 따라 우리는 규범적 측면에서 시민성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좋은 시민의 6가지 핵심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을 도출하였다. 부연하면 참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행동을, 자율은 민주주의적 숙의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나의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동시에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연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평등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에 대한 존중을, 사회질서는 사회체계에 대한 수용과 신뢰,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개인적 책임과 노력을, 마지막으로 애국은 소속 국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와 자율은 민주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하는 참여적 시민의 핵심 가치이며, 연대와 평등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의 핵심 가치이며, 끝으로 사회질서와 애국은 자신이 속한 체계의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책임 이행적 시민의 핵심 가치다.

정치참여의 범위와 성격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유형화되지만, 청소년

44) 본 장을 집필한 사람: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참정권 확대 같은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본 연구 목표에 따라 우리는 정치참여를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청소년 정치참여를 자신이 속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해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며,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 표집 총 8,654명(초등학교 4~6학년 2,848명, 중학교 1~3학년 2,821명, 고등학교 1~3학년 2,98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좋은 시민의 핵심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활성화 수준과 효과성, 문제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함양의 연관성을 비단 학생 개인의 맥락에서만 아니라 학교의 맥락에서도 살펴보고자 학생 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 조사를 별도 실시하였다. 학교 특성 조사의 목적은 각 표본 학교에서 구현되고 있는 학교 시민교육의 제반 운영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교원 1인(교장, 교감, 부장급 교원 등 학교별로 상이)이 각 학교를 대표해 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우리는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청소년 그룹과 교원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그룹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수립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14명과 대학생 8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교원 그룹에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는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식견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사 10명이 참여했고 정치참여의 의미, 관심, 경험, 효능감, 지원 방안, 시민성의 의미, 발달 경험, 함양 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우리는 학교 안팎의 현장에서 교육, 자치활동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 전문가 집단(초·중등 교사, 교육청 장학사, 참여기구 운영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민성 함양 및 정치참여 활성을 저해하는 교육적,

기구적, 법률적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 등을 자문하였고 관계부처와의 정책연구실 무협의회도 개최하였다.

상술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육

-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범위를 학교 안팎(교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과 온라인을 포괄하는 청소년의 일상으로 설정하고, 광의의 개념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를 이해해야 함
- 시민성과 정치참여 간의 긍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시민교육, 정치효능감, 사회적 자본을 통한 정치참여 및 시민성 증진 방안을 고안해야 함
-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모두 정치참여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학교 교육 측면에서는 교과교육과 학급 및 학교 자치 차원에서 정치나 정치참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함
-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의 순기능 증진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치·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법령

- 공직선거법 개정 시 참고했던 OECD 국가들은 선거뿐 아니라 정당 활동과 관련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온전히 보장하고 있고 일부 국가 중 기탁금 제도가 없는 국가가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된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영역 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별 학교의 학칙 등의 충돌로 인해 학생의 정치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사회 전반에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의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법·제도 간의 상충이 없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기구

-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에 내실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구 활동에 대한 접근성, 실효성, 전문성, 안정성 등이 개선되어야 함
- 학교-학교 밖 참여 기구 및 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학교라는 공동체 외에도 지역사회, 국가 등 더 큰 공동체를 이해하고 해당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함

그림 V-1 본 연구의 주요 정책시사점 요약

정치참여는 미시적으로는 민주시민 구성원 개인의 시민성 함양에,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민적 행동이다. 특히, 청소년의 시민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중적 시선이 여전히 강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자신들이 영위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가치와

질서가 구현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서 좋은 시민의 세 가지 유형 중 참여적 시민의 속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가 내실 있게 구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 대안을 교육, 법령, 그리고 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활성화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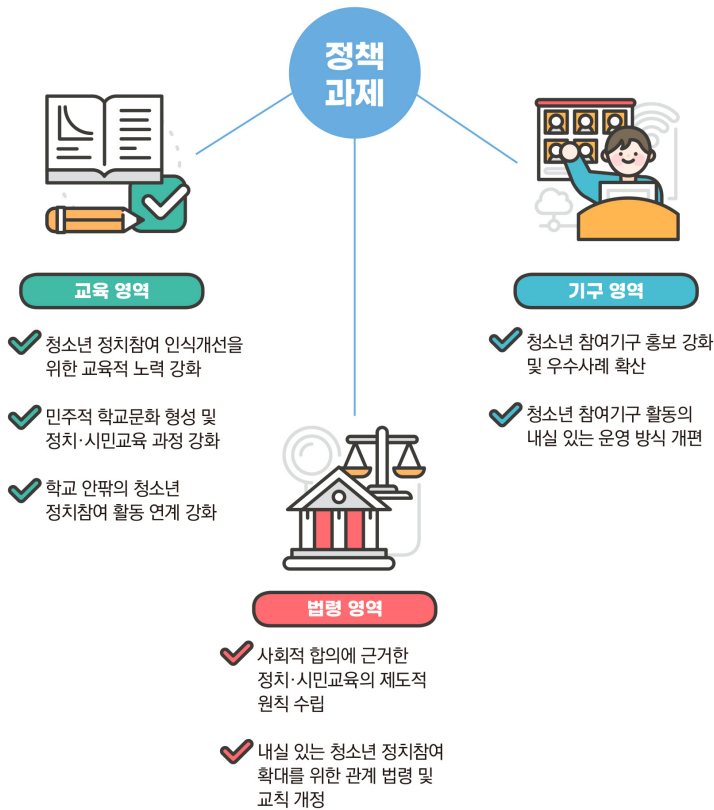


그림 V-2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활성화 정책과제

2. 정책과제와 대안

1) 교육 영역

(1)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적 노력 강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교육 영역에서의 첫 번째 정책적 지원 방안은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적 노력의 강화이다.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통으로 확인된 사항은 청소년 정치참여를 향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인식개선이 필요한 주체는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하여 학부모, 교사, 일반 성인에 해당한다. 청소년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일부 결과는 이들이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성인들의 이중적인 시선, 둘째, 청소년 스스로 지니는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셋째, 정치·시민교육 대한 부정적 인식이 청소년의 정치참여 증진을 방해하는 문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성인의 이중적 시선이란, 표면적으로는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청소년의 정치참여 실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직은 정치참여를 하기에 청소년은 어리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령기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바는 시민의 역할보다 학생의 역할로서, 정치참여보다는 학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성인들은 청소년을 미래 사회의 주인공, 시민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현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아직 청소년은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이므로 교육의 대상이지 동등한 정치참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시선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이란 사회적 위치에 기인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정치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은 이들이 정치참여 자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학업 중심 및 정치참여에 대한 민감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청소년의 인식은 정치·시민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에

서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비중은 초등학교 응답의 16.9%, 중학생 응답의 14.4%, 고등학교 응답의 10.3%를 차지했다. 같은 맥락으로 FGI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이 중요한 환경에서 학생에게 일반적인 모습은 공부하는 것으로, 정치참여란 어른의 일로써 일반적인 학생에게 그려지는 모습이라고 인식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업 중심의 환경과 함께 정치적 이슈와 활동을 민감하게 수용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정치질’, ‘시간 낭비’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처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 정치참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 상황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시민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FGI에서 소개된 사례처럼 학부모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시민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교육으로 인식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낯설게 혹은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은 교육을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민으로서의 성장 과정과 사회적 역할로 이해한다면, 청소년 정치참여 및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개념 및 활동, 정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참여프로그램 및 참여 방법, 청소년 정치참여의 사회적 기능 및 교육적 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물론 현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 및 사이버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 대학생·청년 유권자, 초·중·고생,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3).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교육의 중심 내용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로, 해당 교육을 통해 청소년

정치참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된 독자적 교육프로그램을 대상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어떻게 프로그램 이용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무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적다면 그만큼 문제의 개선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별 내용과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한 학교, 교원양성기관,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 교육기관 간 협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존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과 연계한 정치·시민교육 확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먼저,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부의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운영을 통해 예비교원과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은 “예비교원의 시민교육 인식 및 역량을 제고하여 학교에서의 균형있는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목표로,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시민교육, 기후·환경교육, 인권교육, 참정권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일교육, 공동체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주제가 대학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교육부, 2023a). 주목할 점은 사업의 주요 추진과제로 시민교육의 지역사회 확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 사업은 참여 대학에 “양질의 시민교육 과정이 타대학 및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교육강좌와 공통교재(서적)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주기 사업(2019-2022)에 참여한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재학생과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⁴⁵⁾ 이러한 교원양성기관과 지역사회 연계는 정치·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대학은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의 목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5) 1주기(2019-2022)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성과자료집.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nts_no=200308&biz_no=408&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해당 사업의 목표는 “대학을 지역의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 육성”(교육부, 2023b)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 변화와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 사업에서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원에 따라 비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을 통해 대학의 비학위과정으로서 양질의 정치·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역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 소재 대학이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 시민에게 온·오프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⁴⁶⁾ 이처럼 대학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강좌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내 인식 확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제공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한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에듀넷·티-클리어(EDUNET·T-CLEAR)와 같은 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는 청소년 정치·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홍보와 활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및 일반인 회원 모두가 이용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과 및 범교과 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교원 회원에게는 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청 발간자료,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교원 회원은 정치·시민교육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 플랫폼을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정치·시민교육의 주요 홍보 및 확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온라인시민대학은 ‘대전환의 시대, 좋은 시민으로 살기 위한 관점’⁴⁷⁾ 강좌를 제공하고, 대전시민대학은 ‘세계 시민 아카데미’⁴⁸⁾를 운영하는 등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미 여러 정치·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에 대해 에듀넷·티-클리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높은 홍보 및 확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46) 2023 2학기 서울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프로그램북 참고.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SiminProgramBookView.do?mnid=202110700556)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47)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내 ‘온라인시민대학’ (https://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DetailInfo2.do?course_id=ASP00001S100120220104854&class_no=01&course_gubun=1&mnid=202110700556&simin_yn=O&place_gubun=%EC%98%A8%EB%9D%BC%EC%9D%B8%20%EC%8B%9C%EB%AF%BC%EB%8C%80%ED%95%99)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48)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세계 시민 아카데미’(<https://www.dile.or.kr/OrgPageHome.do?cmd=viewPage&pageCd=PAGE153>)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위한 교원, 학생, 그리고 일반인(보호자)을 위한 맞춤형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프로그램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소개 및 보급된다면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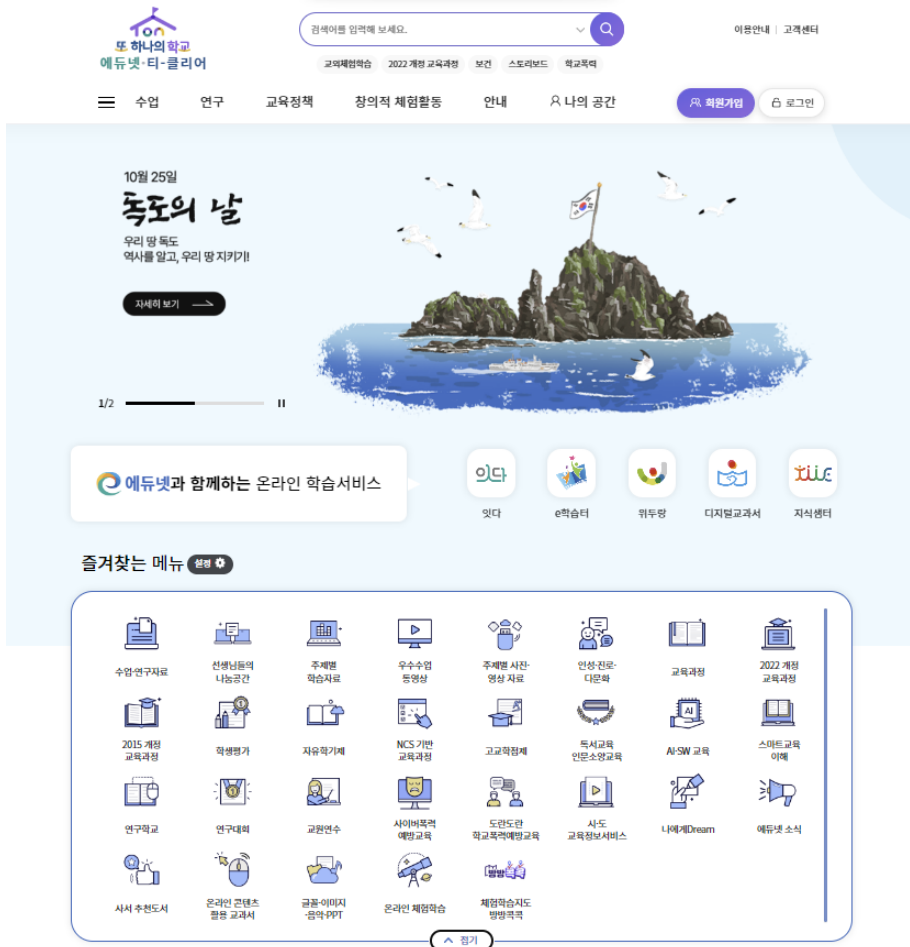


그림 V-3 에듀넷·티·클리어 홈페이지

* 출처: 에듀넷·티·클리어 홈페이지 https://www.edunet.net/nedu/info/infoEdunet.do?menu_id=7047에서 2023년 10월 15일 인출

(2)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 및 정치·시민교육 과정 강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교육 영역에서의 두 번째 정책적 지원 방안은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과 정치·시민교육 과정의 강화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형성과 정치·시민교육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민주적 학교문화란 학생이 학교 공동체의 정당한 성원으로 존중받고 학생의 자치활동과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민주적 가치와 태도 함양에 필요한 교육과 활동이 제공되는 학교 환경을 의미한다.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이론적 관계에서 살펴보았듯, 정치·시민교육과 이를 포함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는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소속 학교가 민주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도움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치·시민교육의 활성화 수준과 학교의 정치·시민 교육 운영 환경은 각각 정치참여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양상으로 청소년의 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민주적 학교문화와 정치·시민 교육은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회의적이었다. 많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 증진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교육 목표로 추진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FGI에 참여한 교사를 포함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전문가들은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업 중심의 문화로 인해 교육 목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시민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치·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째, 교육과정에서의 필수적 학습 시간 확보 실패와 둘째,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제시되었다. 먼저, 교육과정에서의 필수적 학습 시간 확보 실패는 정치·시민교육이 교육과정상 필수 교과가 아니며, 이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일부 관심 있는 개별 교사에 의존하여 정치·시민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교사들이 마음껏 정치·시민교육을 하고 싶어도 이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정치·시민교육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원양성단계에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교사들의 교육 문제 또한 함께 존재한다.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정치·시민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공식화되지 못하면 교원 양성 단계에서도 교육 실천 단계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육과정상 정치·시민교육을 독립적인 필수 교과로 지정하여 확보된 시간 동안 정치·시민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한편으로 교육과정상 정치·시민교육이 필수 시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합의된 교육 실천 목표와 방식이 부재하여 학교 현장에서 정치·시민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학교 정치·시민교육의 현황은 교육의 목표, 핵심 교육 주제, 타당한 교육 방법 및 자료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결부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내 정치·시민교육 활동을 민감하게 수용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의 성장이라는 공교육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적 학교와 정치·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교육 영역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청소년 정치 참여와 정치·시민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회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된 후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교육과정 및 정책 가이드라인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정치·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할 수 있는 정치·시민교육의 중요한 방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의 연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와 언론매체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교사와 전문가들은 학교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청소년들의 편향적 정보 획득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많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편향적 관점과 혐오적 표현에 쉽게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건강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치·시민교육의 핵심 교육 목표이자 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3) 학교 안팎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연계 강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교육 영역에서의 세 번째 정책적 지원 방안은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참여 활동 연계 강화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공간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참여 활동을 다시 학교 안 활동과 학교 밖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학교 안 정치참여는 수업 중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한 토론과 교내 자치활동으로 정의하였고, 학교 밖 정치참여는 청소년 정당 단체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은 참여기구와 부모, 친구 등의 사적 관계망을 통한 참여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학교 밖 정치참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최근 1년 동안 정치참여 기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친구와 가족 중심의 사적 관계망을 통한 활동도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은 저조한 실정인데, FGI와 전문가 자문에서 청소년의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학교 안팎 연계의 부족이 지목되었다.

이때, 학교 안팎 연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는데 첫째,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와 둘째, 학교 밖 활동의 학교 안 인정 체계 연계의 측면이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등 교외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학교 교육과정 시간을 이용할 경우, 특정한 학생들만 정치참여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참여 경험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FGI 참여자들이 지적하였듯, 참여기구 등을 통한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이 일부 관심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이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반드시 성공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참여 그 자체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형성하고 참여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FGI 참가 청소년의 경험담은 청소년을 위한 참여 경험 제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연계에서의 한계점은 주로 학교 밖 참여 활동이 체험 중심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정치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의 장기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 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두 번째 정책적 지원 방안인 정치·시민교육 강화와 연결되는

문제로, 정치·시민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시수와 교육 목표, 성취 기준 등을 확보하게 된다면, 학교 밖 활동과도 유기적 연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학교 밖 참여 활동에 대한 학교 안 인정 체계 연계의 측면은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 동기 제공과 관련된 문제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교육부, 2018)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교육부, 2019)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록을 통해 학교 밖 정치참여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었다. 기존에 학교 밖 참여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단지 학생부 기록을 위해 참여 활동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참여 동기로 작용하였다. 특히나, 대학입시를 위시한 학업 중심의 학교 교육 구조 및 문화 속에서 참여 인센티브의 부재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청소년과 교사,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음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이 반드시 학생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현재의 사회 및 교육 구조 아래에서는 그러한 참여 동기가 제공되지 않을 때 청소년의 참여가 저조하기 쉬운 한편, 입시 준비와 연계될 수 있을 때 강력한 참여 동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공감된 인식을 의미한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 같은 지역적 특성이 참여 인원 모집을 제약하는 등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기반과 운영에 영향을 미쳐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 참여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단, 이때 참여 동기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은 제3장 청소년 정치참여 지원 자원의 현황과 한계에서 지적하였듯, 정규 교육과정 테두리 안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 안과 밖에 있는 청소년 모두에게 강력한 참여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 가지 실마리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우수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대안적 참여 동기의 제공 방안은 대입제도 이외에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기관, 교사공동체, 청소년 지도사 공동체 등의 협력 체제를 중심으로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법령 영역

(1)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치·시민교육의 제도적 원칙 수립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법령 영역에서의 첫 번째 정책적 지원 방안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치·시민교육의 제도적 원칙 수립이다. 앞서 교육 영역의 두 번째 정책적 지원 방안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과 학교 정치·시민교육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부재이다.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교육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교육의 영역을 넘어 사회 및 정치 영역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라는 원칙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와 핵심 주제, 교육 자료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시민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현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본래 학교 외부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외압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적에서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해석되어 마치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한 학교 교육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사가 학교에서 정치·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교육의 중립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교육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교사에게 주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교사들은 점차 정치·시민교육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양질의 정치·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보급이 시급하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치·시민교육의 목표와 핵심 주제, 교육 자료, 방법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틀 안에서 교사들이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학교 정치·시민교육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제3장에서 검토하였던 독일의 보이텔

스바흐 합의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1976년 독일 보이텔스바흐에서 이루어진 정치교육 교수법에 대한 전문가 합의 결과로서, 강제성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관계 인식 및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를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전문가들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정치·시민교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제도적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학계에서도 한국의 시민교육, 정치교육, 통일교육 등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제공하는 시사점에 관하여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예: 김병연, 2019; 김상무, 2019; 설규주, 정원규, 2020 등). 단, 이처럼 현장 전문가와 학계가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차용하여 정치·시민교육의 원칙으로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수립하고자 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친 합의 결과라기 보다는 연구자 및 교육자로 구성된 전문가 간의 논의의 결과이다(조상식, 2019). 하지만, 현재의 정치·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과 문제 제기 등과 같은 한국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정책적 가이드라인 수립 시 전문가 합의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 근거할 때 정치·시민교육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더욱 강력한 사회적 신뢰와 설득력을 얻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치·시민교육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와 시민성 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다.

(2) 내실 있는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교칙 개정

선거권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춘 2019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피선거권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춘 2021년의 공직선거법 개정, 그리고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춘 2022년의 정당법 개정 등,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의 제도적 정치참여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려는 정치 관계법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비를 계기로 청소년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의 시민적 지위와 정치참여에 소홀했던 그간의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볼 때 이는 괄목할 만한 변곡점이 아닐 수 없다. FGI와 자문에 참여했던 학교 안팎의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도 이러한 법령 정비의 의의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령 정비의 실효성, 즉 일련의 정치 관계법 정비가 실제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정치참여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관심과 이해 부족, 입시 위주의 교육,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기성세대)의 고정관념 등과 같은 고질적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개정된 정치 관계법과 관계법의 유권 해석 등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정 정당법은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입당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 미성년(공직선거법 기준) 청소년의 처지에서 정당 활동은 법정대리인의 승인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조건부’ 정치참여인 셈이다. 제약은 또 있다. 미성년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입당하더라도 이들은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18세가 되기 전까지 당비 납부 및 후원금 기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 당원 모집 등 통상적(또는 소극적) 정당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 운동, 당내경선 운동⁴⁹⁾ 등 적극적 정당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심지어 참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적법한 선거 운동이나 정당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그 공간이 학교라면 정치 관계법에 상관없이 해당 행위를 제한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정치참여 활동이 학교 질서,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에 의거 학교 내 선거 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하고 학교 시설의 이용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정치 관계법과 상관없이 학교 내에서의 정치참여 활동은 궁극적으로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자칫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 정치 관계법에 우선하거나 이러한 결정을 위해 인용한 교육 관계 법령 및 교칙이 정치 관계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운용 기준은 청소년의 시민적 지위와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단행된 일련의 법령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기탁금 조항 역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진 못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피선거권 행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문제는 정치 관계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어야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단위 학교에서 제정되는 학칙 가운데는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 및 통제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학생은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49)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은 예외

정당 또는 후보와 관련된 홍보를 하는 행위 등 선거 개입 관련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는 훈계부터 퇴학에 이르는 징계를 주는 교칙이 이에 해당한다(이준섭, 2022; 진주리, 2022).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정치 관계법, 중앙선관위의 운용 기준 등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적, 조건적 권리 부여 조항, 타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는 유권 해석 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입당에 대한 법적대리인의 동의 절차 폐지, 경제 자립도가 없는 청소년 피선거자의 기탁금 납부 유예 또는 면제,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 운동과 통상적 범위 이상의 정당 활동 허용, 교내 선거 운동과 정당 활동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재량권 행사 금지 또는 부득이한 행사 시 학생자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절차 진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칙 개정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고 징계하는 학칙에 대한 점검과 시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2022)는 단위 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정된 정치 관계법 및 운용 기준에 따라 학생의 정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비 사업은 학칙·생활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단위 학교 자체 점검, 시도 교육청 후속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데 해당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단위 학교의 자발적 호응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비 계획에 대한 현장 홍보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지도를 높이고, 학칙 정비가 필요한 단위 학교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교육청 단위에서 별도로 운영하여 문제적 학칙이 정비 사업에서 누락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3) 기구 영역

(1)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현재 우리 사회에는 학급회, 학생회, 학생의회,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특별회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지원하는 기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운영 근거와 주체, 활동 공간과 내용 등 세부적 특징은 기구별로 다르겠지만 이러한 기구가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공동체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시민적 지위와 권리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한 건전한 시민적 가치와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있다.

참여기구의 이러한 순기능은 현장 전문가 대상의 FGI와 자문은 물론 청소년 대상 FGI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참여기구 활동이 청소년에게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민감성)을 확장하며,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며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였다. FGI에 참여한 청소년 역시 참여기구 활동을 하며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정치적 효능감, 공동체와 사회 변화에 관한 관심,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력, 대인관계 능력 등의 시민적 역량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서도 참여기구 활동은 시민적 가치 규범에 대한 초·중·고생의 수용적 태도 함양에 있어 다른 정치참여 경험보다 더 많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기구 활동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학교 밖 정치참여기구 활동 경험이 전혀 없거나 안 한 지 1년이 넘었다고 응답한 초·중·고생이 75.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⁵⁰⁾ 이는 학교 밖 참여기구가 청소년 대다수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이르는 가능성마저 시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참여기구와 각 기구의 활동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인지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참여기구와 기구 활동 참여가 결코 '나의 일상'과 동떨어지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나의 활동'으로 인해 무엇인가 변화되어 가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 교육청, 또는 단위 기관(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등에서 산발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참여기구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포털 서비스의 구축과 관련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포털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 기준(예: 운영 방식, 활동 영역, 지역, 참가 대상, 기관 유형, 활동 시기, 검색어 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활동프로그램을 추려낼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개요, 누리집 등에 대한 세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 및 기능을 갖춘 참여기구 검색 포털이 구축돼 이용자가 자신의 수요에 부합하는 참여기구 및 자치활동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이는 참여기구와 자치활동에 대한 청소년

50) 학생 조사 설문지의 문항 15번 참조. 총 12개 유형의 학교 밖 정치참여 기구에 대한 참여 경험을 설문함. 보기 활동별로 '전혀 한 적 없음'과 '안 한 지 1년이 넘었음'에 0점,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에 1점을 부여 후 전체 점수를 합산했을 때 합산 점수가 0점인 경우가 75.1%에 달함.

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관계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개별 지자체, 교육청, 또는 단위 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우수 자치활동 소개 자료(자료집, 영상 등)가 참여기구 검색 포털에 일괄 게재된다면 효율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가 더 많은 기관에 공유됨으로써 양질의 참여기구 활동이 다양한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V-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활동 찾기 검색 화면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찾기 누리집(<https://www.youth.go.kr/youth/act/actSearch/allActSearchLst.yt?sCurSearchFlag=Y>)에서 2023년 10월 1일 인출

(2)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 방식 개편

참여기구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독립 홍보 채널의 구축 필요성이 제언의 한 축을 차지할 만큼 학교 안팎에서의 참여기구 활동은 청소년이 시민적 지위와 권리를 이해하고 시민적 가치와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참여기구 활동의 이러한 순기능이 기구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 전문가 집단 대상의 FGI와 자문, 참여기구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 대상의 FGI, 실태조사(학생 조사)⁵¹⁾에서 공통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 중 참여기구의 실질적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이 청소년 사이에서 강했다. 청소년 참여기구, 특히 학교 밖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의 등)의 역할은 청소년 현안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문제 인식을 공식적으로 의제화하고 그 결과가 지자체 또는 국가 수준의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절차적, 형식적 의견 수렴 과정만 강조될 뿐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기구의 의결은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책입안자 또는 전문가 집단이 사전에 협의하고 추려 놓은 정책과제를 청소년 위원들이 절차적으로만 의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 회의나 학생회 등 학교 안에서의 참여기구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학생회, 학급회의 등 학생자치회가 법제화되지 않고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또한 법제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자치 기구는 사실상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참여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자치 기구 활동을 위한 물리적 시간, 공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또한 자치 기구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학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내 참여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근본적으로 학교 관리자를 위시한 교원의 재량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학생 자치활동의 가치, 효능,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치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교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밖 참여기구를 조직·운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도 마찬가지다.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원이나 기관 실무자가 충분한 훈련과 학습 없이 자치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참여기구 활동의 역할과 효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대 역할과 효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여기구 활동은 결국 참여 주체의 동기 약화, 무관심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학교 안팎의 구분을 떠나 참여기구들이 청소년을 모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공통으로 겪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참여기구 활동이 청소년 대부분으로부터 외면받다 보니 청소년 사이에서 이러한 기구는 청소년 사이에서 ‘소수의 특별한 청소년’만을 위한,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물론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다수 청소년의 동기 결여와 무관심이 앞서 지적인 참여기구

51) 청소년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에 관한 설문(학생 조사 문항 20번) 결과 참여기구의 실질적 역할 부족이 전체 응답에서 차지한 비중이 12.3%로 집계됨.

의 문제적 운영 방식으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학교 안팎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 영역의 정책과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역시 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무관심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2019)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와 함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에도 청소년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청소년의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으로 언급돼 온 인센티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이상의 문제점 진단에 비춰볼 때 청소년 참여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기구의 활동과 권한이 절차적, 형식적 의제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주요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 활동이 공동체에 가져오는 변화를 기구 활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지역 청소년과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은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 위원이 의제 안 선정하고, 이들의 투표로 의결된 의제와 관련해 소관 정부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면 해당 부서가 이를 수용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반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참여’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동작구 사례(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 2022)는 지자체(동작구청)와 지역 내 청소년지원협의체(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진로직업체험센터, 교육복지센터, 성문화센터, 꿈드림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청소년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청소년 참여기구와 지역 청소년이 협업하여 공동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포용적(통합적)인 정책 참여 모델⁵²⁾로서 이러한 통합 모델은 청소년 정치참여가 참여기구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참여기구가 구심점이 돼 공동체 내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청소년의 내실 있는 정치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관내 청소년 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학생자치회의의 참여가 관계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정책의 수립 과정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를 규정하는 다양한 조례

52) 관내 청소년 참여기구와 지역 청소년이 연합한 동작구 청소년 통합 정책 제안회 개최, 통합 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관내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등

사례(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는 교내 청소년 자치 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회복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궁극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규정 개정 및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참여기구의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는 교원과 기관 실무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내 자치활동의 경우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안내 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단위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소속 연수기관 등에서 학생자치활동 지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원격 또는 집합 형태로 진행되는 연수를 통해 참여 교원은 우수사례 공유, 학생자치회 운영 실습 및 토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 밖 참여기구 운영자(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박 3일 일정의 집합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⁵³⁾ 교육 기간 참가자는 우수사례, 퍼실리테이션 기술, 회의/워크숍 설계 및 코칭, 지역자원 연계, 정책 제안 활동 프로세스 등에 관해 학습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연수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수가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교원 및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에 내실 있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즉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연수자의 이해(지식)와 경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수요, 이해 및 경험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매번 동일한 커리큘럼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연수라면 학습자의 입장에서 추가 참여 동기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교원 및 현장 실무자의 지속가능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 수준에 따라 연수 과정을 차등 설계(입문→중급→고급 또는 기초→심화)하고 수준별 이론·실습 커리큘럼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체계적 교육과정이 선행될 때 우수사례 공유, 퍼실리테이션 기술 학습, 회의/워크숍 설계 및 코칭 등의 활동도 소기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끝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안정된 재정 지원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수행해 왔던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53) 2023년 기준, 청소년자치활동(정책 참여) 담당자 과정 교육 2회(3월, 9월) 제공, 청소년자치활동(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자 과정 교육 2회(1월, 3월) 제공됨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지자체가 여가부와 함께 수행하던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102개 중 60개가 중단되고 30개는 지속 여부가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조해람, 2023). 이와 관련해 17개 시도의 2024년 청소년 예산을 전수 분석한 용혜인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청소년 참여기구사업은 서울, 대구, 울산, 경남, 강원에서 폐지됐고, 경기, 인천, 광주, 경북에서는 지속 여부가 검토 중이며 대전, 부산, 전북, 전남, 세종, 제주, 충북, 그리고 충남에서는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 운영할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각 지자체의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만 참여기구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된 상태다.

표 V-1 17개 시도 2024년 청소년 예산 편성 여부 현황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인권 교육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서울	X	X	X	X	X	X
경기	X	△	△	X	O	△
인천	X	X	X	X	X	△
대구	X	O	X	X	X	X
대전	X	X	X	X	X	O
광주	X	△	△	X	X	△
울산	X	X	X	X	X	X
부산	X	O	O	△	△	O
전북	X	O	O	X	X	O
전남	X	O	O	X	X	O
경북	X	△	△	X	X	△
경남	X	O	O	X	X	X
강원	X	X	X	X	X	X
세종	X	O	O	O	O	O
제주	O	O	O	X	O	O
충북	X	O	O	X	X	O
충남	O	O	X	X	X	O

* 출처: 용혜인 의원실 (2023.10.30.) [국정감사/보도자료] 여가부 청소년 예산삭감에 지자체도 사업 중단…청소년 정책 비상등.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pageid=1&mod=document&category1=%EA%B5%AD%E C%A0%95%EA%B0%90%EC%82%AC&uid=3842>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 주1) O: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 편성 / △: 자체 편성 검토 중 / X: 사업 폐지
 주2)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변동될 수 있음.

물론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차치하고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참여기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두 위원회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법정 운영 기구라는 점에서 여타 참여기구와 다른 지위적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을 위한 참여기구 활동 지원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 확보의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가족부가 매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정책 분석·사업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 5항에 근거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각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 정책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약 2025년에 시행되는 평가 사업에서 각 지자체가 2024년 국비 지원이 삭감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에 얼마나 자체 재원을 편성하여 참여 활동의 지속과 활성화를 도모했는지가 평가된다면 참여기구 운영 예산 편성에 대한 각 지자체의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안정적, 고정적으로 편성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교육부 (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교육부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2022.2.25.).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주요 사항 안내(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0777>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교육부 (2023a). 2023년도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3b).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기본계획(안).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4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4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2023년 5월 15~16일, 6월 26일 인출.

-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학생인권 관련 조례 검색
- 서울, 충남, 부산, 경기, 경남, 대전, 세종, 제주, 학생자치활동지원 관련 조례 검색
- 광주, 전남, 충남 참정권 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 검색
-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 경기, 경북,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검색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gesis.org/en/issp/modules/issp-modules-by-topic/citizenship/2014>에서 2023년 6월 26일 인출.

- 권순정, 윤노아, 임혜정, 조현서, 정지수 (2022). **학생들의 정치참여 경험을 통한 학교 시민교육 실천 방안 모색** (서교연 2022-70).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성용, 강태수 (2022).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해석론. **교육법학연구**, 34(1), 1-28
- 길혜지, 박지민, 조효제 (2020). 청소년의 시민성 관련 활동, 시민적 효능감, 미래 정치참여 의식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41(3), 165-189.
- 김동진, 김재우 (2021). 민주적 학급풍토가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 효능감의 매개효과-. **시민교육연구**, 53(1), 1-25.
- 김명정 (2009).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민주적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치정보연구**, 12(2), 119-143.
- 김명정 (2010). 참여지향적 청소년 정치교육의 과제. **시민청소년학연구**, 1(2), 5-28.
- 김명정 (2017). 정치교육이 고등학생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Oughtopia (오토피아)**, 32(1), 101-123
- 김병연 (2019).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윤리연구**, 1(126), 307-332.
- 김상무 (2019). 독일의 정치·사회적 쟁점교육 원칙으로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와 한국 학교교육에 적용가능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25(6), 177-197.
- 김성태, 이하랑, 조건우, 최세진 (2021.12.20.). ‘정치교육’ 없는 청소년 투표, 의미 없어.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33> 에서 2023년 1월 16일 인출.
- 김아영, 장여옥 (2021). 청소년의회 참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8(8), 117-140.
- 김영인 (1999).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관한 시론. **시민교육연구**, 29(1), 43-65.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6), 99-127.
- 김윤희, 남화성 (2022).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22-수시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호 (2023.05.17.). 김용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4897> 에서 2023년 5월 20일 인출.

- 김준홍 (2012). 가족내부 인적 ·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시민교육의 성과. **한국교육**, 39(4), 5-34.
- 김현경, 김신영 (201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7(2), 29-52.
- 남미자, 강민진, 홍세영 (2020).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이슈페이퍼).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남미자, 장아름 (2020).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7(1), 31-60.
- 남인용, 허일수 (2012).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치 효능감과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참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4, 5-35.
- 남화성 (2016).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1), 55-85.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세계 시민 아카데미’(<https://www.dile.or.kr/OrgPageHome.do?cmd=viewPage&pageCd=PAGE153>)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youthassembly.or.kr/main.php>에서 2023년 5월 16일 인출.
- 탐페레시 홈페이지 내 ‘어린이의회’<https://www.tampere.fi/en/take-part-and-influence/influencing-children-and-youth/childrens-parliament>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 모상현, 이창호 (2012).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정치참여/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3(1), 41-64
- 모상현, 최용환, 남미자, 정건희 (2021).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연구보고 21-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민희 (2022). 청소년 시민의식과 학교 시민교육: 교실 환경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연구**, 25(1), 169-191.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선형 (2020).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의 쟁점과 발전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27(4), 27-56.
- 박성준, 김주일 (2015). 교사의 수용적 태도가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185-213.
- 박은아, 성경희, 배희순 (2022). **초·중등학교 참정권 교육의 방향과 과제**(연구자료 ORM 2022-68-5).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 배영민 (2018). 중등학교 사회과에서 선거 연령의 하향에 대비한 시민교육의 개혁 -지식 위주에서 쟁점 중심으로 선거교육의 전환을 기대하며-. **사회과교육**, 57(3), 69-88.
- 사단법인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https://www.knowhow.or.kr>에서 2023년 5월 15일 인출.
- 사단법인 청정 홈페이지 <https://thechungjung.org>에서 2023년 5월 15일 인출.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내 ‘온라인시민대학’ (https://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DetailInfo2.do?course_id=ASP00001S100120220104854&class_no=01&course_gubun=1&mnid=202110700556&simin_yn=O&place_gubun=%EC%98%A8%EB%9D%BC%EC%9D%B8%20%EC%8B%9C%EB%AF%BC%EB%8C%80%ED%95%99)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smc.seoul.kr>에서 2023년 5월 15일 인출.
- 서현수 (2021). 미래를 대표하기(Representing the Future):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 설규주, 정원규 (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시민교육연구**, 52(2), 229-260.
- 송성민 (2022). 사회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인식 분석. **법교육연구**, 17(3), 63-97.
- 신민철, 이정용 (2020).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 에듀넷·티-클리어 홈페이지 https://www.edunet.net/nedu/info/infoEdunet.do?menu_id=7047에서 2023년 10월 15일 인출.
- 에스푸시 홈페이지 내 ‘청소년의회’ <https://www.espuo.fi/fi/tietoa-nuorisovaltuustovaaleista>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2017).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8). **2018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9). **2019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2020).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사례집**.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2021).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2022).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영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byc.org.uk/uk/uk-youth-parliament>)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옥일남 (2017). 시민성 교육을 위한 참여의 유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49(2), 55-88.

용혜인 의원실 (2023.10.30.) [국정감사/보도자료] 여가부 청소년 예산삭감에 지자체도 사업 중단...청소년 정책 비상등. <https://www.basiceincomeparty.kr/news/briefing?pageid=1&mod=document&category1=%EA%B5%AD%EC%A0%95%EA%B0%90%EC%82%AC&uid=3842>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우리말샘 (2023a). 시민.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5817&viewType=confirm에서 2023년 1월 25일 인출.

- 우리말샘 (2023b). 시민성.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634425&viewType=confirm에서 2023년 1월 25일 인출.
- 우리말샘 (2023c). 정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69647&viewType=confirm에서 2023년 1월 25일 인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서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혜영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141-166.
- 유혜영 (2020). **민주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참여적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민 (2013). 청소년의 정치적 정향 유형에 따른 성인기 정치참여 의사의 차이. **시민청소년학연구**, 4(2), 51-78.
- 이봉민 (2014). 청소년의 참여 경험과 정치 활동 유형별 참여 의사의 관계. **시민교육연구**, 46(1), 183-212.
- 이상옥, 손은령 (2020). 한국과 대만 청소년의 학교 경험과 학교 밖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인문사회** 21, 11(5), 991-1003.
- 이승중, 김혜정 (2018). **시민참여론**. 박영사.
- 이용교, 이중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참여 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윤주 (2015).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천중심 기능학습의 필요성 -사회과교육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동향을 기반으로-. **시민교육연구**, 47(2), 85-113.
- 이윤주 (2020).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선거교육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참정권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과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편), 교과서에서의 선거교육. **교과서 연구**, 99, 22-41.
- 이재신, 이영수 (2009). 정치정보 습득, 관여도, 정치적 불만과 정치참여 유형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3(2), 183-205.
- 이정진 (2018).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1466호, 1-4.
- 이준섭 (2022.2.10.). '학칙, 여전히 학교운영 참여 규제'.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5456>에서 2023년 7월 16일 인출.

- 이지영, 김아미, 이윤주 (2022). **고등학교 정치·선거 교육의 실태** (이슈페이퍼 2022-04).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혜숙, 이영주 (2017). 서울시 청소년참여 활성화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임유진, 김명정(2022). 독일과 영국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정치교육-우리나라 참정권 교육에의 함의- **법교육연구**, 17(3), 159-181.
- 장근영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IEA ICCS 2016- ICCS 결과 보고서**(연구보고 18-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7-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박수익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모상현,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허효주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예지, 서현재 (2022.8.10) '어리지만 베테랑입니다...유럽의 청년정치인,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6>에서 2023년 9월 26일 인출.
- 조상식 (2019).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관한 교육 이론적 검토. **교육철학연구**, 41(3). 149-174.
- 조해람 (2022.3.26.). '고교생 유권자' 시대 왔지만...학칙엔 정치활동하면 "퇴학".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062210025#c2b>에서 2023년 1월 16일 인출.
- 조해람 (2023.10.29.). 학폭예방까지...여가부 '참여·지원 예산 삭감'에 관련 청소년사업 90% '흔들'.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291400011>에서 2023년 11월 24일 인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1.28.). **중앙선거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34818>에서 2023년 5월 25일 인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1.27.). **중앙선거위,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발표**(보도자료). <https://www.nec.go.kr/cmm/dozen/view.do?cbIdx=1090&bcIdx=158677&fileNo=1>에서 2023년 1월 11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에서 2023년 5월 17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9)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3). 2023 교육·연수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civicedu.go.kr>에서 2023년 5월 17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https://www.give.go.kr>에서 2023년 9월 26일 인출.

진냥 (2021.8.13.).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214563701232>에서 2022년 1월 19일 인출.

진주리 (2022.3.7.). **‘고교생 첫 대선...낯은 학칙 발목’.**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268>에서 2023년 7월 16일 인출.

청년정치학교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th_politics에서 2023년 5월 15일 인출.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에서 2023년 5월 16일 인출.

최원형, 이유진 (2020.3.23.). **학생도 정치 주체인데...‘교실 정치화’ 우려는 시대 역행.**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5021.html>에서 2023년 1월 16일 인출.

한국선거학회 (2020). **청년의 대표성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 <http://youthnet.or.kr>에서 2023년 5월 16일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찾기 누리집. <https://www.youth.go.kr/youth/act/actSearch/allActSearchLst.yt?sCurSearchFlag=Y>에서 2023년 10월 1일 인출.

한은영,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헌법재판소 (2004.3.25.). 2001헌마710, 공보 제91호, 446. https://search.court.go.kr/th/s/pr/th_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7756&eventNo=2001%ED%97%8C%EB%A7%88710&pubFlag=0&cId=010200&selectFont=에서 2023년 1월 10일 인출.

황미영 (2021). 사회적 신뢰가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1(20), 837-854.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Barnes, S., & Kasse, M.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societies*. Beverly Hills: Sage.

Bellamy, R. (2008). *Citizenship: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Szeman, I., & Kaposy, T. (ed). *Cultural theory: An anthology*(pp 81-93). Hoboken: Wiley-Blackwell.

Carr, W. (1991). Education for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9(4), 373-385.

Conge, P. J. (1988). The Concept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ward a Definition. *Comparative Politics*, 20(2), 241-249.

Craig, S. C., & Maggiotto, M. A. (1982). Measuring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8(3), 85-109.

Dalton, R. J. (2008).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56(1), 76-98.

Denters, B., Gabriel, O., & Torcal, M. (2007). Norms of good citizenship. J. W. van Deth, J. R. Montero, & A. Westholm (Eds.), In *Citizenship and Involvement in European Democracies* (pp. 112-132). Oxford: Routledge.

Dynneson, T. L. (1992). What Does Good Citizenship Mean to Students?. *Social Education*, 56(1), 55-58.

Finkel, S. E. (1985). Reciprocal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 Pan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4), 891-913.

Giddens, A., & Sutton, P. (2022).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역). 경기도: 동녘. (원서출판: 2021).

Held, D. (2006). *Models of democracy*. London: Polity Press.

Huntington, S. P., & Nelso, J.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Kymlicka, W. (2005).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장휘, 우정열, 백성욱 역). 파주: 동명사. (원서출판: 2001).
- Marshall, T. H., & Bottomore, T. (2014). **시민권**. (조성은 역). 서울: 나눔의집. (원서출판: 1992).
- Milbrath, L. W.,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 Co.
- Print, M. (2020). 민주시민성 역량의 개념화: 델파이 접근법. M. Print (Ed.),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발달** (pp.199-218). (김국현 역), 서울: 한국문화사.
- Putnam, R. D. (2016) **나 홀로 불링: 불링 얼론-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정승현, 역). 서울: 페이퍼로드.
- Schatz, R. T., Staub, E., & Lavine, H. (1999). On the varieties of national attachment: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Political psychology*, 20(1), 151-174.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Losito, B., & Agrusti, G. (2016).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Assessment Framework*. Cham: Springer Nature.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Hamburg: IEA.
- Van Deth, J. W. (2007). Norms of Citizenship. R. Dalton, & H. D. Klingemann (Eds.), In *The Oxford Handbooks of Political Science* (pp.402-4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eth, J. W. (2020). 시민성과 일상의 적극적 시민성 현실. M. Print (Ed.),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발달** (pp.11-28). (김국현 역). 서울: 한국문화사.
- Verba, S., Nie, N. H. & Kim, J. O.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 Schlozman, K. L., &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Villalobos, C., Morel, M. J., & Treviño, E. (2021). What is a “good citize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Good citizenship for the next generation*, 13-32.
- Westheimer, J., & Kahne, J. (2004).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 237-269.
- Youth Parliament(2022). Make your Mark 2022. <https://byc2016.wpenginpowered.com/wp-content/uploads/2022/03/UK-Youth-Parliament-Make-Your-Mark-Results-Report-2022.pdf>에서 2023년 10월 5일 인출.
- 文部科學省 (2018). 私たちが拓く日本の未来.
- 文部科學省 (2023a).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平成 30 年告示) 解説公民編.
- 文部科學省 (2023b). 中学校学習指導要領 (平成29年告示) 解説社会編.
- 1주기(2019-2022)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성과자료집.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nts_no=200308&biz_no=408&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 2023 2학기 서울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프로그램북.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SiminProgramBookView.do?mnid=202110700556)에서 2023년 11월 22일 인출.

○ — 부 록

- 1. 표본설계서
- 2. 설문지(초등)
- 3. 설문지(중·고등)
- 4. 학교 특성 설문지

부록

부록 1. 표본설계서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전체 조사 대상 학생 수는 3,995,297명이며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생 1,384,521명(34.7%), 중학생 1,348,428명(33.8%), 고등학생 1,262,348명(31.6%)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성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분포는 <부록표-1>~<부록표-6>에 정리하였다(2022년 4월 교육 통계 DB 기준).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다음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 중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 유형 4(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예술, 체육, 해양,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고 중 대안, 일반고등학교

부록표-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9,359	67,248	68,272	64,323	68,560	72,504	605	605	605	386	389	389
경기	135,229	130,650	129,696	122,254	126,649	131,442	1,317	1,316	1,319	653	651	649
인천	27,362	27,124	26,481	25,272	25,938	27,617	259	260	259	142	142	142
강원	12,768	12,582	12,595	12,173	12,366	13,383	336	336	343	159	161	160
충북	14,795	14,533	14,584	13,664	14,039	14,898	254	253	255	127	127	128
충남	20,867	20,507	20,289	19,340	19,902	20,641	409	410	409	185	185	185
대전	13,420	13,338	13,235	12,657	13,388	14,258	149	149	149	89	89	89
세종	5,654	5,368	5,278	4,970	5,068	4,771	52	52	52	27	27	27
경북	22,723	21,994	21,385	20,424	21,193	22,193	454	459	453	260	258	261
경남	33,281	32,523	32,161	30,245	31,570	33,222	496	499	503	265	264	264
부산	27,284	26,399	25,935	23,770	25,029	26,142	304	302	304	170	170	169
대구	21,451	20,849	20,717	19,409	20,521	22,045	233	233	233	125	125	124
울산	11,785	11,181	11,153	10,554	10,911	11,501	119	121	121	64	64	64
전북	16,157	16,207	16,319	15,598	16,204	17,282	406	403	412	206	211	209
전남	16,241	16,027	15,888	15,023	15,397	16,406	422	421	425	249	249	250
광주	14,966	14,408	14,713	13,818	14,263	15,505	153	153	153	91	90	91
제주	7,437	7,147	6,956	6,560	6,605	6,961	113	113	114	45	45	45
합계	470,779	458,085	455,657	430,054	447,603	470,771	6,081	6,085	6,109	3,243	3,247	3,246

부록표-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구분	인문계고						전문계고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수목적고)			유형 4(특성화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49,590	46,496	50,681	6,003	5,732	5,812	1,869	1,813	1,821	11,748	12,005	13,818
경기	94,432	86,123	91,712	1,300	1,257	1,276	2,233	2,286	2,311	19,511	18,698	19,756
인천	18,584	17,097	17,926	787	752	744	782	762	681	4,219	4,422	5,004
강원	8,976	8,891	9,281	152	150	151	163	167	140	2,841	2,830	3,079
충북	8,673	8,220	8,854	720	697	782	200	210	202	3,543	3,399	3,612
충남	14,107	12,947	13,560	996	937	983	209	210	187	4,026	3,800	4,119
대전	8,615	7,970	8,921	2,141	2,113	2,199	405	405	395	1,952	1,950	2,087
세종	3,555	2,985	2,984	206	201	204	191	180	177	269	250	282
경북	14,483	14,077	14,446	2,111	2,039	2,101	224	197	173	4,581	4,092	4,462
경남	23,927	22,732	24,193	425	409	458	491	480	422	3,773	3,491	3,812
부산	15,874	15,382	16,739	540	494	559	946	914	861	6,037	5,738	6,077
대구	13,648	13,615	14,663	1,124	1,089	1,007	402	354	269	4,350	4,229	4,623
울산	7,815	7,340	7,855	180	175	178	198	220	181	1,828	1,741	1,846
전북	12,383	12,054	12,808	342	357	357	184	183	171	3,066	3,010	3,350
전남	9,364	8,832	9,418	1,480	1,417	1,510	178	205	179	4,102	3,929	4,299
광주	10,974	10,308	11,223	556	582	624	98	99	96	2,408	2,289	2,436
제주	4,546	4,313	4,428	·	·	·	142	132	114	1,542	1,437	1,439
합계	319,546	299,382	319,692	19,063	18,401	18,945	8,915	8,817	8,380	79,796	77,310	84,101

부록표-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구분	인문계고									전문계고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수목적고)			유형 4(특성화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12	211	211	18	18	18	10	10	10	79	80	80
경기	354	353	348	4	4	4	13	13	13	115	115	115
인천	85	84	82	4	4	4	6	6	6	32	32	32
강원	76	76	77	1	1	1	2	2	2	35	35	35
충북	47	47	47	4	4	4	2	2	2	29	29	29
충남	70	70	70	5	5	5	2	2	2	40	40	40
대전	39	39	39	7	7	7	3	3	3	13	13	13
세종	15	15	14	1	1	1	2	2	2	3	3	3
경북	113	112	113	12	12	12	3	3	3	56	55	55
경남	145	145	145	2	2	2	4	4	4	39	39	39
부산	92	92	92	4	4	4	6	6	6	40	40	39
대구	63	63	63	5	5	5	4	4	3	22	22	22
울산	41	41	42	1	1	1	2	2	2	12	12	12
전북	90	91	90	1	1	1	2	2	2	39	39	39
전남	77	78	78	8	8	8	2	2	2	55	55	56
광주	48	48	48	3	3	3	1	1	1	16	16	16
제주	19	19	19	·	·	·	2	2	2	9	9	9
합계	1,586	1,584	1,578	80	80	80	66	66	65	634	634	634

부록표-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5,491	34,479	35,078	33,868	32,769	33,194	33,197	35,613	37,657	31,126	32,947	34,847
경기	69,176	66,792	66,544	66,053	63,858	63,152	62,755	64,863	67,166	59,499	61,786	64,276
인천	14,031	13,974	13,597	13,331	13,150	12,884	12,985	13,157	14,140	12,287	12,781	13,477
강원	6,499	6,519	6,524	6,269	6,063	6,071	6,264	6,376	7,035	5,909	5,990	6,348
충북	7,530	7,425	7,506	7,265	7,108	7,078	7,055	7,282	7,698	6,609	6,757	7,200
충남	10,650	10,633	10,544	10,217	9,874	9,745	9,987	10,228	10,754	9,353	9,674	9,887
대전	6,876	6,900	6,826	6,544	6,438	6,409	6,518	6,898	7,301	6,139	6,490	6,957
세종	2,901	2,781	2,718	2,753	2,587	2,560	2,525	2,495	2,331	2,445	2,573	2,440
경북	11,798	11,390	11,043	10,925	10,604	10,342	10,689	11,080	11,574	9,735	10,113	10,619
경남	17,145	16,642	16,670	16,136	15,881	15,491	15,630	16,264	17,165	14,615	15,306	16,057
부산	14,038	13,428	13,351	13,246	12,971	12,584	12,270	12,828	13,436	11,500	12,201	12,706
대구	11,002	10,698	10,721	10,449	10,151	9,996	9,996	10,654	11,283	9,413	9,867	10,762
울산	6,066	5,816	5,816	5,719	5,365	5,337	5,518	5,639	5,911	5,036	5,272	5,590
전북	8,340	8,241	8,391	7,817	7,966	7,928	8,004	8,414	8,900	7,594	7,790	8,382
전남	8,171	8,069	8,289	8,070	7,958	7,599	7,683	7,991	8,451	7,340	7,406	7,955
광주	7,786	7,421	7,569	7,180	6,987	7,144	7,118	7,301	8,091	6,700	6,962	7,414
제주	3,801	3,723	3,617	3,636	3,424	3,339	3,388	3,402	3,585	3,172	3,203	3,376
합계	241,301	234,931	234,804	229,478	223,154	220,853	221,582	230,485	242,478	208,472	217,118	228,293

부록표-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구분	인문계고									전문계고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수목적고)			유형 4(특성화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999	23,704	25,701	4,386	4,169	4,256	665	646	620	5,530	5,520	6,199
경기	48,163	44,260	47,435	611	519	558	777	732	727	10,500	10,044	10,393
인천	9,552	8,735	9,210	513	512	500	366	357	298	2,220	2,330	2,598
강원	4,564	4,512	4,716	84	83	85	87	85	67	1,657	1,644	1,816
충북	4,210	4,071	4,429	409	422	485	88	92	82	2,052	1,967	2,100
충남	7,096	6,523	6,849	646	592	604	98	78	73	2,331	2,152	2,360
대전	3,982	3,722	4,167	1,565	1,542	1,592	178	184	173	1,107	1,144	1,194
세종	1,821	1,509	1,497	112	111	104	103	74	85	98	100	125
경북	6,946	6,708	6,960	1,368	1,293	1,340	118	95	76	3,026	2,793	3,012
경남	11,896	11,444	12,273	308	310	352	241	227	164	2,436	2,202	2,467
부산	7,576	7,417	8,018	540	494	559	471	467	392	3,497	3,427	3,613
대구	6,843	6,824	7,380	479	476	412	221	184	149	2,605	2,620	2,812
울산	3,829	3,683	4,004	87	87	88	91	109	72	1,202	1,122	1,190
전북	6,119	6,182	6,447	231	239	237	90	91	57	1,875	1,800	1,969
전남	4,274	4,029	4,405	1,062	1,054	1,122	86	101	82	2,333	2,220	2,468
광주	5,413	5,102	5,615	401	418	454	82	83	77	1,349	1,291	1,327
제주	2,315	2,199	2,299	.	.	.	59	58	49	867	856	830
합계	159,598	150,624	161,405	12,802	12,321	12,748	3,821	3,663	3,243	44,685	43,232	46,473

부록표-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구분	인문계고						전문계고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수목적고)			유형 4(특성화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591	22,792	24,980	1,617	1,563	1,556	1,204	1,167	1,201	6,218	6,485	7,619
경기	46,269	41,863	44,277	689	738	718	1,456	1,554	1,584	9,011	8,654	9,363
인천	9,032	8,362	8,716	274	240	244	416	405	383	1,999	2,092	2,406
강원	4,412	4,379	4,565	68	67	66	76	82	73	1,184	1,186	1,263
충북	4,463	4,149	4,425	311	275	297	112	118	120	1,491	1,432	1,512
충남	7,011	6,424	6,711	350	345	379	111	132	114	1,695	1,648	1,759
대전	4,633	4,248	4,754	576	571	607	227	221	222	845	806	893
세종	1,734	1,476	1,487	94	90	100	88	106	92	171	150	157
경북	7,537	7,369	7,486	743	746	761	106	102	97	1,555	1,299	1,450
경남	12,031	11,288	11,920	117	99	106	250	253	258	1,337	1,289	1,345
부산	8,298	7,965	8,721	0	0	0	475	447	469	2,540	2,311	2,464
대구	6,805	6,791	7,283	645	613	595	181	170	120	1,745	1,609	1,811
울산	3,986	3,657	3,851	93	88	90	107	111	109	626	619	656
전북	6,264	5,872	6,361	111	118	120	94	92	114	1,191	1,210	1,381
전남	5,090	4,803	5,013	418	363	388	92	104	97	1,769	1,709	1,831
광주	5,561	5,206	5,608	155	164	170	16	16	19	1,059	998	1,109
제주	2,231	2,114	2,129	.	.	.	83	74	65	675	581	609
합계	159,948	148,758	158,287	6,261	6,080	6,197	5,094	5,154	5,137	35,111	34,078	37,628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 추출 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 방법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 임의 추출의 상황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 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 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 (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 내용이 비율이면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 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 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 비용과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3,119명, 중학교: 3,038명, 고등학교: 2,844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 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 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모집단을 2022년 4월 교육통

계 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구분 : 17개 시도
- 학교 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4(특성화고)는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 한다. 또한 유형 3(특수목적고)은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3) 표본 배분

학생 수에 단순 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부록표-7>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부록표-8>과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51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처럼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하면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 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16명(학년당 약 5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25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5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록표-9>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으로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 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 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25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부록표-10〉 및 〈부록표-11〉과 같다.

부록표-7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서울	462	463	331	40	59	85
경기	891	857	613	14		161
인천	182	178	121			
강원	85	85	61			
충북	99	96	58	28		86
충남	139	135	91			
대전	90	91	57			
세종	37	33	21			
경북	149	144	97	29		137
경남	221	214	160			
부산	179	169	108			
대구	142	140	94			
울산	77	74	52	16		75
전북	110	111	84			
전남	108	105	62			
광주	99	98	73			
제주	49	45	30			
합계	3,119	3,038	2,114	127	59	543

* 총계: 9,000명

부록표-8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특성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18.5	17.1	13.2	1.6	2.4	3.4
경기	35.6	31.7	24.5	0.6		6.4
인천	7.3	6.6	4.8	1.1		3.4
강원	3.4	3.2	2.4			
충북	4.0	3.6	2.3			
충남	5.6	5.0	3.7			
대전	3.6	3.4	2.3			
세종	1.5	1.2	0.9	1.2		5.5
경북	6.0	5.3	3.9			
경남	8.8	7.9	6.4			
부산	7.2	6.3	4.3			
대구	5.7	5.2	3.8			
울산	3.1	2.8	2.1	0.7		3.0
전북	4.4	4.1	3.4			
전남	4.3	3.9	2.5			
광주	4.0	3.6	2.9			
제주	1.9	1.7	1.2			
합계	124.9	112.6	84.6	5.2	2.4	21.7

* 총계: 351.4개

부록표-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 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70,779	1,384,521 (34.7%)	3,119 (34.7%)	2,925 (32.3%)		
		5	458,085					
		6	455,657					
중학교	중학교	1	430,054	1,348,428 (33.8%)	3,038 (33.8%)	2,916 (32.2%)		
		2	447,603					
		3	470,771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319,546	938,620 (23.5%)	2,114 (23.5%)	1,950 (21.5%)		
		2	299,382					
		3	319,692					
	유형 2 (자율고)	1	19,063	56,409 (1.4%)	127 (1.4%)	375 (4.1%)		
		2	18,401					
		3	18,945					
	유형 3 (특수 목적고)	1	8,915	26,112 (0.7%)	59 (0.7%)	150 (1.7%)		
		2	8,817					
		3	8,380					
	유형 4 (특성학교)	1	79,796	241,207 (6.0%)	543 (6.0%)	750 (8.3%)		
		2	77,310					
		3	84,101					
합계			3,995,297 (100.0%)	9,000 (100.0%)	9,066 (100.0%)			

부록표-10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서울	18(6)	15(5)	9(3)	3(1)	6(2)	6(2)
경기	33(11)	27(9)	18(6)	3(1)		6(2)
인천	6(2)	6(2)	6(2)	3(1)		6(2)
강원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3(1)		6(2)
경북	6(2)	6(2)	3(1)			
경남	9(3)	9(3)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3(1)		6(2)
울산	3(1)	3(1)	3(1)			
전북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17(39)	108(36)	78(26)	15(5)	6(2)	30(10)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354(118)개

부록표-1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서울	450	405	225	75	150	150
경기	825	729	450	75		150
인천	150	162	150			
강원	75	81	75			
충북	75	81	75	75		150
충남	150	162	75			
대전	75	81	75			
세종	75	81	75			
경북	150	162	75	75		150
경남	225	243	150			
부산	150	162	75			
대구	150	162	75			
울산	75	81	75	75		150
전북	75	81	75			
전남	75	81	75			
광주	75	81	75			
제주	75	81	75			
합계	2,925	2,916	1,950	375	150	750

* 총계: 9,066명

(4) 표본 추출

각 학교 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 학교의 추출은 <부록표-10>에 주어진 표본 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 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 학교를 선정하되, 학년별 학교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 학교 내에서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 거절로 조사할 수 없을 때, 같은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 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 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 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 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 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사후층화를 위해 <부록표-4>, <부록표-5>, <부록표-6>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2022년 4월 교육통계 DB기준), 4개의 그룹(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후 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 초등학교: 지역(17개)×학년×성별
- 중학교: 권역(5개)×학년×성별
- 인문계고(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권역(5개)×학년×성별
- 전문계고(특성화고): 권역(5개)×학년×성별

3)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 추출은 일종의 층화 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 구분과 지역

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 추출 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 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 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 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그리고 최초 표본 단위가 단위 무응답이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 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 = 1, 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 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 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 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 구분×지역 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같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집락의 총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률, n_h/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j}} w_{hij} (Y_{hij} - \bar{Y}) \right) / w_{h\cdot\cdot}$$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부록 2. 설문지(초등)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초등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갖는 중요성과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응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 후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참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시기관

Research & Research
Marketing Research · Public-Opinion Poll and Consulting · ISO 9001 Certified Company · National License of JMSI

※ 담당자: 지민우 연구원 jimw@randr.co.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최정원 연구위원 doccjw@nypi.re.kr
이인영 부연구위원 iylee417@nypi.re.kr

조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연락해주시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44-415-2152
바랍니다.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출생 연도와 달, 학교급, 학년, 성별, 부모(보호자)의 학력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별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표시하나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X	②	③	④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21-1

편소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5

2순위

3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

학생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상당히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모든 선거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2) 정당 단체에 가입하기	①	②	③	④
3) 역사 공부하기	①	②	③	④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 가지기	①	②	③	④
5)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에 대한 존경심 표현하기	①	②	③	④
6) 정치 토론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7) 불공정한 법에 반대하는 평화적 항의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8)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9) 인권 확대 운동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10) 환경 보호 운동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11) 열심히 일하기	①	②	③	④
12) 항상 법을 잘 지키기	①	②	③	④
13)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①	②	③	④
14)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 (예: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①	②	③	④
15)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①	②	③	④
16)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①	②	③	④
17) 가난한 국가의 국민 돕기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2

다음의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4)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같은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같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7) 아이를 키우는 일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다음의 민족 집단 및 인종 간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모든 인종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모든 인종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인종의 사람들은 선거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모든 인종의 사람들은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다음의 단체, 기관 혹은 정보출처를 어느 정도 믿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믿지 않음	약간 믿음	상당히 믿음	완전히 믿음
1) 중앙 정부 부처 ※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일을 수행하는 곳: 청와대, 국방부 등	①	②	③	④
2) 지방 자치 정부 ※ 우리 지역의 일을 수행하는 곳: 시청, 구청 등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경찰	①	②	③	④
5) 정당 ※ 정당 : 정치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	①	②	③	④
6) 국회	①	②	③	④

5

다음에 제시된 한국에 관한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태극기는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한국을 매우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3) 한국이 이룬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6

다음의 활동을 본인이 얼마나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못 할 것 같음	잘 할 것 같음	상당히 잘할 것 같음	매우 잘할 것 같음
1)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하기	①	②	③	④
2)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 주장하기	①	②	③	④
3) 학교 선거 후보자로 나가기	①	②	③	④
4)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 모임 만들기	①	②	③	④
5) 논쟁적 문제에 대한 텔레비전 토론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6) 신문에 현재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편지로 보내기	①	②	③	④
7)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해 학급에서 발표하기 ※ 예: 환경오염, 기후변화 문제 등	①	②	③	④

다음은 정치적 효능감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정치적 효능감: 자신의 정치참여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내 주변 사람들과 달리, 아무리 어려운 정치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중요한 정치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잘 분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TV 시사토론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정치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별 어려움 없이 내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뉴스를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금세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남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가능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소식은 듣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9) 결론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은 의미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복잡한 정치 소식을 읽거나 보는 일을 가능한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1) 잡지나 신문을 읽을 때, 정치 뉴스에는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치 뉴스나 기사를 꼭 챙겨서 시청하거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4) 잘 모르는 시사뉴스를 접하더라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학교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안 할 것 같음	잘 안 할 것 같음	상당히 할 것 같음	매우 할 것 같음
1)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하기	①	②	③	④
2) 내가 찬성하는 사회적 주제를 위해 학생운동 단체에 가입하기	①	②	③	④
3) 학급 임원이나 전교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기	①	②	③	④
4) 학생회 회의에서 토의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5) 학교 신문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의 기사 작성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아래의 내용은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면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생각인가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안 할 것 같음	아마도 안 할 것 같음	아마도 할 것 같음	확실히 할 것 같음
1) 우리 지역 선거(예: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에서 투표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 선거(예: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서 투표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3)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기	①	②	③	④
4) 선거 운동하는 후보자 돕기	①	②	③	④
5) 정당에 가입하기	①	②	③	④
6)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 노동조합: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만든 모임	①	②	③	④
7) 지방 선거 후보로 나가기하기	①	②	③	④
8) 사회적/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 가입하기	①	②	③	④
9) 우리 지역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하기	①	②	③	④
10)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기 (예: 물 절약)	①	②	③	④

정치참여

수업 시간에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일어나지 않음	거의 일어나지 않음	가끔 일어남	자주 일어남
1)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교실에서 토론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교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문제를 토론하도록 권장하신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말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규칙과 약속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반 학생들은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존중하며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자유, 평등 등 민주적 가치의 뜻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8) 우리 학교와 학급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9) 우리 학교는 학생회와 약속한 내용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학교는 학급회의를 통해 우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행사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 예: 현장체험학습 장소 선정, 체육대회 운영 등	①	②	③	④
12) 우리 학교나 학급은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학교는 학교 안에서 원하는 모임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학교 내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 소수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차별을 받는 사람들	①	②	③	④
16)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교육과정: 과목별로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한 계획	①	②	③	④
17) 우리 학교는 공부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18) 우리 학교는 마을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19)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얼마나 배우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배우지 않음	조금 배움	어느 정도 배움	많이 배움
1) 선거에서 시민이 투표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만들고 바꾸는 방법	①	②	③	④
3)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예: 에너지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①	②	③	④
4) 지역의 문제해결을 돕는 방법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6) 다른 나라의 정치적 문제 및 사건	①	②	③	④
7)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	①	②	③	④

13

학교에서 다음 중 어떤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한 적 없음	안 한 지 1년이 넘었음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
1) 학급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①	②	③
2) 학급 임원 후보자 혹은 학생회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①	②	③
3) 학교의 여러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기	①	②	③
4) 학생회 토론에 참여하기	①	②	③
5) 학급 임원 후보자나 학생회 후보자로 나가기	①	②	③
6)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기	①	②	③
7) 친환경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예: 물 절약이나 재활용하기)	①	②	③

14

학생의 학교 참여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학교의 여러 일을 결정하는 데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2) 학교가 학생들과 학교 일을 함께하면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 모임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학생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한 적 없음	안 해본 지 1년이 넘었음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
1) 청소년 정당 단체 참여하기	①	②	③
2)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참여하기	①	②	③
3) 인권운동단체 참여하기	①	②	③
4) 자원봉사단체 참여하기	①	②	③
5) 청소년 캠페인 활동 참여하기	①	②	③
6)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참여하기 (예: 스카우트, YMCA)	①	②	③
7)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하기	①	②	③
8)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하기	①	②	③
9) 청소년특별회의 참여하기	①	②	③
10)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참여하기	①	②	③
11) 청소년 자치위원회 참여하기	①	②	③
12) 청소년의회 참여하기	①	②	③

16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거의) 하지 않음	최소 한달에 한번	최소 일주일에 한번	매일 (거의 매일)
1)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2)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3)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4)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5)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기	①	②	③	④
6)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이미지(사진·그림)를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①	②	③	④
7)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쓰기	①	②	③	④
8)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청원: 시민이 정부, 시청, 군청, 구청과 같은 기관에 불만을
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17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구분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상당히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모르겠음
1) 나(본인)	①	②	③	④	
2)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18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래의 사람들과 최근 1년간 얼마나 자주 대화를 했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1) 친구	①	②	③	④
2) 부모님	①	②	③	④
3) 형제 또는 자매	①	②	③	④
4) 할머니, 할아버지	①	②	③	④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6) 선배나 후배	①	②	③	④
7) 친척	①	②	③	④
8) 온라인 지인(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①	②	③	④
9) 학원 선생님	①	②	③	④

19

여러분이 정치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데 다음의 보기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주지 않았음	별로 주지 않았음	어느 정도 주었음	매우 주었음
1) 친구	①	②	③	④
2) 부모님	①	②	③	④
3) 형제 또는 자매	①	②	③	④
4) 할머니, 할아버지	①	②	③	④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6) 선배나 후배	①	②	③	④
7) 친척	①	②	③	④
8) 온라인 지인(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①	②	③	④
9) 학원 선생님	①	②	③	④
10) 언론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①	②	③	④
11) 정치(선거)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12) 관련 서적 등 독서	①	②	③	④

20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다음 중 2개를 선택하여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학생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법이 부족하다
- ② 학교에서 학생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교육(예: 시민교육, 정치교육, 인권교육 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활동을 위한 기회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 ④ 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학교와 사회에 있다
- ⑤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활동에 관심이 적다
- ⑥ 학교가 학생의 의사 표현이나 의사결정 참여를 못 하게 한다
- ⑦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기구(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

다음은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구분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모르는 교육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1)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일반 선거교육 (예: 학교선거, 학급선거, 선거와 민주주의 등)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청소년 정치학교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민주시민교육 (예: 교육 프로그램 이름에 민주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 민주주의 등이 들어간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감정, 리더십 교육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6) 민주주의(민주주의의 개념, 생활 속 민주주의)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제도와 참여(선거 및 정당제도, 선거 참여, 정당 가입·후원 등 정당활동)	①	②	③	④	⑤
8) 국제 정치와 공존(국제 평화,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제협약, 국제봉사, 통일 등)	①	②	③	④	⑤
9) 시민참여와 사회운동(시민단체활동, 집회참여, 소비자 불매운동 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10) 생활과 법(헌법, 형법, 인권, 등)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계층과 불평등(신분제도, 차별, 평등, 빈곤, 소수자 등)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한국 정치사, 세계 정치사, 민주화 역사 등)	①	②	③	④	⑤
13) 지속가능한 환경(지구촌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	①	②	③	④	⑤
14) 매체 이해와 사용(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15) 논리적 사고(논리적/비판적으로 읽기/쓰기/말하기/생각하기)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학생의 정치참여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됨	대체로 도움이 안 됨	대체로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모르는 교육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1)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일반 선거교육 (예: 학교선거, 학급선거, 선거와 민주주의 등)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청소년 정치학교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민주시민교육 (예: 교육 프로그램 이름에 민주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 민주주의 등이 들어간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감정, 리더십 교육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6) 민주주의(민주주의의 개념, 생활 속 민주주의)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제도와 참여(선거 및 정당제도, 선거 참여, 정당 가입·후원 등 정당활동)	①	②	③	④	⑤
8) 국제 정치와 공존(국제 평화,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제협약, 국제봉사, 통일 등)	①	②	③	④	⑤
9) 시민참여와 사회운동(시민단체활동, 집회참여, 소비자 불매운동 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10) 생활과 법(헌법, 형법, 인권, 등)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계층과 불평등(신분제도, 차별, 평등, 빈곤, 소수자 등)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한국 정치사, 세계 정치사, 민주화 역사 등)	①	②	③	④	⑤
13) 지속가능한 환경(지구촌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	①	②	③	④	⑤
14) 매체 이해와 사용(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15) 논리적 사고(논리적/비판적으로 읽기/쓰기/말하기/생각하기)	①	②	③	④	⑤

(위 질문에서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이 학생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만)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이 학생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2개를 선택하여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② 교육 내용이 나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③ 교사/강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
- ④ 교육 방식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 ⑤ 교육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다
- ⑥ 사회에서 학생의 정치참여를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 ⑦ 나는 학생(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문1 학생은 언제 태어났나요? 태어난 연도와 월을 작성해 주세요.

					년			월
--	--	--	--	--	---	--	--	---

배문2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급과 학년은 무엇인가요?

- ① 초등학교 4학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배문3 학생은 나중에 어디까지 학교를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⑤ 잘 모르겠음

배문4 다음 중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어머니	①	②
2) 여성 보호자(이모, 고모 등)	①	②
3) 아버지	①	②
4) 남성 보호자(삼촌, 큰아버지 등)	①	②
5) 형제 및 자매	①	②
6) 할아버지, 할머니	①	②
7) 기타	①	②

배문5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본인	어머니 또는 여성 보호자	아버지 또는 남성 보호자
1) 대한민국	①	①	①
2)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	②	②	②
3) 유럽	③	③	③
4) 아시아(한국 제외)	④	④	④
5) 오세아니아	⑤	⑤	⑤
6) 기타	⑥	⑥	⑥

배문6 집에서 주로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한국어
- ② 영어
- ③ 중국어/일본어
- ④ 프랑스어
- ⑤ 기타

배문7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8

집에 몇 권의 책이 있나요? 잡지, 신문, 만화책이나 교과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거의 없다 (10권 이내)
- ② 책꽂이 한 칸 분량 (11~25권 정도)
- ③ 책장 한 개 분량 (26~100권 정도)
- ④ 책장 두 개 분량 (101~200권 정도)
- ⑤ 책장 세 개 이상 (200권 이상)

배문9

2022년 2학기 기준 학생의 성적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매우 잘 못 하는 편
- ② 잘 못 하는 편
- ③ 보통
- ④ 잘하는 편
- ⑤ 매우 잘하는 편

배문10

우리 집의 잘 사는 정도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매우 나쁨 ←			보통			→ 매우 좋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설문지(중·고등)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고등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갖는 중요성과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응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 후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참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시기관	Research & Research Marketing Research · Public Opinion Poll and Consulting · ISO 9001 Certified Company · National License of JMSI	※ 담당자: 지민우 연구원 jimw@randr.co.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 담당자: 최정원 연구위원 doccjw@nypi.re.kr 이인영 부연구위원 iylee417@nypi.re.kr

조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44-415-2152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 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출생 연도와 달, 학교급, 학년, 성별, 부모(보호자)의 학력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별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표시하나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X	②	③	④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21-1

편소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5

2순위

3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

학생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상당히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모든 선거 참여	①	②	③	④
2) 정당 단체 가입	①	②	③	④
3) 역사 학습	①	②	③	④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 이슈 주시	①	②	③	④
5) 정부 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①	②	③	④
6) 정치 토론 참여	①	②	③	④
7) 불공정한 법에 대한 항의 평화적 항의 참여	①	②	③	④
8) 지역사회에 유익한 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9) 인권 증진 운동 참여	①	②	③	④
10) 환경 보호 운동 참여	①	②	③	④
11) 열심히 일하기	①	②	③	④
12) 항상 법을 준수하기	①	②	③	④
13) 가족의 경제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①	②	③	④
14)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①	②	③	④
15)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①	②	③	④
16)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지원하기	①	②	③	④
17) 저개발 국가 국민 지원 활동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2

다음의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모든 남녀는 정부가 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모든 남녀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3) 여성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4) 일자리가 없을 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동일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남성은 여성보다 정치지도자가 될 자격이 더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7) 아이를 키우는 일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다음의 민족 집단 및 인종 간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모든 인종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모든 인종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취업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든 인종 집단의 구성원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모든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다음의 단체, 기관 혹은 정보출처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신뢰하지 않음	약간 신뢰함	상당히 신뢰함	전적으로 신뢰함
1) 중앙 정부 부처 ※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일을 수행하는 곳: 청와대, 국방부 등	①	②	③	④
2) 지방 자치 정부 ※ 우리 지역의 일을 수행하는 곳: 시청, 구청 등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경찰	①	②	③	④
5) 정당 ※ 정당 : 정치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	①	②	③	④
6) 국회	①	②	③	④

5

다음에 제시된 한국에 관한 진술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태극기는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한국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	①	②	③	④
3) 한국이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5)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살기가 좋은 나라이다	①	②	③	④

6

다음의 활동을 본인이 얼마나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못 할 것 같음	잘 못 할 것 같음	상당히 잘할 것 같음	매우 잘할 것 같음
1)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토론	①	②	③	④
2)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주장	①	②	③	④
3) 학교 선거 후보자 출마	①	②	③	④
4)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집단 구성	①	②	③	④
5) 논쟁 이슈에 대한 텔레비전 토론 참여	①	②	③	④
6) 신문에 현재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신으로 보내기	①	②	③	④
7)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해 학급에서 연설하기	①	②	③	④

다음은 정치적 효능감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정치적 효능감: 자신의 정치참여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내 주변 사람들과 달리, 아무리 난해한 정치 사안을 접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중요한 정치 사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잘 분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TV 시사토론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별 어려움 없이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뉴스를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금세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남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가능하면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 소식은 접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9) 결론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 사안에 대하여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은 의미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복잡한 정치 소식을 읽거나 보는 일을 가능한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1) 잡지나 신문을 읽을 때, 정치 뉴스에는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치 뉴스나 기사를 꼭 챙겨서 시청하거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4) 잘 모르는 시사뉴스를 접하더라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학교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안 할 것 같음	잘 안 할 것 같음	상당히 할 것 같음	매우 할 것 같음
1)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	①	②	③	④
2) 내가 찬성하는 이슈를 위해 학생운동 단체에 가입	①	②	③	④
3)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나섬	①	②	③	④
4) 학생회 회의에서 토의에 참여	①	②	③	④
5) 학교 신문이나 웹사이트의 기사 작성에 참여	①	②	③	④

아래의 내용은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면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생각이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안 할 것 같음	아마도 안 할 것 같음	아마도 할 것 같음	확실히 할 것 같음
1) 지역 수준에서의 투표 참여 (예: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 등)	①	②	③	④
2) 국가 수준에서의 투표 참여 (예: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3) 투표하기 전 후보자의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4)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①	②	③	④
5) 정당 가입	①	②	③	④
6) 노조 가입 ※ 노조: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만든 단체	①	②	③	④
7) 지방 선거 후보자 출마	①	②	③	④
8) 사회적/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단체 가입	①	②	③	④
9)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10)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 (예: 물 절약)	①	②	③	④

정치참여

수업 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일어나지 않음	거의 일어나지 않음	가끔 일어남	자주 일어남
1)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반영하여 규칙이나 약속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은 학교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인권, 평등, 자유의 뜻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우리 학교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9)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회의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학교는 학급회의를 통해 우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 현장체험학습(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운영 등	①	②	③	④
12) 우리 학교나 학급은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학생자치회와 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우리 학교 공동체의 생활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학교 내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 소수자: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차별을 받는 사람들	①	②	③	④
16)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교육과정: 과목별로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한 계획	①	②	③	④
17) 우리 학교는 선택할 과목과 공부할 내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18)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유와 평등, 권리와 책임, 대화와 토론 등의 능력을 배우는 활동	①	②	③	④
19)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수업 내용과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나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2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얼마나 배웁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배우지 않음	조금 배움	어느 정도 배움	많이 배움
1) 지방 선거 및 총선에서 시민이 투표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2) 한국에서 법률을 도입하고 개정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3)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예: 에너지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①	②	③	④
4) 지역사회에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보호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6)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이슈 및 사건	①	②	③	④
7)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	①	②	③	④

13

학교에서 다음 중 어떤 활동에 참여하였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한 적 없음	안 한 지 1년이 넘었음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
1)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①	②	③
2) 학급 임원 후보자 혹은 학생회 후보자에게 투표	①	②	③
3)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①	②	③
4) 학생회 토론 참여	①	②	③
5) 학급 임원 후보자나 학생회 후보자로 출마	①	②	③
6)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	①	②	③
7) 친환경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 (예: 물 절약이나 재활용을 통해)	①	②	③

14

학생의 학교 참여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학교 운영 방법에 대한 학생 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2)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학생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한 적 없음	안 해본 지 1년이 넘었음	최근 1년 안에 한 적 있음
1) 청소년 정당 단체	①	②	③
2) 환경 운동 단체나 조직	①	②	③
3) 인권운동단체	①	②	③
4) 자원봉사단체	①	②	③
5) 청소년 캠페인 활동	①	②	③
6)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예: 보이/걸 스카우트, YMCA)	①	②	③
7)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8)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②	③
9) 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10) 청소년참여예산제도	①	②	③
11) 청소년 자치위원회	①	②	③
12) 청소년의회	①	②	③

16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거의) 하지 않음	최소 한달에 한번	최소 일주일에 한번	매일 (거의 매일)
1)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2)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①	②	③	④
5)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6)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이미지(사진·그림)를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①	②	③	④
7)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8)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17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구분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상당히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모르겠음
1) 나(본인)	①	②	③	④	
2) 어머니(또는 여성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또는 남성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18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래의 사람들과 최근 1년간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였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1) 친구	①	②	③	④
2) 부모님	①	②	③	④
3) 형제 또는 자매	①	②	③	④
4) 할머니, 할아버지	①	②	③	④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6) 선배나 후배	①	②	③	④
7) 친척	①	②	③	④
8) 온라인 지인(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①	②	③	④
9) 학원 선생님	①	②	③	④

학생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아래의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미치지 않음	별로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미침	매우 미침
1) 친구	①	②	③	④
2) 부모님	①	②	③	④
3) 형제 또는 자매	①	②	③	④
4) 할머니, 할아버지	①	②	③	④
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6) 선배나 후배	①	②	③	④
7) 친척	①	②	③	④
8) 온라인 지인(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①	②	③	④
9) 학원 선생님	①	②	③	④
10) 언론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①	②	③	④
11) 정치(선거) 관련 수업 혹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12) 관련 서적 등 독서	①	②	③	④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2개를 선택하여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학생의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법이 부족하다
- ② 학교에서 학생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교육, 정치교육, 인권 교육 등)
- ③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활동을 위한 기회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 ④ 학생의 정치참여가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부정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에 존재한다
- ⑤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활동에 관해 무관심하다
- ⑥ 학교가 학생의 의사 표현이나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제한한다
- ⑦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참여기구(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의 실질적 역할이 부족하다

다음은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하주세요.

구분	전혀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대체로 잘 이루어 지고 있음	매우 잘 이루어 지고 있음	모르는 교육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1)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일반 선거교육 (예: 학교선거, 학급선거, 선거와 민주주의 등)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청소년 정치학교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민주시민교육 (예: 교육 프로그램 이름에 민주시민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 민주주의 등이 들어간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감정, 리더십 교육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6) 민주주의(민주주의의 개념, 생활 속 민주주의)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제도와 참여(선거 및 정당제도, 선거 참여, 정당 가입·후원 등 정당활동)	①	②	③	④	⑤
8) 국제 정치와 공존(국제 평화,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제협약, 국제봉사, 통일 등)	①	②	③	④	⑤
9) 시민참여와 사회운동(시민단체활동, 집회참여, 소비자 불매운동 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10) 생활과 법(헌법, 형법, 인권, 등)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계층과 불평등(신분제도, 차별, 평등, 빈곤, 소수자 등)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한국 정치사, 세계 정치사, 민주화 역사 등)	①	②	③	④	⑤
13) 지속가능한 환경(지구촌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	①	②	③	④	⑤
14) 매체 이해와 사용(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15) 논리적 사고(논리적/비판적으로 읽기/쓰기/말하기/생각하기)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학생의 정치참여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됨	대체로 도움이 안 됨	대체로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모르는 교육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1)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일반 선거 교육 (예: 학교 선거, 학급선거, 선거와 민주주의 등)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청소년 정치학교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밖(지역, 정당 등)에서 운영된 민주시민교육 (예: 교육 프로그램 이름에 민주시민 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 민주주의 등이 들어간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감정, 리더십 교육	①	②	③	④	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6) 민주주의(민주주의의 개념, 생활 속 민주주의)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제도와 참여(선거 및 정당제도, 선거 참여, 정당 가입·후원 등 정당 활동)	①	②	③	④	⑤
8) 국제 정치와 공존(국제 평화,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제협약, 국제봉사, 통일 등)	①	②	③	④	⑤
9) 시민참여와 사회운동(시민단체활동, 집회 참여, 소비자 불매운동 운동 등)	①	②	③	④	⑤
10) 생활과 법(헌법, 형법, 인권, 등)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계층과 불평등(신분제도, 차별, 평등, 빈곤, 소수자 등)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한국 정치사, 세계 정치사, 민주화 역사 등)	①	②	③	④	⑤
13) 지속가능한 환경(지구촌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	①	②	③	④	⑤
14) 매체 이해와 사용(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15) 논리적 사고(논리적/비판적으로 읽기/쓰기/ 말하기/생각하기)	①	②	③	④	⑤

23

(위 질문에서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이 학생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만)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이 학생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2개를 선택하여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② 교육 내용이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
- ③ 교사/강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
- ④ 교육 방식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 ⑤ 교육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 ⑥ 사회에서 학생의 정치참여를 지지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 ⑦ 나는 학생(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II

학생특성

배문1 학생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연도와 월을 작성해 주세요.

					년			월
--	--	--	--	--	---	--	--	---

배문2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급과 학년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중학교 1학년 | ② 중학교 2학년 | ③ 중학교 3학년 |
| ④ 고등학교 1학년 | ⑤ 고등학교 2학년 | ⑥ 고등학교 3학년 |

배문3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학교를 다닐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중학교 졸업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 ⑤ 잘 모르겠음

배문4 다음 중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어머니	①	②
2) 여성 보호자(이모, 고모 등)	①	②
3) 아버지	①	②
4) 남성 보호자(삼촌, 큰아버지 등)	①	②
5) 형제 및 자매	①	②
6) 할아버지, 할머니	①	②
7) 기타	①	②

배문5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본인	어머니 또는 여성 보호자	아버지 또는 남성 보호자
1) 대한민국	①	①	①
2)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	②	②	②
3) 유럽	③	③	③
4) 아시아(한국 제외)	④	④	④
5) 오세아니아	⑤	⑤	⑤
6) 기타	⑥	⑥	⑥

배문6

집에서 주로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한국어
- ② 영어
- ③ 중국어/일본어
- ④ 프랑스어
- ⑤ 기타

배문7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8

집에 몇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까? 잡지, 신문, 만화책이나 교과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① 거의 없다 (10권 이내)
- ② 책꽂이 한 칸 분량 (11~25권 정도)
- ③ 책장 한 개 분량 (26~100권 정도)
- ④ 책장 두 개 분량 (101~200권 정도)
- ⑤ 책장 세 개 이상 (200권 이상)

배문9

2022년 2학기 기준 학생의 성적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2022년 2학기에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① 매우 낮은 수준(예: 25명 중 21위~25위 수준)
- ② 낮은 수준(예: 25명 중 16위~20위 수준)
- ③ 중간 수준(예: 25명 중 11위~15위 수준)
- ④ 높은 수준(예: 25명 중 6위~10위 수준)
- ⑤ 매우 높은 수준(예: 25명 중 1위~5위 수준)

배문10

가정행편(경제 수준)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매우 나쁨 ←			보통			→ 매우 좋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4. 학교 특성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	---

학교특성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참여하시는 설문 조사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기획된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은 학교의 교원 및 학생 구성 현황, 시민교육 운영 현황, 학생의 참여 활동 현황, 학교의 의사결정 환경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원은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덕성과 역량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학교의 교육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문은 오직 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며 설문에 응해주시는 선생님의 개인정보는 일절 수집되지 않습니다. 결과 분석에서도 설문을 작성하신 선생님의 식별 정보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시기관	 Marketing Research • Public Opinion Poll and Consulting • ISO 9001 Certified Company • National License of KMA	※ 담당자: 지민우 연구원 jimw@randr.co.kr ※ 조사문의: 임희정 차장 hjlim@randr.co.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최정원 연구위원 dcccjw@nypi.re.kr 이인영 부연구위원 iylee417@nypi.re.kr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학교명(적어주세요)		

1 2023년 5월 1일 기준, 귀 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	--	--	--

명

2 2023년 5월 1일 기준, 귀 교의 학생 중에서 아래의 특성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10% 미만	10% 이상 ~ 25% 미만	25% 이상 ~ 50% 미만	50% 이상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교육급여 수혜 학생 등)의 학생	①	②	③	④
2) 특수교육대상 학생	①	②	③	④
3) 다문화가정 학생	①	②	③	④

3 2023년 5월 1일 기준, 귀 교에 근무 중인 전체 교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	--

명

4 2023년 5월 1일 기준, 귀 교의 교원 중에서 아래의 특성에 해당하는 교원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10% 미만	10% 이상 ~ 25% 미만	25% 이상 ~ 50% 미만	50% 이상
1) 경력 15년 미만에 해당하는 교사 비율	①	②	③	④
2)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비율	①	②	③	④
3) 박사학위 소지 교사 비율	①	②	③	④

5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 | |
|---------------------------|----------------------|
| ① 사회나 정치, 시민 제도에 대한 지식 증진 | ② 환경 보전과 존중 의식 증진 |
| ③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줄 아는 능력 개발 | ④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 개발 |
| ⑤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 증진 | ⑥ 지역사회 참여 독려 |
| ⑦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개발 | ⑧ 학교 활동 참여 독려 |

6

귀 교에서 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 문항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하여 <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사가 지도	①	④
2)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교과(예: <역사, 지리, 법, 경제 등>) 담당교사가 지도	①	④
3)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에 포함하여 지도	①	④
4) 교과외 활동으로 지도	①	④
5) 총체적으로 학교 경험의 결과로 간주	①	④

7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다음의 활동에 대해 귀 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자율적이지 않음	거의 자율적이지 않음	상당히 자율적임	완전히 자율적임
1)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선택	①	②	③	④
2) 학생 평가 절차 및 도구 수립	①	②	③	④
3)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	①	②	③	④
4)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 연수의 내용 결정	①	②	③	④
5) 교과 외 활동	①	②	③	④
6) 조직 및 기관과의 협력 계약 수립 (예: 대학, 지방자치단체, 협회, 재단)	①	②	③	④
7) 국내외 학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참여	①	②	③	④

8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귀 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1) 학생들은 학교 밖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에 참여함 (예: 이웃 면담, 소규모 설문조사)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모둠 활동을 함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은 역할 놀이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4) 학생들은 최근 이슈에 대해 논쟁함	①	②	③	④
5) 학생들은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예: 위키피디아, 온라인 신문)	①	②	③	④
6)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제한함	①	②	③	④

9

귀교의 학생은 지역사회 활동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1)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한 활동	①	②	③	④
2) 인권 프로젝트	①	②	③	④
3)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①	②	③	④
4) 지역사회 내 다문화 활동	①	②	③	④
5) 캠페인 활동	①	②	③	④
6) 지역사회 내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7) 정치적 기관 방문	①	②	③	④
8) 스포츠 활동	①	②	③	④

10

귀교에서 학교 구성원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1) 교사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2) 학부모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3) 학생의 의견은 의사결정과정에 고려됨	①	②	③	④
4) 규정과 규칙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 의해 준수됨	①	②	③	④
5) 학생에게 학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짐	①	②	③	④
6) 학부모는 학교와 학생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①	②	③	④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상 속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성원(成員)으로 갖춰야 할 좋은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 선거권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피선거권 나이를 25세에서 18세로 낮춘 2019년과 2021년의 공직선거법 개정, 입당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춘 2022년의 정당법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정치 관계법의 개정은 분명 청소년 정치참여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만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학교 정치·시민교육의 한계, 관계 법령의 한계,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청소년 당사자의 무관심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일상 속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탐색하고 이러한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개념, 시민성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민성을 ‘좋은 시민의 역할에 기대 되는 가치 규범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치 규범으로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참여를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자신이 속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의 운영 규칙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변화에 관해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하며,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개념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성

과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초·중·고 표집 총 8,654명(초등학교 4~6학년 2,848명, 중학교 1~3학년 2,821명, 고등학교 1~3학년 2,98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좋은 시민의 핵심 가치 규범인 참여, 자율, 연대, 평등, 사회질서, 애국 등에 대한 수용적 태도,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정치참여 경험, 참여에 대한 효능감,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및 시민성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활성화 수준과 도움 수준, 문제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과 시민성 함양의 연관성을 비단 학생 개인의 맥락에서만 아니라 학교의 맥락에서도 살펴보고자 학생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 조사를 별도 실시하였다. 학교 특성 조사의 목적은 각 표본 학교에서 구현되고 있는 학교 시민교육의 제반 운영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교원 1인(교장, 교감, 부장급 교원 등 학교별로 상이)이 각 학교를 대표해 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본 연구는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력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의 시민성 증진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청소년 그룹과 교원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그룹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수립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 14명과 대학생 8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교원 그룹에는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에 대한 전문 식견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사 10명이 참여했고 정치참여의 의미, 관심, 경험, 효능감, 지원 방안, 시민성의 의미, 발달 경험, 함양 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학교 안팎의 현장에서 교육, 자치활동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 전문가 집단(초·중등 교사, 교육청 장학사, 참여기구 운영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민성 함양 및 정치참여 활성을 저해하는 교육적, 기구적, 법률적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 등을 자문하였고 관계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제도 개최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일상 속 정치참여가 내실 있게 구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 대안을 교육, 법령, 그리고 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essential support measures for fostering responsible citizenship among youth and promoting their active engagement in daily politics. Recent societal initiatives have concentrated on refining the system to encourage political involvement among young individuals.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2019 lowered the voting age from 19 to 18, while in 2021, the candidacy age was reduced from 25 to 18. The 2022 revision of the Political Party Act also lowered the age for party membership from 18 to 16. These legal adjustments represent significant milestones, offering opportunities to enhanc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to a more sophisticated level.

However, the activation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not achieved solely through the amendment of laws. Numerous obstacles hinde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ctivation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cluding constraints within political and civic education in schools, limitations within existing laws, negative societal perceptions towards youth political involvement, and prevailing youth indifference. Recognizing these challeng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diverse resources that can reinvigorat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ir daily lives, fostering their growth into responsible citizens through hands-on political experiences.

To fulfill its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delved into the concepts

of citizen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xploring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rough this exploration, citizenship was conceptualized as a set of normative values expected from the role of a good citizen, with corresponding value norms identified, including participation, autonomy, solidarity, equality, social order, and patriotism. Furthermore, the study adopt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olitical participation, encompassing both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forms. In this context,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defined as a spectrum of activities aimed at 1)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operating rules and policies of various levels of communities (such a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nation) to which one belongs and 2) forming, expressing, and reflecting opinions for addressing and effecting change in the community.

Drawing insights from previous research and the established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d the current state of citizen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youth.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8,654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comprising 2,848 4th to 6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2,821 1st to 3rd-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2,985 1st to 3rd-grade high school students). The survey covered various dimensions, including 1) assessing the accepting attitude toward essential value norms of a good citizen, such as participation, autonomy, solidarity, equality, social order, and patriotism; 2) exploring a sense of efficacy regarding diverse experiences and participation in political engagement both within and outside the school setting; and 3) evaluating awaren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related education within and outside the school, considering activation levels, perceived helpfulness, and identified

issues.

Moreover, the study sough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experi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development, considering not only individual students' contexts but also the school context. To this end, a parallel survey on school characteristics was carried out across all sample schools included in the student surveys. The school characteristics survey aimed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overall operational environment of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each sample school, with a designated representative teacher (varying by school, including principals, vice principals, and senior-level educators) responding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schools.

Beyond the quantitative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to qualitatively understand the impact of political participation experiences within and outside the school on shaping youth's citizenship. Another objective of the FGI was to derive effective measures supporting political engagement to enhance youth citizenship. The FGI involved two distinct groups: youth and teachers. The youth group comprised a total of 22 participants, including 14 student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eight college students with hands-on experience in identifying youth policy tasks and formulating policies at various levels, including the national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or community, through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s in South Korea, such as the Presidential Youth Congress, Youth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Simultaneously, the teacher group comprised ten educators with extensive expertise and professional insight into political and civic education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evels. In-depth interviews with both

groups covered the meaning, interest, experiences, efficacy, and support measur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Finally, the study sought guidance from a panel of 20 on-site education experts, comprising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educational administrators, and operators of participatory organizations who play a pivotal role in fostering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through education and guidance within and outside the school, to gain insights into the awareness of issues and alternatives concern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al, and legal environments that impede the development of youth citizenship and hinder the activ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Moreover, a Policy Consultative Council was convened with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to enrich the discussion further.

Through the above research process, this study proposed policy tasks and related alternatives in education, law, and organization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implement political participation effectively in everyday life to cultivate youth citizenship.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운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의 실태와 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시05 닛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 반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크숍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 키 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95-4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95-4